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decorated with a pattern of green and blue confetti. The green pieces are mostly small circles and teardrop shapes, while the blue pieces are more angular and star-like. The overall effect is a festive, celebratory atmosphere.

2012 *haja* ANNUAL REPORT 2012

2012 하자센터 애뉴얼리포트

haja profile

조직도

2012년 연혁

재정 현황

1. 창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 커리어 하자(Career haja)

일일 직업체험 프로젝트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 위크(Career Week)'

청소년 진로포럼 '청소년, 미래의 일을 상상하다'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I '미래를 고민하는 청소년 길찾기, 'Plan B'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II '젊은세대 현장포럼-삶의 기반을 만드는 청년들, 지역을 살리는 청년들'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III 희망토크 '괜찮아, 열 아홉 살'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소년, 청년을 만나다' '휴카페와 함께하는 성장워크숍-세상 앞으로 한 걸음 더'

창의교육 프로그램 / C-플랫폼(Creativity Platform)

청소년 토요일학교 C-플랫폼(C-Plat)

청소년창의캠프 'C-큐브(Creativity Cube)'

어린이 창의교육 지원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

청소년활동지원사업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교사·활동가·대중 대상 프로그램

교육포럼 1 '학교를 바꾸는 작은 행동, 어떻게 가능한가'

교육포럼 2 '청소년 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

교육포럼 3 '비정규트랙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말하다'

2012 서울지역 청소년정책토론회 '커뮤니티와 청소년, 경험 속에서 실마리를 찾다'

청소년활동가연수 '사업이라는 미로를 여행하는 청소년 활동가를 위한 안내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진로활동을 중심으로 하자마을책방

2. 돌봄

하자작업장학교

로드스콜라

연금술사 프로젝트

영세프스쿨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

네트워크 학교 실험교실

3 마을

하자허브

허브 멤버십

허브 커뮤니티 지원사업

하자허브 여름학교 '지속가능한 도시를 디자인하자!'

자공공 아카데미 1기 '사회와 공간 큐레이터 학교'

청년난감모임

30대 여성 난감모임

심심모임

하자허브 공방

삶디자인공방

무한나눔사이클(무.나.사) 자전거공방

사회적경제 파트너십

2012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영등포 달시장

〈일, 청년을 만나다〉 청년취재단 운영

2012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자활의 환경, 자급의 기술'

마을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하자투어

온& 오프라인 홍보

통번역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노리단

대지를 위한 바느질

리블랭크

에듀케스트라

영화제작소 눈

오가니제이션 요리

유유자적살롱

이야기꾼의 책공연

트래블러스맵

haja Profile

1. 조직도

2. 2012년 연혁

3. 재정 현황

1. 조직도

센터장
부센터장

운영지원부

경영기획팀

팀장 1명
인사•총무 1명
회계•행정 1명
자원•물품관리 1명
하드웨어 관리 1명

시설팀

팀장 1명
시설관리 1명
미화 3명
보안 2명

교육기획팀

교육기획 2명
직업체험 2명
어린이창의아틀리에 2명

협력기획팀

팀장 1명
아이디어경진대회 1명
대외협력 1명
허브 3명
공방 2명

학교운영팀

학교장 1명
팀장 1명
교사 3명
공동수업 1명

기획부

2. 2012년 하자에서 있었던 일들

- 1월 3일 하자센터 시무식
- 1월 5일~1월 6일 하자센터 새해 워크숍
- 1월 13일 아카이브하자 오픈
- 1월 16일 하자-암웨이 교육사업 기금 전달식
- 1월 16일~1월 19일 하자허브 '도시야 놀자 워크숍'
- 1월 25일 연세대 청년문화원 2011년 교내 자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
- 2월 15일 교육포럼 1 '학교를 바꾸는 작은 행동, 어떻게 가능한가?'
- 2월 18일~3월 3일 'Plan B_다양한 삶의 상상'(2월 18일 창의워크숍, 경제워크숍, 2월 25일 커리어토크, 3월 3일 희망토크)
- 3월 2일 로드스콜라 길머리 입학식
- 3월 3일 하자작업장학교 졸업식 '졸업_크리킨디학교 1敎詩 : We Do What We Can Do'
- 3월 3일 하자작업장학교 봄학기 신입생 입학식
- 3월 5일 영세프스쿨 3기 입학식
- 3월~4월 청년 난감모임 주최
- 3월 15일 교육포럼 2 '청소년 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 공동 주최(유유자적살롱)
- 3월 17일 청소년 토요일학교 'C-플랫폼' 1기 시작, 연내 총 4기 진행
- 4월 17일 '시농(始農)' 잔치
- 4월 26일~4월 27일 '자공공포럼1: 청년, 지역을 만나다'
- 5월 1일~6월 31일 '하자허브 아카데미' 진행
- 5월 9일 교육포럼 3 '비정규트랙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말하다'
- 5월 25일 영등포 달시장 개장
- 6월 14일 '생각하는 청개구리' 첫 프로그램 스타트
- 7월 2일~8월 3일 '하자허브 여름학교' 진행

7월 31~8월 3일 청소년 창의캠프 'C-큐브'

8월 7일~8월 10일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위크'

9월 6일~9월 7일 '한일 청년 현장포럼: 삶의 기반을 만드는 청년들, 지역을 살리는 청년들'

9월 25일~9월 27일 '2012 서울청소년창의서밋'

9월~2013년 10월 '여럿이 함께 하는 경제-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공동주관

10월 하자허브 커뮤니티카페 운영 시작

10월 31일~ 12월 12일 '자공공 아카데미 1기 : 사회와 공간 큐레이터 학교'

11월~12월 '2012 좌절금지 희망 프로젝트' 진행(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1일, 11월 26일~11월

28일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소년, 청년을 만나다', 12월중 '휴카페와 함께하는 성장 워크숍-세상 앞으로

한걸음 더'(은평구 마을N도서관, 동대문구 만만한 카페 연계)

12월 1일 집밖에서 유유자적 2주년 부족파티

12월 8일 로드스폴라 제 1회 영화제 '지도에는 없는 이야기'

12월 18일 하자 생일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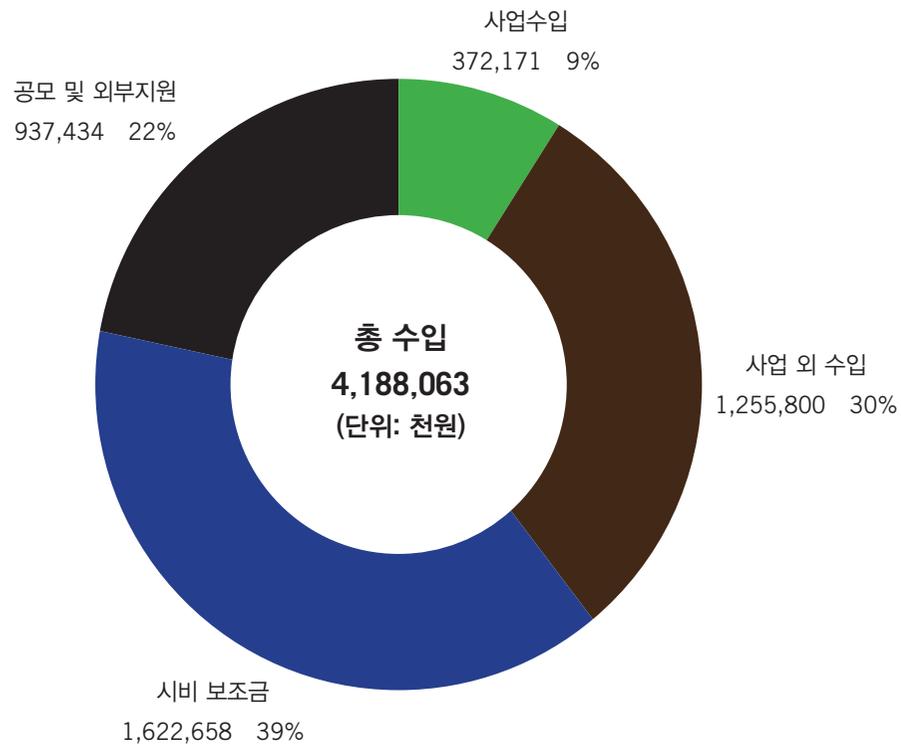
12월 20일 영세프 3기 수료식

3. 재정 현황

하자센터 수입현황(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항목	내용	금액 (천원)	
사업수입	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강습료		372,171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이월금/기타		1,255,800
시비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1,622,658
	세부내역	재원처	보조금 총계
공모·외부지원사업 보조금	청소년 창의캠프 'C-큐브'	서울시교육청	937,434
	대안교육센터 보조금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금술사 프로젝트	아름다운재단	
	창의체험활동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좌절금지 프로젝트	서울시	
	놀토엑스포	서울시	
	가비아 인문학	가비아	
	청소년창의위원회	서울시	
	정책토론회	여성가족부	
	창의아트페어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공공포럼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	서울시	
	에너지자립 적정기술 워크숍	서울시	
	방방곡곡 대안장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영등포구 토요일우수프로그램	영등포구	
	달시장	영등포구	
영등포구 동아리 지원	영등포구		
총수입			4,188,063

2012 수입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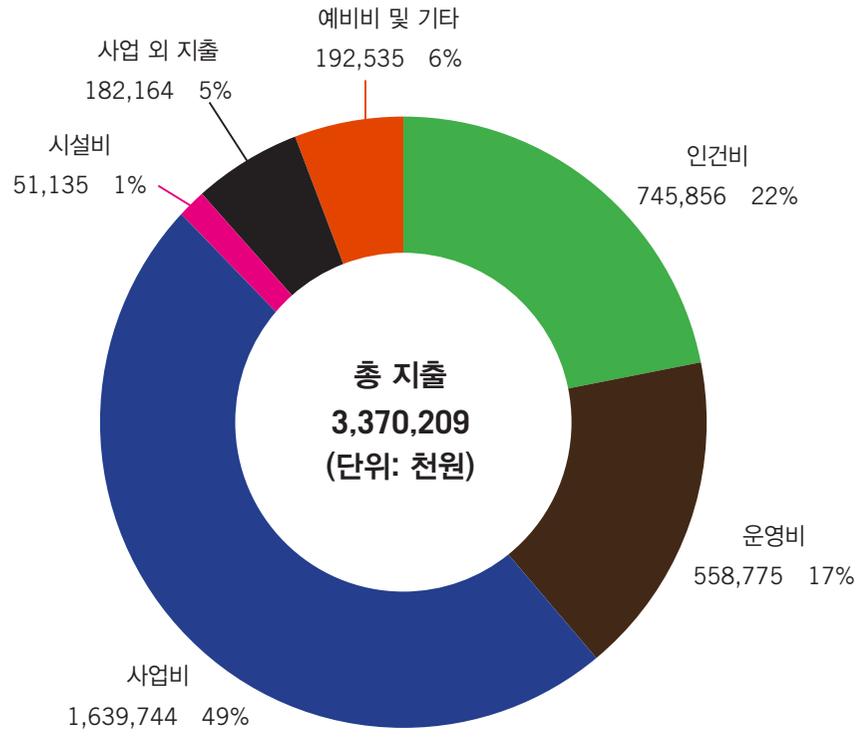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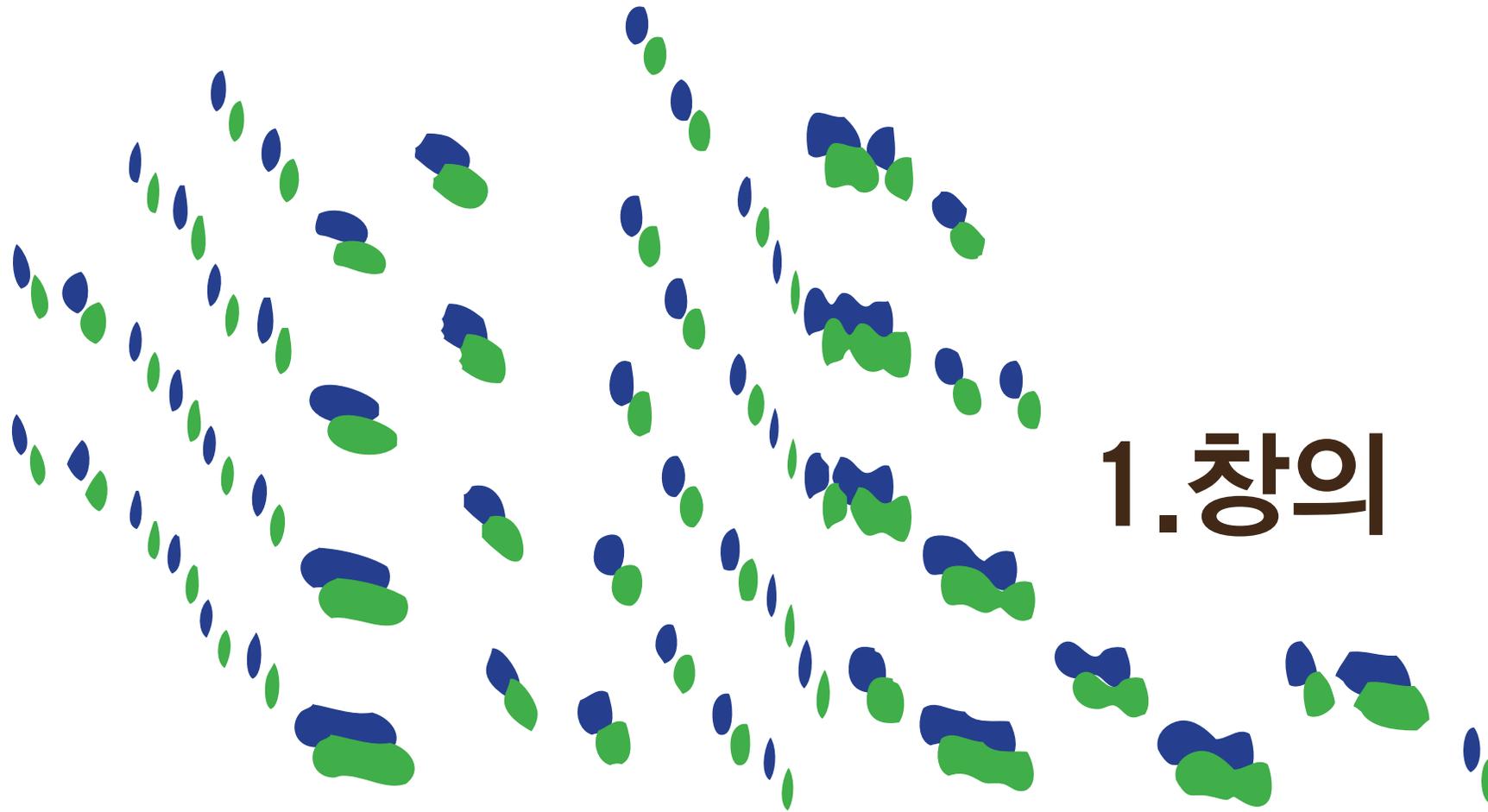
하자센터 지출현황(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항목	내용	금액 (천원)
인건비	인건비	745,856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58,775
시설비	시설유지, 관리 등	51,135

	세부내역	사업비 지출 총액
사업비	청소년 진로영역	1,639,744
	청소년 자발성영역(생태, 창작지원, 리더십, 창의활동)	
	공교육/교사영역	
	창의인프라(홍보 등)	
	대안학교	
	하자허브	
	창업인큐베이팅	
	청년건축가 프로젝트	
	어린이창의아틀리에	
	네트워크학교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사업	
	청소년직업체험캠프(커리어워크)	
	청소년창의캠프(C-큐브)	
	방방곡곡대안장터	
	달시장	
	연금술사 프로젝트	
	좌절금지 프로젝트	
	자공공포럼 달시장	
	놀토엑스포	
	가비아인문학	
	창의아트페어	
	영등포구 토요유스프로그램	
영등포구 동아리 지원사업		
정책토론회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		
에너지자립 적정기술 워크숍		
사업외지출	182,164	
예비비 및 기타	192,535	
총지출	3,370,209	

2012 지출예산





1. 창의

하자센터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아동·청소년·청년·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 각 분야로 보급하고 교류하고 있다.

하자센터의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진로 탐색을 돕는 커리어하자(Career haja)와 다감각, 통합적으로 구성된 창의 학습 커뮤니티 C-플랫폼(Creativity Platform), 두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당사자인 청소년은 물론 교사, 활동가,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포럼, 워크숍, 연구사업 등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1.창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사업 이름: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대상: 14~19세 청소년

진행기간: 2012년 1월 18일 ~ 12월 14일

참가방법: 전화 / 이메일 신청

참가비 여부: 1인당 7,000원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70,621,320원

총 참여인원: 9,846명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청소년기에 가장 고민하는 주제인 '진로'에 대하여 멘토와의 만남과 워크숍을 통하여 탐색해보는 프로젝트이다. 멘토가 들려주는 직업 이야기를 들으며 이후 워크숍을 통하여 직업을 체험해보게 된다. '강의'보다는 '체험'에 비중을 두어 몸으로 익히고 놀면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험하는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창조산업분야 직업군으로 2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1회 총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은 기존의 직업군 외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직업 또는 일을 찾아 발굴하고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1년 내 전체 세부 프로그램의 30% 정도를 점차 확대한다는 미션과 목표를 설정하고 출발했다.

what we did in 2012

(1) 프로그램 현황

구분	라디오	그래피티	명함	보컬	영상	모델	패션	게임	뮤지컬	천연염색	네일	분장	댄스	포장	플로리스트	POP	마술	목공	게임만들자	에코	도시농부	총계
횟수	39	36	20	91	68	1	57	18	42	28	39	60	17	14	17	17	60	49	50	5	3	731
인원	618	484	252	1,200	921	10	773	206	595	357	504	809	209	178	183	222	834	692	733	66	38	9,884
강사	2	2	1	1	4	1	1	2	2	1	2	2	3	1	1	1	2	5	1	2	2	39

(2) 참가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복지관 등
이용시설(곳)	1	107	35	1	16
이용인원(명)	198	6,888	2,220	20	548
장애인	총 563명				
	*학교 : 김포특수학급연합 13회 / 대곶중 10회 / 부천공고 8회 / 운산고 7회 태장고 4회 / 경기여고 2회 / 세마고 1회 / 성곡중 1회 / 신도봉중 1회				
	*기관 : 늘푸른나무복지관 2회 / 성모보호작업시설 2회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012년 교육팀의 화두가 되었던 '소셜'의 키워드는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다. 일일직업체험 내에서는 하자센터가 지향하는 '사회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직업군'을 가장 쉬운 형태로 체험하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몇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 중에는 목공과 도시농부, 에코패션디자인이 그것이다. 목공과 에코패션디자인은 4월부터, 도시농부는 7월부터 개설되어 진행이 되었다.

구분	목공	에코패션디자인	도시농부
진행	하자 리사이클 디자인 공방	대지를 위한 바느질	교육팀 판돌
강사풀 특징	목공방의 네트워크 공방과의 연계 / 디자인 공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작업자	대지를 위한 바느질 직원이자 워킹맘 연소라	텃밭과 생태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있는 하자 스태프
내용	생활기술로서의 목공을 소개하고 기초 연장을 이용하여 간단한 작업을 해봄	환경에 유해한 화학섬유에 대한 설명과 환경친화적인 천연섬유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을 직접 손바느질로 만들어봄	하자센터 옥상텃밭에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하거나 심어본다.
소셜의 지점	자기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자립생활기술로서의 목공을 체험	환경파괴가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화학섬유를 천연섬유로 바꾸어 활용하자는 제안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직접 작물을 키워보는 의미, 협업하는 경험
참여인원	692명	66명	38명
수업횟수	49회	5회	3회
한계	<p>체험이 중시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에서 '소셜'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대상층 대부분이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직업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간략화해서 전달할 때 효과가 그닥 높지 않았고, 오히려 체험을 통해 협업과 몸을 쓰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더 진하게 전달되었다.</p>		



8개월간 목공하자 수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700명 정도. 일일직업체험을 신청하는 학교와 단체에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도시농부와 에코패션디자인에 대한 수요는 적었지만, 실제 수업 진행이 가능한 일정이 제한되었음(에코패션디자인은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강사의 개인 일정으로 오전 시간만 진행 가능, 도시농부는 옥상텃밭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확 시기, 심는 시기 등 상시 진행이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은 최근 여러 기관에서 점점 시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서울시 종합정보사이트 '유스내비'에 올라오는 타 기관의 직업·진로영역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유스내비 개편 뒤(10월 이후)에 특강, 박람회 등을 포함해서 50여 개 프로그램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1~2개의 직업에 초점을 맞춘 하루 단기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모집해 진행되며 문화예술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술, 디자이너, 요리 등 교사 및 학부모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고, 강사 발굴도 비교적 쉬운 분야다. 이에 비해 하자센터가 2012년 시도했던 목공, 에코패션디자인, 목공 등은 체험하는 학생들에게나 교사에게나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소셜'한 직업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로 규정짓고 사회적기업 또는 환경, 생태 등 지속가능한 분야의 직업 영역에서 발굴해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안에 녹여내고자 했으나 단회성 프로그램의 한계상 온전히 그 의미를 담아내기 힘들었다. 자신의 직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강사가 전달하려해도 대부분의 참여자가 중학생이어서 대상에 맞춘 접근이 어려웠다. 놀이와 체험에 중점을 두는 만큼 말로 풀어내기보다 직접 몸을 써서 해나가는 과정 속에 의미를 깨닫게 하는 등 앞으로 의미화 과정에 대한 더 밀도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2007년 일일직업체험이 새롭게 선보일 때와는 달리 이제는 이런 종류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늘어나 뚜렷한 변별력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해가 갈수록 이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앞으로도 하자센터만의 진로에 대한 철학과 색깔을 담아내는 직업 프로그램으로서 꾸준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단편적인 직업 소개보다는 '어떤 직업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청소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사회적 의미를 담은 직업군을 꾸준히 발굴하면서 현재 직업 지형도의 변화와 추이를 담아낼 수 있는 좀 더 큰 틀거리의 구상을 연결해야 할 시점이다.

more info

기획자 리뷰 칼럼 <http://www.haja.net/?p=3905>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위크(Career Week)'

사업 이름: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위크(Career Week)'

대상: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진행기간: 2012년 8월 7일~

2012년 8월 10일

참가방법: 주최측인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에 공문

발송. 이후, 학교별로 교사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5~6명의 추천

학생 명단과 신청서를 서울시로

송부. 최종 수합된 명단과

신청서를 주관 주체인 하자센터가

넘겨받아 참여자 선발

참가비 여부: 무료

장소: 하자센터 및 각 직업 현장

총 사업비: 55,000,000원

총 참여인원: 531명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위크'는 직업 능력 교육 중심의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일간의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은 현장 탐방과 멘토와의 만남, 워크숍 등을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고 이를 구체화하게 된다. 특히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또래 친구들과 진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2012 '커리어위크'는 영상, 디자인, 공연기획 등 기존의 창조산업분야는 물론 슬로푸드, 공정여행 등 생소하지만 사회적 공익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직업 현장을 연계해 운영했다.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안정성뿐만 아니라, 혁신과 실험을 꾀하고자 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5개 분야에서 올해 총 9개로 분야 역시 크게 늘려 진행했다.

커리어워크의 미션

- 청소년 직업 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
- 청소년들에게 창조산업분야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영역의 직업군 발굴 및 제시
-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비롯한 청소년 진로 인식 전반 제고

what we did in 2012

전반적 진행 과정

- 3월 사업 운영 전반 기획
- 5월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분야별 협력 파트너 확정
- 6월 분야별 세부 계획안 확정
 - 전체 운영단위 간담회
- 7월 캠프 참가자 모집 마감
 - 참가자 안내 및 공지
- 8월 사업 실행
- 9월 결과 보고

세부 프로그램별 진행

- 8월 7일 1일차 오리엔테이션
- 8월 8일~8월 9일 2-3일차 분야별 워크숍 및 현장체험(총 9개 분야)
 - 공연기획
 - 공정여행
 - 농업유통
 - 대안식문화: 슬로푸드
 - 만화 애니메이션
 - 에코 리사이클링: 자전거
 - 영화 영상(일반)
 - 영화 영상(일반+배리어프리)
 - 패션 재활용디자인
- 8월 10일 4일차 쇼하자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현장을 체험하고, 멘토를 만나본다는 현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은 기본으로 하되, 2012년에는 각 직업 분야에 있어서 변화를 꾀했다. 전년도 총 5개였던 직업 분야를 거의 2배수에 가까운 9개 직업 분야로 늘렸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영화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창조산업 직업군 뿐 아니라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미래 직업군으로 예상되는 에코 리사이클링 분야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으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후반작업을 통해 영화를 재가공하거나 장애인을 고려하여 작업된 영화를 통칭하는 배리어프리 영화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흥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부각시키고자 했다.

환경 및 미래 산업 직군, 사회복지 계열 직군 등을 이번 캠프에 포함한 것은 도전적인 결정이었다. 어른들에게도 짧은 설명 정도로는 쉽게 전달되지 않는 직업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자명했다. 그럼에도 커리어워크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실험을 선택하기로 했다. 물론 참여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했고, 이 문제가 캠프 불참, 결석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 첫날 출석을 한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직업을 경험하는 귀한 체험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일 교박 커리어워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직업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고, 어떤 직업을 택하든 그 일을 대하는 자세와 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멘토의 모습을 통해 얻는 바가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렇듯 새로운 직업군 발굴과 다양한 직업군을 폭넓게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던 2012년이었지만, 지나치게 많은 직업 현장을 발굴하다보니 그 질을 유지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더 많은 청소년을 만났다는 의미는 있었지만 앞으로 하자센터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적정수의 청소년만을 맡고, 이후의 확장은 다른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에서 커리어워크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2014년에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매뉴얼 작업을 통해 다른 현장 기관으로의 연계 및 확장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참여자들의 경우 에코 리사이클링 자전거 분야 참여자들은 팀워크가 매우 강해서 캠프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자센터를 방문해 자전거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이와 같이 캠프 참여 등 우연한 계기를 통해 하자센터를 알게 된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연계 구상 중에 있다.

more info

영상 <http://vimeo.com/47303404>



청소년 진로포럼 '청소년, 미래의 일을 상상하다'

사업 이름: 청소년 진로포럼

'청소년, 미래의 일을 상상하다'

대상: 17세~19세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진행기간: 2012년 4월 7일

참가방법: 전화, 이메일, 현장 접수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4,000,000원

총 참여인원: 163명

청소년 진로포럼 '청소년, 미래의 일을 상상하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거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일을 발견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청소년 간의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주 대상이 청소년인 만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 형태에서 탈피해 '폐차쿠차'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중간 중간에 청소년밴드의 헌정 음악으로 콘서트적 요소를 가미해 청소년들에게 감성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what we did in 2012

당일 행사 일정

시간		프로그램	내용
14:30~15:00	30'	등 록	
15:00~15:10	10'	오프닝 공연	사회적기업 유자살롱의 청소년밴드 '유자청'이 열어주는 오프닝 공연
15:10~15:20	10'	개회 / 안내	개회 / 포럼 안내
15:20~15:40	20'	이야기 세션1	'보고 느낀 문제 속에서 일을 발견하다' - 내용: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돈도 벌고 세상도 바꾸는 청년의 사례 공유 - 연사: 김가영(생생농업유통 대표), 이경재(대지를 위한 바느질 대표)
15:40~15:45	5'	브릿지 공연1	세션1 사례에 대한 청소년밴드의 헌정음악
15:45~16:05	20'	이야기 세션2	'스펙 없이 경험을 쌓아가며 일을 만나다' - 내용: 스펙 없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일을 만들어 가는 사례 공유 - 연사: 박정규(하자센터 무.나.사 자전거공방 판달), 김은지(연금술사 프로젝트 (주)'소풍가는 고양이' 공동대표)
16:05~16:10	5'	브릿지 공연2	세션2 사례에 대한 청소년밴드의 헌정음악
16:10~16:30	20'	이야기 세션3	'다양한 관심으로 경계를 넘나들며 일하다' - 내용: 영역을 넘나들며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를 일로 풀어내는 융합적 사례 공유 - 연사: 천재박(쌈지농부 기획실장), 최승준(한미유치원 대표, 미디어아티스트)
16:30~16:35	5'	브릿지 공연3	세션2 사례에 대한 청소년밴드의 헌정음악
16:35~16:55	20'	대화의 시간	6인의 연사와 청소년들 간 질의응답으로 풀어나가는 대화의 시간(실시간 문자서비스 활용)
16:55~17:00	5'	폐회	클로징 멘트

연사 소개

구분	초청연사	연사소개
이야기 세션1 '보고 느낀 문제 속에서 일을 발견하다'		
	김가영 (생생농업유통 대표)	고등학교시절 IT 벤처업체를 창업하고, 대학 새내기 때 농산물유통회사를 창업. 합리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고자 생생농업유통 창업
	이경재 (주)대지를 위한 바느질 대표)	국내 결혼문화가 안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결혼의례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사회적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 창업
이야기 세션2 '스펙 없이 경험을 쌓아가며 일을 만나다'		
	박정규 (하자센터 무.나.사 자전거공방 판들)	특성화고 졸업 후 대학에 입학했으나 진로 고민 끝에 자퇴하고 세계 곳곳의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만 3년 간의 자전거 일주를 감행함. 이 여행에서 얻은 가치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강연과 저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하자센터 무.나.사 자전거공방 스태프로 일하고 있음
	김은지 (주)소풍가는 고양이 공동대표)	'스펙 없이 덩뎡하게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일하면서 성장하는 구체적 모델로서 기획된 연금술사 프로젝트에 참여. 실제 일을 하며 실력을 쌓아 창업을 준비하는 청소년팀을 구성하여, 1기는 도시락 가게를, 2기는 컵케이크 가게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야기 세션3 '다양한 관심으로 경계를 넘나들며 일하다'		
	천재박 (주)쌈지농부 기획실장)	'농사가 예술이다'라는 철학으로 소외된 것을 아름답게 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회적기업의 중추로 일함. 친환경 유기농 가게, 디자인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태문화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음
	최승준 (한미유치원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	물리학을 전공한 뒤 어린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며 과학적 시각화를 위해 노력하는 아티스트
오프닝 · 브릿지 공연		
	청소년밴드 '유자청'	사회적기업 유자살롱의 '집밖에서유자적' 프로젝트를 함께 한 청소년들의 밴드. 유자청은 유(유)자(적)청(소년)의 준말로 현재 다양한 공연 및 워크숍 활동을 하고 있음

총 참가 대상 및 인원

주요활동 내용			주요활동 내용						
활동명 / 내용	일시	장소	초	중	고	대	지도자	일반	계
청소년 진로포럼 '청소년, 미래의 일을 상상하다'	4월 7일(토) 오후 3시~5시	999클럽		4	143	13	2	1	163

what we did in 2012

청소년 진로포럼 '청소년, 미래의 일을 상상하다'는 자기 일을 개척해 나가는 현장 사람들과의 만남을 교육현장이 얼마나 절실하고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지 '시간 때우기'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절실한 현장의 욕구를 생생하게 대변하고, 또 발산할 수 있게 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는 하자센터 같은 학교 밖 공적 공간이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저명인사, 유망직업 위주로 기획, 구성되어 청소년들에게 자칫 자기 길을 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준 것도 사실이다. 반면 현장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길을 개척하는 또래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등장한 이번 포럼은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가 동시대 청소년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면서 참여자들의 열정과 도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더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포럼 형식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확실한 주제의 이야기를 정해 범주를 나눠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히 직업인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청소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이해되기 쉬운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포럼은 사회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간 사례, 초기의 문제의식은 없었지만 실제 일에 뛰어들어 진로를 개척한 사례, 다양한 관심사를 일로 풀어낸 사례 등으로 범주화해 세 개의 이야기 세션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연사들이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짚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I

사업 이름: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I

대상: 비진학 청소년을 비롯한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17~21세 또래 청소년),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문화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청년들

진행기간: 2012년 2월 18일 ~ 2013년 1월 30일

참가방법: 온라인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

장소: 하자센터 및 모티브하우스, 조각보, 청년장사꾼, 플레이플래닛 등 청년 사회적경제 그룹 현장, 은평 마을n도서관, 성북구 만만한카페 등 휴카페 현장

총 사업비: 60,000,000원

총 참여인원: 863명

세부 프로그램

미래를 고민하는 청소년 길찾기, 'Plan B, 다양한 삶의 상상'(라이프디자인 워크숍(창의/경제) 2월 18일), 커리어토크 '사람책, 삶과 일을 읽어주다'(2월 25일) 희망토크 콘서트 '청소년, 조금 다른 삶을 꿈꾸다'(3월 3일)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미래를 고민하는 청소년 길찾기, ‘Plan B, 다양한 삶의 상상’

사업 이름: 미래를 고민하는 청소년 길찾기,
‘Plan B, 다양한 삶의 상상’
대상: 비진학 청소년을 비롯한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17~21세 또래 청소년)
진행기간: 라이프디자인 워크숍(창의/경제)
(2월 18일),-커리어토크 ‘사람책, 삶과
일을 읽어주다’(2월 25일) 희망토크
콘서트 ‘청소년, 조금 다른 삶을
꿈꾸다’(3월 3일)
참가방법: 온라인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
참가비 여부: 참가비 없음
장소: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신관 1층
커뮤니티카페,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서울시가 발표한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추진방안’(2011.12.28)의 일환으로 미래 설계가 필요한 일반계고 비진학 청소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 수가 증가(2008년 16.2% → 2011년 27.5%)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학교나 사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진학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자신감을 갖고 자신만의 삶과 보람된 일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 미션으로 잡았다. 또한 기획 과정에서 대상을 확대해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여러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창의적 삶을 그려보는 장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파트의 세부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우선 전문가와 함께하는 창의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재인식하게 만드는 창의적 질문을 던져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해 볼 수 있게 하고, 자신만의 보람된 일을 해 나가는 직업인과 만나는 커리어토크에 참여해 삶과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멘토가 들려주는 조언과 밴드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토크콘서트도 준비했다.

창의워크숍의 경우 청소년들 스스로가 질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 교육팀 내 기획자와 외부 강사가 협력해 ‘창의적 삶’과 ‘돈의 가치’를 주제로 협력 워크숍을 구성했으며 커리어토크를 위해서는 학력이나 사회 통념을 넘어 자신의 삶을 즐겁게 일궈가는 청년들을 위주로 15인의 ‘사람책’을 섭외했다. 이들 ‘사람책’ 리스트는 아카이브 하자 등 신청 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지해 참여 청소년들과 사전 매칭시켜 더욱 심도 깊은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토크콘서트의 경우에는 시니어와 주니어 연사 각각 2인으로 구성, 세대간의 소통을 감안했으며 밴드 역시 청소년밴드를 섭외, 공감대를 넓히고자 했다. 진행형식에 있어서도 즉문즉답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장으로 세팅했다.

세부 프로그램 리스트

프로그램명		부제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라이프 디자인 워크숍	창의 워크숍	창의적 삶의 선택, 질문으로 시작하다	2월 18일(토)	999클럽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질문을 만드는 특강과 워크숍
	경제 워크숍	돈의 가치, 다시 생각한다	2월 18일(토)	하하허허홀	지속가능한 소비와 돈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특강과 워크숍
커리어토크		사람책, 삶과 일을 읽어준다	2월 25일 (토)	커뮤니티카페	자신만의 보람된 일을 하는 직업인과 청소년의 삶과 일에 대한 성찰적 대화
희망토크		청소년, 조금 다른 삶을 꿈꾸다	3월 3일 (토)	하하허허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 멘토가 들려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와 공연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진로, 인생살이에 대한 생각을 전환시켜 보는 라이프디자인 워크숍, 현장 직업인들과 소규모 심화 멘토링을 시도한 커리어워크,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니어, 시니어 연사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즉문즉답을 주고받는 토크콘서트 등 'Plan B, 다양한 삶의 상상'의 세부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없었던 신선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 모집 및 홍보는 하자넷(대중), 보도자료(언론), 공문(학교), 유스내비(청소년, 학부모)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했으며 이 결과 온라인 접수 외에도 현장 접수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여자들에게 실시간 문자를 받아 행사 중 모니터 화면에 게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활용하는 등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행사 중 또는 사후 실시한 대면, 지면 설문 결과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출석률과 만족도를 보였다. 앞으로도 원활한 참여자 모집을 위해 전환기 청소년들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발적 비진학 청소년, 비자발적 비진학 청소년, 비진학을 고민하는 청소년, 수능을 마친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대다수의 청소년 등 층위가 다양한 전환기 청소년 중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하자센터 교육팀에서는 2013년에도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것이다. 향후에는 하자 내외 청년 그룹과 청소년들을 연계해 아카데미 형태의 비진학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more info

2012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초대글 <http://www.haja.net/?p=2538>

2012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리뷰 <http://www.haja.net/?p=4078>

'Plan B, 다양한 삶의 상상' 트레일러 영상 <https://vimeo.com/38084002>

'Plan B, 다양한 삶의 상상' 라이프디자인 워크숍 스케치영상 <https://vimeo.com/37297988>

'Plan B, 다양한 삶의 상상' 커리어토크 스케치영상 <https://vimeo.com/38076666>

'Plan B, 다양한 삶의 상상' 희망토크 강연영상_이안수 <https://vimeo.com/38081048>

'Plan B, 다양한 삶의 상상' 희망토크 강연영상_김준혁 <https://vimeo.com/38081106>

'Plan B, 다양한 삶의 상상' 희망토크 강연영상_김민지 <https://vimeo.com/38081118>

'Plan B, 다양한 삶의 상상' 희망토크 오프닝 인터뷰 영상 <https://vimeo.com/38084143>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II

사업 이름: 젊은세대 현장포럼-삶의 기반을 만드는

청년들, 지역을 살리는 청년들

대상: 청년 이슈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

진행기간: 2012년 6월~2012년 11월

-젊은 수다모임 '청년, 지역과 공동체를
만나다' (7월 19일~8월 25일),

-한일 청년 현장포럼 '삶의 기반을
만드는 청년들, 지역을 살리는 청년들'
(9월 6일~9월 7일)

참가방법: 온라인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

참가비 여부: 참가비 없음

장소: 하자센터 및 청년 그룹 현장

총 사업비: 15,862,260원

총 참여인원: 150명

'젊은세대 현장포럼'은 청년의 창의성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있는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만나 서로의 고민과 시도, 경험을 이야기하고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로 '지역'과 '공동체'에 주목해, 실제로 지역을 복원하고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청년 그룹들의 자발적 활동 사례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와 동시에 기존 공동체에서 부딪히게 될 배타성과 보수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들이 새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이 정책에 참조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젊은세대 현장포럼'의 미션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집약해 보았다. 첫째, 청년이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찾고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적 실천 방안을 탐색해본다. 둘째, 사회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국내외 청년그룹 간의 경험 공유와 연대를 모색한다. 셋째, 청년이 사회문제의 대상이 아닌 사회혁신의 주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확산을 꾀한다.

what we did in 2012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이번 포럼은 하자센터 전체 기획, 외부 발제자 섭외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대신 외부 청년팀들을 섭외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하자센터는 초기 단계 전체 기획, 일정 관리 및 팀별 사업 진행 상황 체크, 예산 관리, 해외 초청과 포럼 현장 진행, 자료집 출간 등을 맡아서 진행하고 개별 세션은 각 청년팀별로 책임지고 기획,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청년 사회안전망 확보, 주거 가치 복원과 새로운 주거 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의 개별 세션을 설정하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청년팀들(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서울소셜스탠다드, 조각보)을 섭외, 각 세션의 기획 및 진행을 맡겼고 이들이 자신들과 유사한 활동을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청년팀들을 섭외해 열개를 갖춰 나갔다.

‘젊은세대 현장포럼’의 준비와 운영에서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청년팀들이 개별 세션을 기획하기 위한 사전 모임 격으로 ‘젊은 수다 모임’을 공개 진행했다는 점이다. 포럼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년팀들은 청년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인터뷰, 전문가와의 테이블 토크 등을 진행했고 이 흐름이 그대로 ‘한일 청년 현장포럼’으로 이어져 ‘청년이 만드는,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총론)→‘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동체, 그 안에서 청년들의 역할’(각론)→종합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과정 및 경과

구분	주요 일정
총괄운영	-초기 기획, 하자 외부 파트너 기획단 섭외 및 포럼 기획 협의: 2012년 6월 -하자 외부 파트너 기획단들과 포럼 기획 협의, 포럼 일정 확정: 2012년 7월 -하자 외부 파트너 기획단들과 포럼 세션 기획 및 초청 관련 협의 : 2012년 8월 -포럼 참가자 모집: 2012년 8월 -포럼 홍보(TBS 출연 등): 2012년 8월 -포럼 진행(연인원 약 150명): 2012년 9월 6일~2012년 9월 7일 -평가회의 진행: 2012년 9월 19일 -사전모임 및 본 포럼 속기록 각 팀별 수정 및 보완: 2012년 10월~2011년 11월 -자료집 본문 편집 및 표지 디자인 1차 작업, 2차 수정 보완 작업: 2012년 11월 6일~11월 28일 -자료집 인쇄: 2012년 11월 29일 -자료집 발간: 2012년 12월 3일



구분	주요 일정
젊은 수다모임	-1차 젊은 수다모임(사전 모임): 청년과 지역 공동체에 대하여(하자센터 기획 및 진행) -2차 젊은 수다모임(사전 모임) : 새로운 청년 거주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하다 (서울소셜스탠다드 기획 및 진행) -3차 젊은 수다모임(사전 모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조각보 기획 및 진행) -4차 젊은 수다모임(사전 모임) : 청년, 사회안전망을 이야기하다-구직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청년연대은행 기획 및 진행) -5차 젊은 수다모임(사전 모임) : 청년, 사회안전망을 이야기하다-캥거루족 포커스 그룹 인터뷰(청년연대은행 기획 및 진행) -6차 젊은 수다모임(사전 모임) : 청년, 사회안전망을 이야기하다-민달팽이족 포커스 그룹 인터뷰(청년연대은행 기획 및 진행)



세부 프로그램 리스트

	프로그램명	부제	횟수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젊은세대현장포럼	젊은 수다 모임	청년, 지역과 공동체를 말하다	6회	7월 19일 ~ 8월 25일	하자허브, 카페 슬로비, 청년연대은행 사무실	청년연대은행, 조각보, 서울소셜스탠다드 등 포럼 주체들이 사전에 각기 주목하고 있는 청년 포커스 그룹을 초대하여 사회안전망 관련 필요와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쟁점 사안 도출(포커스 그룹 인터뷰)
	한일 청년 현장 포럼	삶의 기반을 만드는 청년들, 지역을 살리는 청년들	1회	9월 6일~ 9월 7일	하자센터 하하허허홀	한일 청년그룹들이 모여 첫째 날 '청년이 만드는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둘째 날 '사회안전망으로서 공동체, 그 안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주제로 서로의 사례와 비전을 공유한 후 마무리 종합토론 진행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이번 포럼을 통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청년팀들이 '청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하나의 타이틀 아래 묶이면서 공동 사업 논의까지 나올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었다. 특히 사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영상 제작 등에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하지 않고 대신 포럼의 초기 취지와 각 파트너 기관들의 포럼 참가 이유, 각 개별 세션과 사전 모임의 내용 등 전 준비 및 실행 과정을 기록하는 녹취와 속기록 제작 등에 예산을 배정, 비교적 충실한 자료집이 나올 수 있었다.

내용 면에서는 하자센터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원하면서, 대신 개별 청년팀들이 주인이 되고 이들의 활동성과가 부각되는 포럼을 만든다, 그래서 사회 혹은 기성세대가 이들의 창의적인 대안을 눈여겨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초기의 기획의도였다. 하자가 중심에 서지 않고 청년팀들이 주도할 수 있는 판을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도를 달성했으나 활동성과를 부각시키는 데는 일회성 행사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실행 상에서도 주말이 아닌 평일 오후와 이른 오전 시간대에 포럼을 진행함으로써 일반 직장인, 대학생 등 주요 청년층의 포럼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참가 신청을 하려다가 포럼 일시가 맞지 않아 참가를 포기했다는 피드백을 적지 않게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포럼 진행 일시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포럼 현장에 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초대해 한일 청년팀들의 활동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으나 진행 과정에서 섭외가 성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 그룹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킹하는 무대를 만들어내 이들의 시도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확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more info

'1인 가구 대신 쉐어하우스에 사는 이유?' <아시아경제> 2012.9.1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1109252920781&nvr=Y>

삶의 기반을
만드는

청년들,



지역을
살리는
청년들

한·일 청년 현장 포럼

2012.9.6 - 9.7

...

한일 양국은 심각한 청년 실업률의 상승, 노동과 빈곤의 악화를 공통으로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복지 제도가 더 미비하고 급속한 공동체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쩌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청년'은 이런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일청년현장포럼'은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맞닥뜨린 현실과 대안적인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청년의 창의력으로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지역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들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이 열띤 토론과 교류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2년 9월 6일(목) - 9월 7일(금) / 2일간

장소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하하홀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III

- 사업 이름: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III
 대상: 비진학 청소년을 비롯한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17~21세 또래 청소년)
 진행기간 : 2012년 2월 ~ 2013년 1월
 세부 프로그램:
 -희망토크 ‘괜찮아, 열 아홉살’(2012년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1일),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소년, 청년을 만나다’(2012년 11월 26일~11월 28일),
 -휴카페와 함께하는 성장 워크숍 ‘세상 앞으로 한 걸음 더’(2012년 11월~2013년 1월)
 참가방법: 온라인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
 참가비 여부: 참가비 없음
 장소: 하자센터 및 모티브하우스, 조각보, 청년장사꾼, 플레이플래닛 등 청년 사회적경제 그룹 현장, 은평 마을n도서관, 성북구 만만한카페 등 휴카페 현장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III은 상반기의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 진로, 경제적 자립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자기주도적 삶을 위한 라이프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들이 속한 지역과 마을공동체에서 청년으로의 삶을 꿈꾸고 준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설정했다.

이를 위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비롯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잘 알려진 명사들과 인디밴드의 공연이 어우러진 희망토크를 기획했고, 예비 사회적기업, 소셜 벤처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뜻을 펼치고 있는 청년 멘토들을 만나 진로와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2박 3일 무박 캠프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하자 리사이클디자인공방과 연계, 탈학교 학생들 대상의 목공 워크숍을 열어 장인과 대화하고 몸을 쓰며 몰입하는 시간을 갖도록 설계해 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와 동대문구 휴카페와 협력해 탈학교 비진학 청소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워크숍을 기획했다.

기획 과정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하자센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과 마을 등 현장에서 청소년의 진로를 고민하는 외부 그룹들과 교류하고 협력해 진행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희망토크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해 문화관광부 명예교사로 선정된 명사들을 연계해 주었고, 내인생의 스프링캠프에는 그간 하자센터의 청년 프로젝트에 뜻을 같이해온 사회적경제 분야의 청년 워킹그룹들이 두루 참여했다. 희망의 우리학교, 은평 마을n도서관, 동대문구 만만한카페 등 지역을 기반으로 탈학교 비진학 청소년들을 만나 이들과 직접 생활하고 고민하는 팀들과의 결합은 실제 현장 상황의 어려움과 문제를 딛고 대안적인 성장 워크숍을 기획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세부 프로그램 리스트

프로그램명	부제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희망토크	관찰아, 열 아홉 살	11월 17일 (토) 11월 24일 (토) 12월 1일 (토)	하하하하홀	인디밴드의 공연과 함께 문화계 명사들이 '내 삶의 좌절과 성공'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고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이야기 콘서트의 장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소년, 청년을 만나다	11월 26일 (월)~ 11월 28일 (수)	하자센터 및 개별 현장	고3 및 비진학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일구는 청년들을 만나서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그들의 일과 삶을 경험해 보는 캠프
休카페와 함께하는 성장 워크숍	세상 앞으로 한 걸음 더	2012년 11월 ~ 2013년 1월	마을n도서관 만만한카페	은평구 마을n도서관과 연계, 비진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탐방하고 꿈을 찾아 떠나는 성장캠프를 진행하고, 동대문구 만만한카페와 함께 학교를 벗어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캠프를 기획 및 진행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의 프로그램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 및 강연을 통해 또 다른 삶의 방향도 있음을 청소년들이 인식하게 했다. '희망의 우리학교'와 함께한 목공 워크숍, 은평구 마을n도서관과 동대문구 만만한카페를 연계해 진행한 캠프, 인문학 워크숍 등은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체험과 학습의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청년 멘토들과의 2박 3일 캠프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는 청소년기를 갓 지난 선배들과 깊이 있게 고민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진학과 비진학의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실제 비진학 탈학교의 길을 선택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각기 다른 입장과 처지에서 진학과 비진학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격려로 이루어지는 힐링(healing, 치유)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며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는 이 메시지 중 일부라도 담아 실현되었고 자평한다.

비진학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청소년들에게 진로설계와 관련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양극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곧, 양적으로는 과다하나 질적으로는 결핍된 상태인 것이다. 기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청소년들 스스로 몰입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입체적인 구성의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실무 영역에서는 일선 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 프로젝트 기획 및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한 10월,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수능을 마친 고3들이 참가할 프로그램을 정해둔 상태였기에 참가자 모집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more info

희망토크 1강 음악평론가 임진모 트레일러 영상 <https://vimeo.com/53657531>

희망토크 2강. 아트디렉터 김원 트레일러 영상 <https://vimeo.com/54007140>

희망토크 3강. 무용가 안은미 트레일러 영상 <https://vimeo.com/54594905>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 이곳을 주목하라’ 〈아시아투데이〉 영상 2012.12.5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36738>

이로운닷넷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만드는 대안경제미디어) / 17일부터 ‘열 아홉의 겨울을 응원한다!’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http://eroun.net/35933>

바이러스 (청소년대표언론) / 청소년 위한 좌절금지 프로젝트

<http://www.1318virus.co.kr/A00000561348.html>

헤럴드경제 / 수험생이 참여하면 좋은 문화예술 명예교사 프로그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09000325&md=20121112003140_AK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63807&ctg=1200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623624&cp=nv>



1.창의

창의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토요일학교 C-플랫폼(C-Plat)

사업 이름: 청소년 토요일학교 C-플랫폼(C-Plat)

대상: 14~20세 청소년

진행기간: 2012년 3월 17일~10월 27일

참가방법: 하자넷,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참가비 여부: 소셜 클래스(정규 과정) 10만 원,

오픈 클래스(단기 과정) 1만 원

장소: 하자센터 내외부

총 사업비: 세입 5,190,000 원 세출 13,443,320

총 참여인원: 818명

청소년 토요일학교 C-플랫폼은 15~20세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설정,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응하는 주말 기획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단순 체험이나 개인 창작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사회적인 의미와 접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끝낸 뒤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기획해 진행하는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 멘토링, 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잡아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what we did in 2012

교육팀 기획자(장혜령, 정다운)를 중심으로 2011년도 11월부터 기획단을 운영했으며 연말까지 기획의 전체 방향을 조율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2012년 2월 실질적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두 기획자가 프로그램 컨셉트 도출에서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 내용 협의까지 실무 전 과정을 진행했다. 중점은 직능 교육이 아닌, 10대들의 창의성과 자발적 팀워크를 발현시킬 워크숍을 만드는 것이었다. 참가자에 따라 유연하게 커리큘럼을 적용할 수 있는 강사를 우선 섭외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 결과, 박준석(문학평론가), 네시이십분(문화작업자 집단), 미오(하자센터 기획자), 조슈아나무(미술교육집단)이 참여해 메인 프로그램 격인 '소셜 클래스'의 6주차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이를 진행했다. 또한 매 기수 별로 진행 전 주에는 쇼케이스 성격의 '오픈 클래스'를 대규모로 열어 일회성이거나 하자센터의 자발성 영역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오픈 클래스'는 3월 10일 첫 회를 열면서 출발, 1년 동안 총 3회가 진행되었으며 '소셜 클래스'는 3월 17일 1기가 출범한 뒤 5월 2기, 9월 3기가 진행되었다.



사업명	기간	내용	참여 인원
계획 수립	2011년 11월~2012년 2월	프로그램 진행팀과 프로그램 사전 리서치	
워크숍 세부 조정회의	2012년 2월~2012년 3월	문화기획자, 예술가,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팀과 워크숍 세팅 및 세부 기획안 조정	10여 개 팀
사업설명회	2012년 3월	학교, 청소년기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40명
청년 자원활동가 '파니' 교육	2012년 3월	하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20대 자원활동가 모집 및 교육 워크숍 실시	45명(15명*3회)
오픈 클래스1	2012년 3월	대안교육단체 '민들레'와 함께한 특강 등과 연계, 오픈 클래스 개최	160명
소셜 클래스1	2012년 3월~2012년 4월	1기, 4개 프로그램 진행	30명
오픈 클래스2	2012년 4월	오픈클래스 2회 진행	50명
자문회의	2012년 6월	조중현(서울시교육청), 김영삼(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김경옥(공간 민들레 대표), 박복선(성미산학교 교장),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등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15명

사업명	기간	내용	참여 인원
오픈 클래스3	2012년 7월	분쟁지역 전문 박영미 PD 초청 특강 연계 진행	70명
소셜 클래스 3	2012년 8월~2012년 9월	소셜 클래스 3기 2개 프로그램 개설	30명
후속모임	2012년 10월~2012년 12월	2, 3기 참가자 대상으로 한 후속 모임	30명(10명*3회)

세부 프로그램별 진행

프로그램	주요 내용	참여 인원
오픈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이 공부다'(공간 민들레와 연계, <이것이 공부다> 저자 이한 초청 북 콘서트) ○ '영체인지메이커' 워크숍(창의적 발상) ○ '찢어진 책을 주운 페넬로페처럼' 워크숍(글쓰기) ○ '여기 벗겨진 페르소나' 워크숍(미술 치유) ○ '도시읽기' 워크숍(그래픽 디자인) ○ '이것은 그냥 사진이 아니다' 워크숍(이미지) ○ '꽃들에게 희망을' 워크숍(플로리스팅) ○ '내 안의 색, 세상의 색' 워크숍(천연염색) ○ '딥 티크, 완전히 다르고 어찌면 같은' 워크숍(사진) ○ '뮤직 스크램블' 워크숍(음악 창작) ○ '노래배낭여행- 버마편' 워크숍(다문화 음악 창작) ○ 분쟁지역 전문 PD 최영미와 함께 하는 북 콘서트 	<p style="text-align: center;">총 818명 (청소년 595명, 대학생 183명, 성인 40명)</p>
소셜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체인지메이커' 워크숍(창의적 발상) ○ '찢어진 책을 주운 페넬로페처럼' 워크숍(글쓰기) ○ '여기 벗겨진 페르소나' 워크숍(미술 치유) ○ '도시읽기' 워크숍(그래픽 디자인)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토요일학교 C-플랫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하자센터에 입문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이후 하자직업장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장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또 하자센터 연계 사회적기업인 에듀케스트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생겨났다.

또한 ‘공동의 창의’라는 새로운 비전을 청소년과 접목하고자 시도한 것이 비록 과정상으로는 쉽지 않았으나 일정한 성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워크숍 전반에 걸쳐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더 들여다보자면, 향후 하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창의성’ ‘자율성’ ‘팀 활동’ 등의 요소를 가진 창작활동을 기대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토요일학교 심화 프로그램(동아리 포함), 타 워크숍 수강 의사를 가진 참여자도 80%로 나타났다. 기획자로서는, 최초로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협업을 통해 워크숍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 가장 의미있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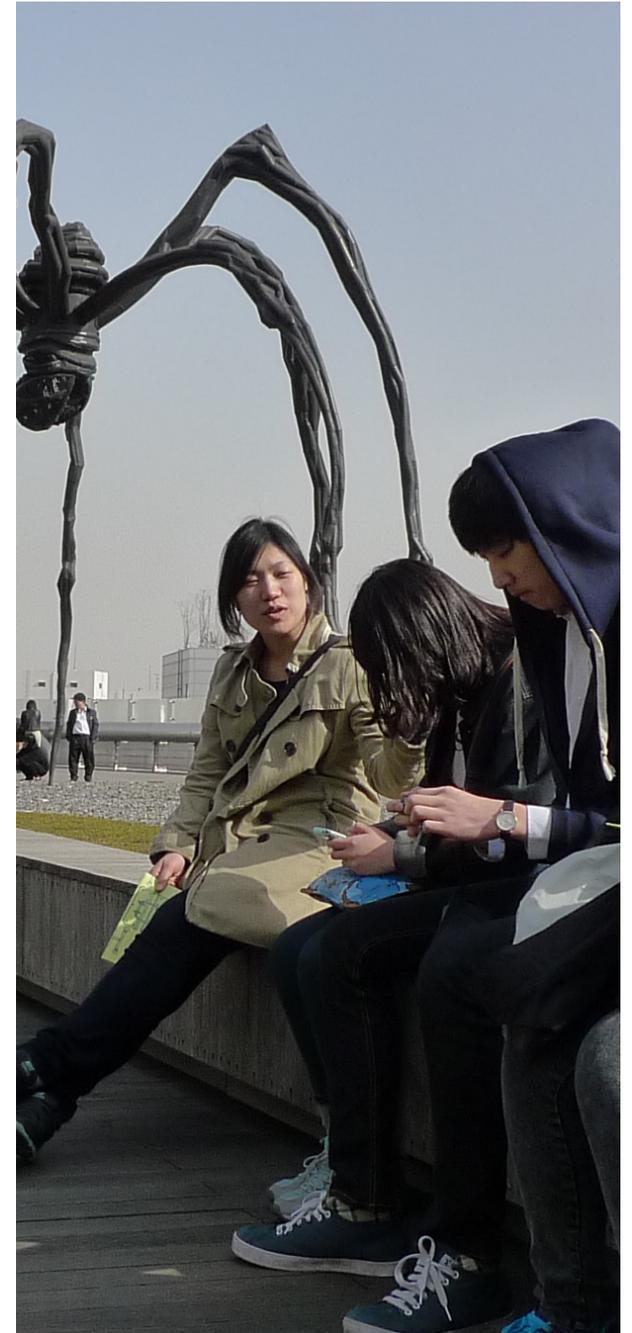
또 참여자 설문 결과 6주의 프로그램 진행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90%를 차지했다. 이는 프로그램 수강(6주)에서 지속(심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코스워크가 필요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사업 초기인 2012년 초에는 자발적인 학생들을 모아 사회성을 키워가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수강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모 또는 교사 추천으로 유입되었고 이는 곧바로 프로젝트형 워크숍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워크숍 강사 및 팀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협업과 성장이 일어났다. 단순히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삶의 철학 또는 비전이 있는 강사를 찾고자 했으며 이 때문에 강사들 중에서는 실제 워크숍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참여 강사들은 대상에 밀착해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노력했고, 이들의 지난 1년간의 노력들은 프로그램의 의도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2013년에는 자발적인 청소년을 모으는 방식보다는 일반 청소년들이 자발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프로젝트와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를 강조해 대상을 끌어들이는 방향보다는 대상에 밀착해 기존 콘텐츠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설문조사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로 ‘진로’를 꼽았다(75%). 이런 욕구의 확인은 향후 토요일학교에 진로 중심 설계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more info

스케치 동영상 <https://vimeo.com/41745458>



청소년 창의캠프 'C-큐브(Creativity Cube)'

사업 이름: 청소년 창의캠프 'C-큐브(Creativity Cube)'

대상: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진행기간: 2012.7.31~2012.8.3

참가방법: 주최측인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에 공문 발송. 이후,
학교별로 교사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5~6명의 추천 학생 명단과 신청서를
서울시로 송부. 최종 수합된 명단과
신청서를 주관 주체인 하자센터가
넘겨받아 이 가운데서 참여자 선발

참가비 여부: 무료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33,000,000원

총 참여인원: 725명

청소년들이 자원의 한계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을 창의성으로 설정하고 기획한 캠프이다. 또한 특성화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진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직업교육뿐 아니라 사고를 확장하는 창의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직업체험캠프인 커리어워크와 병행했다.

창의성, 하면 물론 자유로운 발상과 흥미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회성이란 키워드를 중시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넘어서 타인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영상, 음악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문화예술 분야 워크숍을 통해 시각을 확대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상의 불만, 문제 해결 등을 키워드로 진행했던 지난해에 이어 '내가 당면한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과 '그 고민을 있게 한 사회적 요인'을 생각하고 논의해보는 '소셜디자인 워크숍' 등을 팀별로 4일간 체험하게 했다.

what we did in 2012

세부 프로그램별 진행



구분	이름	내용
공통 워크숍	소셜 디자인 워크숍	개인적인 문제와 그 해결에 이르는 징검다리를 놓는 연습을 하고, 이 연습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사회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의 해결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보는 워크숍. 자신의 문제와 미래, 해결과정을 시각화한 후 팀의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한편, 문제를 있게 한 사회적 요인을 찾아보고, 그 요인에 대해 시각화해본다.
선택(창의) 워크숍	포럼 연극	책공연과 접목한 스토리텔링 워크숍. 참여자가 직접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보는 과정을 통해 상황의 변화와 문제해결을 창의적으로 시도한다. 상황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극중 갈등의 최고조 지점에서 멈추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참가자들은 주인공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토론을 하게 된다.
	공간을 옮겨라	치수단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 자신의 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발상을 전환하여 내 몸 하나하나의 신체 길이를 인식하고 수학적으로 풀어본다. 이를 통해 '일상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인식하는 경험을 한다. 하자센터 내 특정 공간과 사물들을 몸으로 측정, 기록하여 측정한 공간을 사실적으로 옮긴 후 참가자들이 직접 스토리텔링하고 상황극으로 표현해보는 워크숍이다.

선택(창의) 워크숍	뮤직 스크램블	‘뮤직 스크램블’은 쉽고 재미있게 음악 제작의 모든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이다.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 사회가 가진 편견, 가족에 얽힌 에피소드부터 차마 말하지 못하고 담아두었던 이야기들까지 노래를 통해 함께 표현하게 된다.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고 공동의 창작물을 통해 창의적 콘텐츠 제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점으로 만드는 음악	음악도 협업을 통해 창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다. 아이폰 앱인 테노리온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멜로디와 가사 등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표현한다.
	소리를 조각하자	소리의 원리와 회로의 구조를 배우고 직접 생활 속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과 연결되면 소리가 발생하고 저항 정도에 따라 음색이 변화하는 장치를 만든다. 강사와 함께 여러 종류의 전도체 물질을 이용하여 그려보고 연결해보면서 자기만의 소리를 연출해본다. 무형의 물질인 소리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는 워크숍이다.
	내 맘대로 소리내기	영화의 모든 소리를 제거하여 새로운 소리를 입혀보는 소리디자인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소리가 없는 영상을 보고 등장인물과 상황, 환경 등을 상상하여 상황을 재해석한다. 생각해낸 소리들을 표현해보고 녹음을 하는 과정을 체험한다.
	공감각 알레아토릭	우연성이란 요소를 실험하고, 실패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한가를 깨닫게 한다. 팀별로 강사들과 서로 다른 워크숍을 경험한다. 보디 퍼커션, 네임 게임 등 몸을 움직이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워크숍 툴이 활용된다. 이후, 이 경험을 기록하는 작업을 실행한다. 다시 각 팀이 서로 다른 워크숍을 경험한 후 이 워크숍을 기록해본다. 중요한 것은 ‘리믹스’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워크숍을 바탕으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아이템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시도를 한다.
	이것은 그냥 사진이 아니다	익숙한 풍경과 사물들을 다른 종류의 시각 정보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본래의 의미를 뒤집어 보고, 자기만의 개념으로 새롭게 확장하는 기회를 갖는다.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익숙한 이미지(사물과 풍경) 속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찾아내어 사진으로 촬영한다. 참여자들이 촬영한 자음과 모음의 이미지를 인쇄한 다음에, 문장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게끔 부착해서 사진을 찍는다. 이미지가 단어와 문장으로 바뀌는 경험을 통해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드는 체험을 해본다.

	너의 기억을 보여줘	개인의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총 60여 명의 기억을 모으는 것이 단선적 목표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창의캠프에 대한 기억을 체험 정도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간직하게 된다. 처음으로 겪는 경험을 기억하는 방식을 동일한 프레임에 가두는 형식으로 제한해 유형화된 이미지를 채집하고(기록), 기억을 공유하고(서사), 그것을 모아 보는(전시와 리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 워크숍	쇼하자	4일에 걸쳐 고민해왔던 한 문제에 관한 창의적인 해결 방식을 팀워크를 다지며 만들어보고, 이를 보여주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 소셜디자인 워크숍에서 결정된 팀의 1가지 질문과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영상, 연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한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013년에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참가자 모집과 관련해 보완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를 통해 최초 모집된 인원이 150명에 미달되어 이후 하자센터에서 자체 모집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서울시로 보낸 서류가 누락되었던 참가자들이 발견되었다. 결국 자체 모집된 추가 인원, 누락된 참가자가 더해져 예상 인원보다 초과된 170명이 모집되었다. 캠프 당일에 서류 누락 학생들이 나타나 큰 혼선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감안할 때 2013년은 참가자 모집 통로를 단일화해야 한다. 서류 누락 문제 등으로 추가 모집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원이 되는 경우, 전체적인 캠프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출발점에서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2일차, 3일차로 프로그램이 거듭되면서 드러나는 '자발적 유효 출석률'이 90%에 달하는 등 높은 출석률을 보여주었다. 이는 창의캠프의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대 자원 활동가들(파니)의 결합은 창의캠프의 팀별 단합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총 30명의 자원활동가 가운데 이전 창의캠프 참여자가 절반에 달하는 등 수년에 걸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 때 창의캠프에 참여하고 청년 자원활동가가 되어 돌아온 파니들은 10대 시절 자신이 겪었던 좋은 경험을 비슷한 환경의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2012년 청소년 창의캠프 'C-큐브'는 '창의'와 '창의성'을 개념적으로 강조하기보다,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몸소 체득하는 데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 구성이었다. 참가자들은 팀별로 워크숍을 체험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틀을 깨는 시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상의 문제 인식과 팀원과의 소통,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공공의 창의성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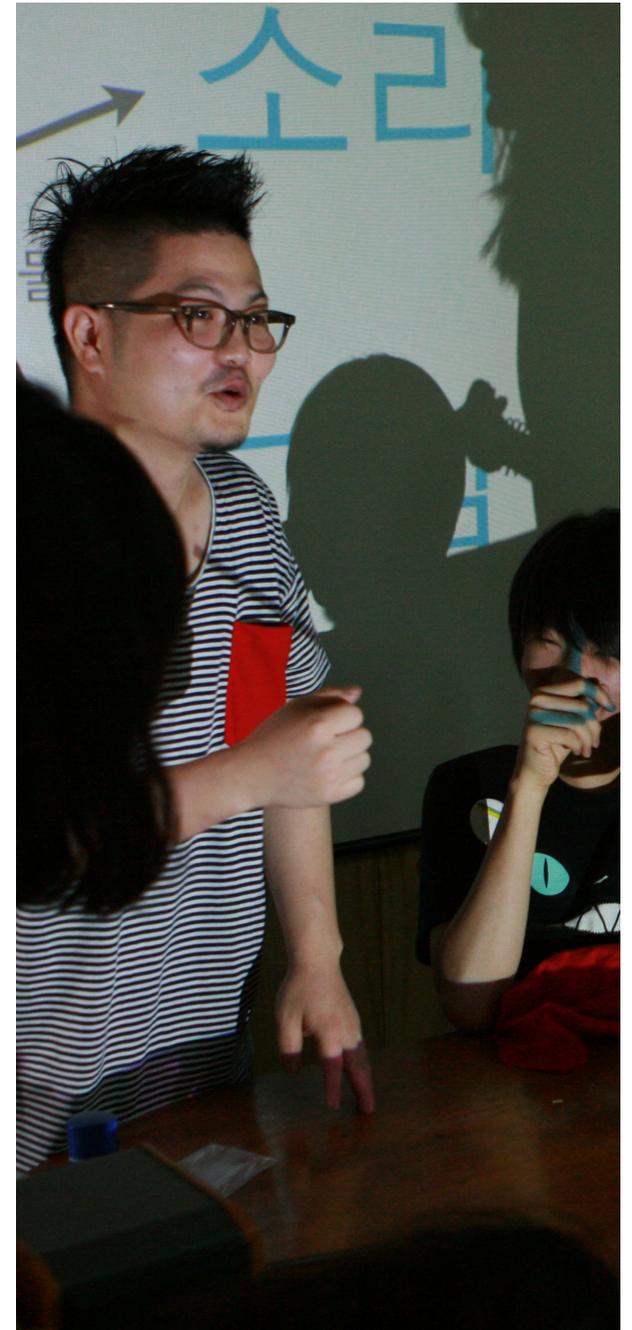
수 있도록 기획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나 타인을 인식해 보는 학습이 전무한 한국 교육풍토에서 4일이라는 단기간에 '소셜디자인'의 개념을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비교적 많은 수의 인원을 커버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캠프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까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공공의 창의, 집단의 창의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타 캠프와 비견될만한 창의캠프의 특징일 것이다. 그러나 '소셜디자인'이란 의미를 가진 프로그램을 체화하기에는 참가자들의 동기가 약하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참가자들 가운데 스스로 창의캠프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토의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다수의 청소년들을 위해 흥미와 재미 요소가 많아 집중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팅할 것인가, '공공의 창의'라는 주제를 계속 배치할 것인가는 창의캠프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

창의캠프는 참가자 및 자원활동가 간의 유대가 깊은 것이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 모임들은 자발적으로 캠프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 참가자들이 하자센터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역시 향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more info

영상 <http://vimeo.com/47303666>



어린이 창의교육 지원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

사업 이름: 어린이 창의교육 지원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또래 어린이
진행기간: 2012년 1월 ~
2012년 12월(추후 2014년까지 진행)
참가방법: 아동복지기관 연계 진행 /
자유 참여(창의페스타)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각 시설의 활동 공간 및 하자센터
총 사업비: 280,000,000원
총 참여인원: 3,000여 명(누적집계)

한국암웨이와 하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창의인재육성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어린이에게 다양한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잠재적 역량과 자존감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며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워 더불어 사는 창조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이를 위해 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교육을 연중 지원했다. 이와 함께 창의페스타와 같은 축제를 열어 어린이들이 직접 성과를 선보이고 또 다양한 창의 워크숍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일회적인 수혜성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탈피해 대상 어린이와 소속 시설은 물론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는 교육 전문가 및 예술가 그룹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의 창조적 메소드가 적용된 어린이 창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특히 수요자의 눈높이를 배려한 맞춤형으로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수혜자(시설, 어린이)가 개별적으로 성장할 때 다양한 창의프로그램이 확산,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민관산학의 협력 네트워크로 구축된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비전이다.

what we did in 2012

•창의교육 프로그램 지원(연중)

총 10여 개 아동복지기관에 11개의 창의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됐다. 음악, 미술, 사진, 영상,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기반 창의교육이 진행됐다.

•어린이창의디자인캠프(7월 25일~7월 27일)

'나와, 내 상상속의 동물'이라는 주제로 열린 디자인캠프는 40여 명의 어린이와 3일 동안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상상 속 동물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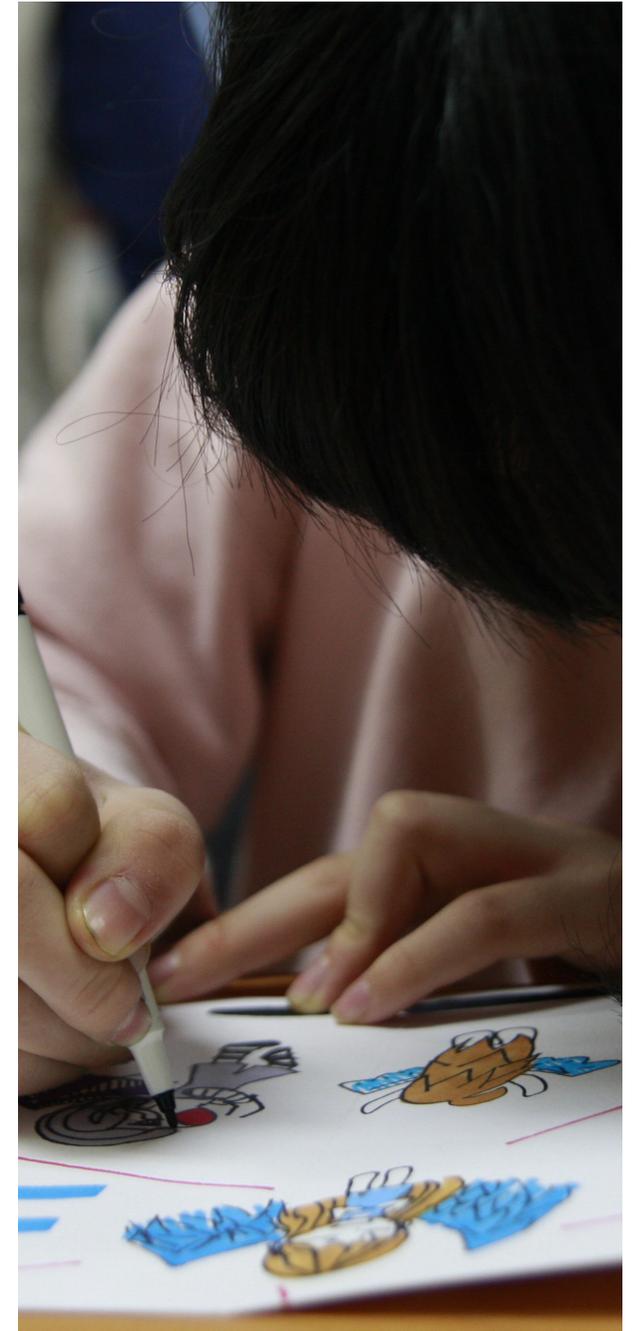
•어린이창의페스타(특별 워크숍 9월 15일~9월 21일, 본행사 9월 21일)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 배움과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워크숍을 발굴해 한자리에 소개하는 축제로 관심있는 어린이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열어 놓은 행사였다.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창의교육 전문가인 리사 웨이와 제프 글래스먼을 초청하여 특별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한 9월 21일에는 영등포구청 주최, 하자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월례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과 연계해 더욱 풍성한 본 행사를 치루었다. 특별 워크숍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은 그 성과를 직접 선보이는 쇼케이스를 가졌고 부모와 함께 달시장에 들른 일반 어린이들 역시 목공, 천연비누 만들기, 손가락 책갈피 제작 등 손쉽지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10여 가지의 일상예술 창작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인 이야기꾼의 책공연과 노리단, 창작그룹인 뽀난 돌고래, 정크아티스트 소수영 등 연계 문화예술 그룹과의 연계로 4개 창의적 활동 워크숍도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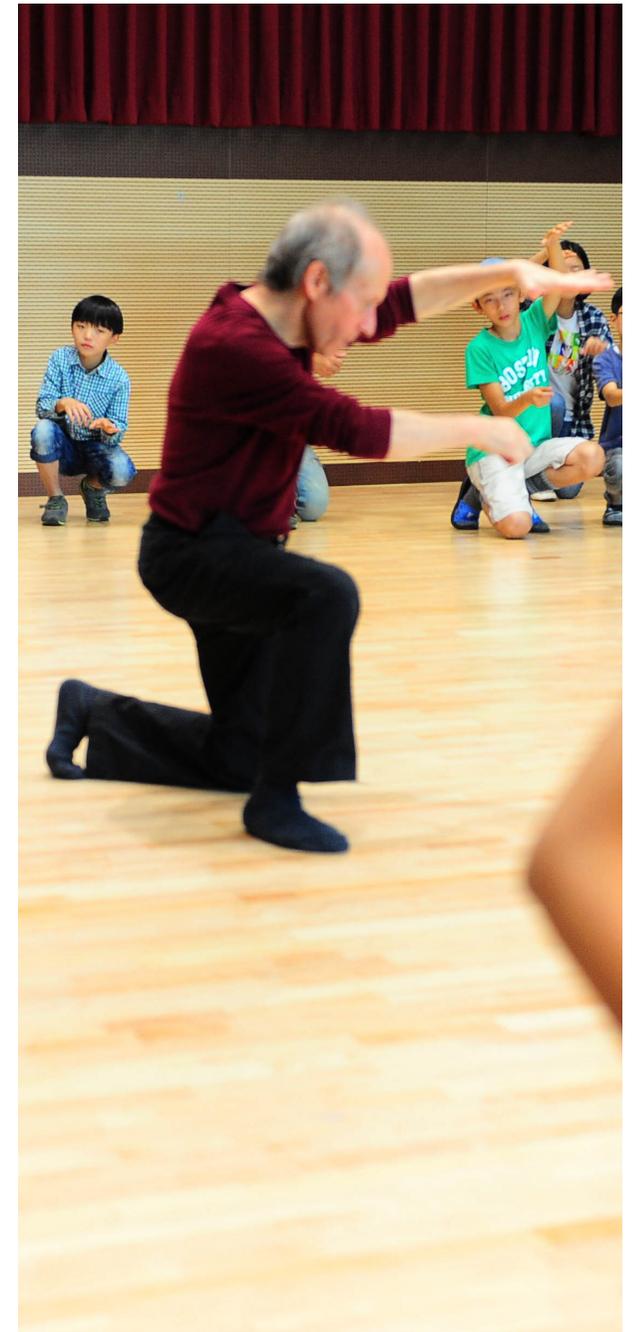
세부 프로그램 리스트

창의교육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명		공급단체(작가)	향유기관	내용
상반기	공기 반 소리 반 뮤직캠프	문구 (몽구스밴드 리더)	동서울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이 직접 작곡, 작사, 레코딩하여 자신들의 곡을 창작한다.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고 예술적 감수성을 발견하는 창의 프로그램
			SOS지역아동복지센터	
	나와 우리 동네 탐사	디자인교육 연구그룹 생.감.자	혜명지역아동복지센터	창의성과 관찰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리서치 방법을 활용하여 동네를 탐사하고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창의 프로그램



상반기	청개구리아 놀자! 움직이자! 생각하자!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강동지역아동복지센터	신체 움직임을 통해 음악, 미술, 동화, 연극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표현력을 키우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창의 프로그램
	별빛 따라 꿈꾸는 야간비행, 어린왕자를 찾아서!	조슈아나무	영등포지역아동복지센터	미술을 바탕으로 한 놀이를 하며 개인의 정서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힘을 기르는 창의 프로그램
	거울에도 기억이 있다면	기억발전소	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	사진을 찍으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감정을 표현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술적 유희를 경험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창의 프로그램
			성동지역아동복지센터	
	두들링으로 창의적인 발상법 키우기	정크하우스 (소수영)	청운지역아동복지센터	무의식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찾고 드로잉하는 훈련을 통해 관점의 전환을 유도하여 고정관념 없는 창조적인 사고력을 갖도록 하는 창의 프로그램
비전교실지역아동센터				
오감수업	네시:이십분	라온지역아동센터	고정된 상식과 관습화된 시각적 감각에서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감각을 활용한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관찰을 통해 사물과 감정들을 존중하고,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창의 프로그램	
키뮤와 문구	문구	동서울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이 직접 작곡, 작사하고 공연하며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고 예술적 감수성을 발견하는 창의 프로그램	



하반기	생감자의 감정놀이학교	생감자	강동지역아동복지센터	창의성과 관찰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표현하며 유연한 사고,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창의 프로그램
	세계의 저편으로, 나와 세상과 꿈과	조슈아나무	영등포지역아동복지센터	미술을 바탕으로 한 놀이를 하며 개인의 정서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힘을 기르는 창의 프로그램
	두들링으로 창의적인 발상법 키우기	정크하우스 (소수영)	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	무의식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찾고 드로잉하는 훈련을 통해 관점의 전환을 유도하여 고정관념 없는 창조적인 사고력을 갖도록 하는 창의 프로그램
	사고뭉치 프레임	네시:이십분	청운지역아동복지센터	영상을 매개로 사물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며 탐구하며,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시각의 전환을 갖게 하는 창의 프로그램
	우리동네 프로젝트	하자작업장학교/페스티벌	SOS지역아동복지센터	영상, 디자인, 공연음악 활동을 하며 마을이 어린이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 중심으로 이야깃거리(일거리)를 만드는 창의 프로그램



어린이창의페스타

구분	워크숍 명
창의교육 전문가	마임워크숍 - 움직임을 찾아서
초청 특별 워크숍	창작워크숍 - 도시야 놀자

창의적 활동 워크숍	이야기 공방
	빛으로 그리는 그림
	두들림 하자
	몸벌레 워크숍
일상예술 창작워크숍	어린이 목공장비 체험
	볼펜 악세사리 만들기
	손가락 캐스팅 책갈피 만들기
	캐릭터가 줄었어요 (캐릭터 핸드폰 줄 만들기)
	카툰패밀리(입체 캐릭터 만들기)
	딱지목걸이 & 비닐 컵받침 만들기
	야광탱탱볼 만들기
	주물주물 천연비누 만들기
	내가 만드는 LED 스탠드
	미니북 & 팔찌 만들기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생각하는 청개구리’ 프로젝트의 다양한 문화예술 창의교육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협업능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지역 기반을 활용하여 창의교육과 연계하여 확산할 수 있는 자원을 발견한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 기획자로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다. 못한다, 잘한다,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서 어린이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어린이와 창조적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과 함께, 공급단체와 향유기관이 서로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의 방향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위주의 접근을 넘어서 창의교육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적 기반과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어린이들에게 더욱 유익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생각하는 청개구리’ 프로젝트는 단위별로 진행된 창의교육 활동의 폭을 넓혀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해 나가는 공동의 활동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 교육 콘텐츠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코자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어린이 창의교육 담론화를 위한 교육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청소년활동지원사업

사업 이름: 청소년활동지원사업

대상: 14~24세 청(소)년

진행기간: 2012년 5월 ~ 2012년 12월

참가방법: 공개 모집 후 심사 및 선정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센터 및 각 그룹의 활동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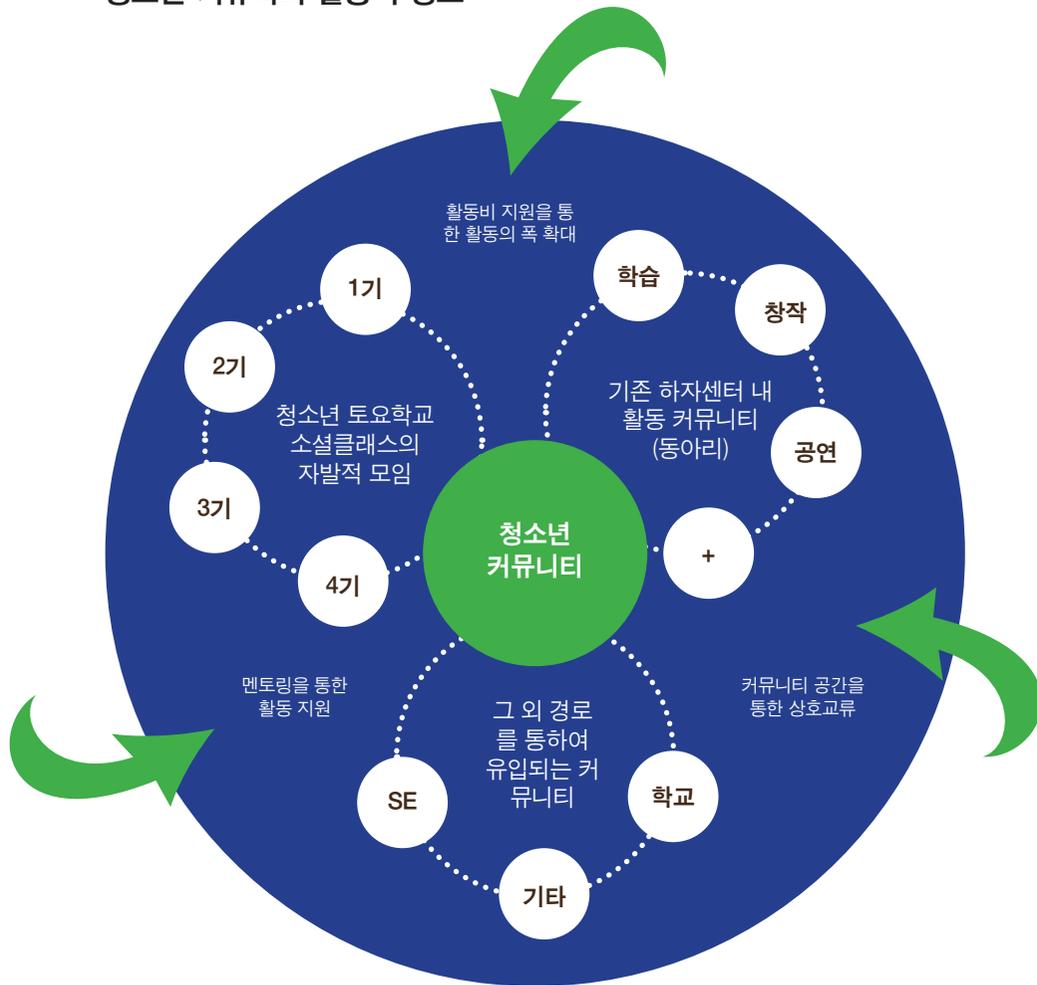
총 사업비: 1,500,000원

총 참여인원: 24명

하자센터에서는 스스로,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과 사회를 연결해 공공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은 2011년 연말 진행된 고 스티브 잡스의 전기 <스티브 잡스> 광고 캠페인이 계기가 되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박칼린 예술감독이 하자센터에 수익금을 기부할 뜻을 밝혔고, 주최사인 민음사도 기부금을 보냈다. 이에 하자센터까지 뜻을 모아 매칭펀드로 조성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기금 조성의 배경과 과정, 의의를 반영해 2012년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은 세상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그 안에서 모순을 읽어내 스스로 대안을 모색해 보는 활동계획을 가진 청소년 그룹을 위주로 선정하고자 했다.

선정 이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커뮤니티를 구성해 활동하고자 하는 청소년 그룹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하자센터에서 청소년 활동의 장을 확대하고자 했다. 주관팀인 교육기획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토요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했다.

청소년 커뮤니티 활동 구상도



what we did in 2012

팀명	사업명	기간	지원금
앞새	환경 캠페인 - 에코캡운동	4월 20일 ~ 6월 20일	50만원
평화이음이	청소년, 평화를 품고 상상하다	5월 27일 ~ 11월 31일	50만원



TEDxYouth@대전	TEDxYouth@대전 (TEDxYouthDay 2012)	8월~12월	50만원
영체인지메이커	1318	프로젝트 미완수/ 지원금 반환	30만원

팀별 프로그램 내용

팀명	인원	프로그램 내용
앞새	2명	페트병의 뚜껑과 본체만 분리해서 버리면 재활용 시 이용되는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서 착안, '에코캡 캠페인'을 펼쳤으며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UCC, 광고(인쇄/배너), 일러스트, 슬로건, 로고디자인 부문으로 나뉜 '앞새와 함께하는 환경공모전'을 기획, 진행했다. 이 결과 총 125팀이 지원해 각 부분에서 각각 대상, 우수상, 참가상을 수여했다.
평화이음	15명	'평화이음'은 청소년들이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싼 비평화적인 모습을 찾아내 실천방법을 찾아가는 동아리이다. 이번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서 평화해설사를 양성하는 어린이 캠프와 전쟁기념관을 평화박물관으로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40여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평화해설사'가 되어, 평화의 눈길로 다시 바라보는 전쟁기념관 해설을 진행하였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비평화적인 게임의 요소를 평화적 방식으로 바꾸었다.
TEDxYouth@대전	7명	TEDx-Youth@대전'팀은 대전의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 TED 영상을 시청하고,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한/영 번역작업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 국내에 확산시키는 활동을 했다. 또한 공식 TED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TEDx의 활동이 전세계 연결망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 작업을 했으며 서울, 성남 TEDxYouth팀들과도 교류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자치활동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아 TED의 형태로 제작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영체인지메이커	2명	프로젝트 미완수 및 지원금 반환 : 왕따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문제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도움을 줌으로써 따돌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으나 프로젝트를 완결하지 못했으며 이에 지원금을 반환했다.
---------	----	---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은 자신들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활동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정팀들은 지원금은 물론 공간, 네트워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지를 현실화시키고, 사회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갔다. 각 지원팀들의 구성원들이 만나면서 다시 팀을 이뤄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해 제안하는 등 커뮤니티로의 진화 가능성도 엿보였다. 탈락팀의 경우에도 하자에 찾아와 논의를 계속하고, 교육팀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초대하는 등 연계를 이어갔다.

기획자로서는 창의적인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육성 가능성을 살필 수 있었고, 활발한 활동 의지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할 수도 있었다. 또한 선정팀들이 자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탈락팀들을 포함해 이번 사업에 참여한 팀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성과이다. 영체인지메이커팀의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자가 조력자(facilitator)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다.

초기 계획은 총 예산 500만원으로 10여 팀에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지원 신청을 한 팀은 6팀이었고 이중 4팀을 최종 선정했다. '입새' '평화이음' 'TEDxYouth@대전' 등 3팀이 실제 진행해 성과를 냈고 영체인지메이커 팀은 프로젝트 진행 도중 중단하고 지원금을 반환했다.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은 총 기금 5백만원 중 350만원이 남아있어 2013년에도 기금 소진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2012년의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우선은 지원하고 양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상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와 함께 2012년 지원신청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주 홍보수단으로 사용했던 SNS 이외에 다른 통로를 모색하는 등 더 적극적인 홍보도 요구된다.

more info

사이트 <http://cafe.naver.com/alchemythaja>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사업 이름: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대상: 14~24세 청(소)년

진행기간: 2012년 1월~12월

참가방법: 동아리별 개별 모집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센터 및 각 그룹의 활동 공간

총 참여인원: 60명(행사 참여인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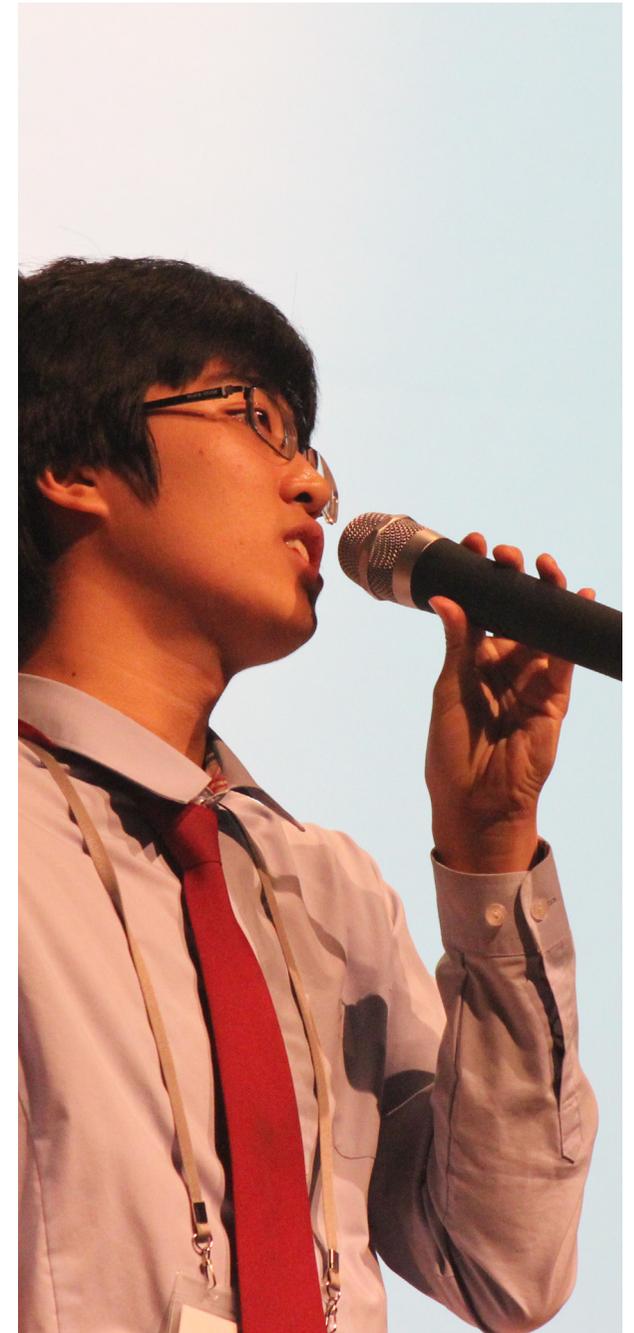
하자센터에서는 지난 수년간 다른 이들과 일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공공의 창의성 발현을 경험해보는 'C-plat(Creativity Platform)', 단순한 생계 유지 차원을 넘어 자기 계발과 세계에 대한 학습,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커리어하자(Career haja)' 두 프로그램 라인업 아래 많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하자센터를 지속적으로 찾아 커뮤니티를 이루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센터가 직접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이런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에서는 의도적인 기획은 가능한 배제하고 2007년~2011년 중 하자센터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 중 자체 기획이 있는 동아리의 의사를 중심으로 공간 대관이나 자문을 지원했다. 또한 자체 사업 진행 시 활동 및 홍보를 연계하거나 교육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활동에 자원활동가로 초대하거나 하자센터 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멤버로 참여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이들이 하자센터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what we did in 2012

그룹별 활동 내용

동아리 명	내용
내 인생의 OST(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공동창작 프로젝트로 시작. 다양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매개로 모여 작사 작곡 및 음원과 뮤직비디오 제작 등 창작활동과 공연 진행 - 진로 등 청소년기에 당면하는 일상의 고민을 공감할 수 있는 작업으로 풀어내며 공유하는 활동 진행 - 연습 및 녹음 6회
청소년 소셜 커뮤니티 '혹,_이심?'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C-plat' 산하 프로그램으로 시작. 과다소비와 경쟁이 아닌, 서로를 도우며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창의적 삶에 대해 고민하며,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아가는 활동 진행. 스스로,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사회 안에서 공공의 창의를 발현하는 과정 고민 - 공공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삶을 개척하는 20~40대 선배 및 멘토를 만나 자기 진로와 연결지어 보는 경험 해봄 - 학교의 경계를 넘어, 생각을 나누고 조율해가며 서로 힘이 될 '친구-동료'를 얻고, 함께 일하고 실패도 해보며 신뢰하는 공동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경험 해 봄 - 강연 기획•진행 : 하승수 녹색당 대표 등 초대 - 워크숍: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은 문제와 연간 목표 설정 후 해결 시도 프로젝트 실행 - 자체 정기모임: 커뮤니티 허심탄회, 다큐토론 모임, 캠페인 - 발언 및 액션: 스토리콘서트, 연말 路望 파티 - 기획단: 공동 기획과 진행을 통해 협업(강연회 3회, 책•다큐모임 12회, 행사 2회, 정기모임 12회)
디제잉(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일취월장 프로젝트'로 시작. DJ 투페이스를 메인 강사로 하여, 청소년•청년들이 센터에 주 1회 이상 모여 디제잉을 연습하고 창작활동과 공연 진행. 쉽게 접하기 힘든 장르인 힙합을 매개로 소통. 지역 현장에서 음원을 수집하여 소스를 만들고, 음악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점검해보는 토론, 창작하여 녹음한 음원을 활용하여 공연. 매사 조심스러웠던 청소년들이 이 모임을 통해 적극적 태도로 변화 - 연습 및 공연 18회



청소년 창의위원회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센터의 운영 및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운영위원이 되어 학습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회의 - 하자센터 내 대안학교인 하자직업장학교, 로드스콜라, 영세프스쿨, 연금술사 프로젝트 등 네트워크 학교 재학생을 비롯해 꾸준히 하자센터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회의체로 구성 - 개별화된 청소년 그룹 간의 교류와 공동 활동, 공간 운영 등에 대한 제언과 기획 - 정기모임 4회, 비정기모임 3회
-----------------------	---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은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기반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 각 팀들은 하자센터의 공간 및 자문 등 지원을 받아 활동을 이어갔으며 기획자 및 퍼실리테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커뮤니티로서 생존하는 동력과 운영 능력을 배워갔다. 이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수혜자의 입장을 벗어나 스스로 공동의 활동을 만들어나가는 역동적 주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동아리에 있는 청소년이 센터 내 다른 교육 프로젝트에 결합해 참여하거나 독립해 별도의 NGO를 만드는 등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리사업 자체와 지원 범위,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청소년교육사업의 라인업 및 층위, 연계 상황을 고려하여 재논의할 필요는 있다. 지속성을 가진 장기적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성장하는 것을 지원할 것인가, 또는 다른 청소년활동에서 자발적 활동 의사와 에너지를 보인 청소년이 커뮤니티를 만든 후에 들어오고 나가는 교류의 판을 만들 것인가, 자발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할 것인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는 내년에 결정되고 보완될 지점이기도 하다.



1.창의

교사·활동가·대중 대상 프로그램

교육포럼1 '학교를 바꾸는 작은 행동, 어떻게 가능한가?'

사업 이름: 교육포럼 1 '학교를 바꾸는 작은 행동, 어떻게 가능한가?'

대상: 교육현장의 변화에 관심 있는 교사 및 일반인

진행기간: 2012년 2월 15일(수) 16:00 - 19:30

참가방법: 온라인 아카이브 사전 신청, 현장 접수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총 사업비: 6,188,170원

총 참여인원: 187명

하자센터는 2011년~2012년 혁신학교인 부인중학교, 충현초등학교와 MOU를 맺고 진로 등 비교과영역을 중심으로 학교문화 변화를 위한 12종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함께 고민을 해결해보려는 시도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다른 학교 교사들과도 나누고 공동의 논의 지점을 찾아보자는 의도로 본 포럼 기획을 시작하였다.

대규모 단회 포럼으로 기획되었기에,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 상 대부분 진행하는 공통적인 사업(입학·졸업식 등 의례/수학여행/공간기획)을 골라 이를 기존의 관행과 다른 관점에서 기획,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각 주제에 대한 관심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한 현장 사례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탐색하고, 차후 이미 실행한 이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확산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수학여행 비리, 알몸 졸업식, 폭력이 이뤄지는 교내 사각지대 등이 화두가 되어 소규모 테마 수학여행 권고와 졸업식 관리 강화 조치 등이 실시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이런 정책 단위의 움직임도 중요하나 교사와 학교 단위에서 뭔가 바꾸고자 하는 작은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할 움직임으로 보고 이를 시도했던 학교들의 사례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실질적인 어려움, 교육청 등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제언 등으로 구성했다.

what we did in 2012

본 교육포럼은 단독 행사라기보다는 일선 학교와의 협력사업에서 실제적으로 도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 지금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을 알리는 것을 의도했기에 사전에 해당 학교의 교사 및 사회적기업 등 파트너들과 5회차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뭔가 새로운 고민과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업무 구조, 행정, 정책, 예산, 학부모 인식 등 많은 장애물이 있음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행사나 프로그램의 내용만을 채우려는 접근과 촉박한 일정이 다각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일선 교사로서 바뀌고 싶은데 막막한 이들을 주 대상으로 초대하여 실제 부딪치는 문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해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기획을 진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했다. 학교의 구조적 한계는 분명하지만, 무력하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공유하며 'action'하는 가능성을 공유하였다. 따라서 본 포럼에서는 학교의 사례발표에서 주제별로 1. 문제의식: 문제 발견과 고민 2. 해결에 대한 방향 3. 교육의 목적과 콘셉트 4. 실제 진행 프로세스와 내용 5. 가능했던 요인과 요소 6. 실행을 위한 제언이라는 단계를 설정했다. 그리고 토론의 경우 사례발표에 대한 비평만이 아닌 정책과 본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첨언과 제언으로 교육적 의미를 재공유하는 성격을 띠도록 기획했다.



세부 프로그램

분야	주요 내용		
	내용	발제/토론자	
		하자센터	진행 브리핑
1	소규모 테마수학여행, 어떻게 할 것인가?		
	사례1	충현초등학교+ 트래블러스 맵	사회적기업과 수학여행을 공동기획 및 진행.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장소를 선정, 사전 사후 수업과의 연계, 부산 현지 청년 멘토와의 연결 등으로 그간 관행에 그쳤던 수학여행이 실제 배움이 일어나는 기회로 변화한 사례
	사례2	이창호 (성심여고 교사)	1997년부터 진행한 소규모 테마 수학여행 사례. 역사 수업과 연계한 반별 여행 진행에 대한 노하우, 학생들이 직접 장소를 선정하고 스토리를 꾸러가는 과정에서의 배움과 만족
	토론	변형석 (트래블러스맵 대표)	소규모 수학여행 정착을 위한 제언으로 여행과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를 짚으면서 교사의 교육적 맥락과 여행 전문가의 실무진행, 원스톱 행정 시스템 등을 제안. 19개 국립공원과 여행사가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교육청과의 MOU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공유
		김승겸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여행 컨설팅, 지자체나 대학 관광학부와의 MOU 체결,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현장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정책적 고민

입학식과 졸업식, 어떻게 만들 것인가?			
2	사례 1	입학식/ 충현초등학교	‘첫 만남과 관계의 변화’를 키워드로 잡고, 학생, 교사, 학교, 학부모들과의 모든 만남에 설렘과 즐거움, 배움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을 연결시킨 사례. 교사간 공동기획
	사례 2	졸업식/ 덕소중학교	일탈의 가능성이 보이는 청소년들을 기획단으로 위촉하여 적극적인 졸업식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교사와 재학생들의 점심식사 배식, 반별 졸업식을 통해 모두가 졸업의 주체가 되도록 함. 특히 연간 교육과정 전체와 연결한 것이 특징
	토론	김찬호 (성공회대 외래교수)	삶에서 의례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과 중요한 배움의 과정을 인디언들의 성장 의례와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식 사례 등을 구체적 예시로 들어 설명. 특히 배움에 대한 엄숙함과 에너지가 연결되는 즐거움이 공존하는 의례는 없을까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짐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학교 의례가 ‘행사’가 되어 교사들이 만든 틀에 학생을 밀어넣는 방식 자체에 문제 제기. 공동의 고민을 할 필요성 제안
학교 공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례와 논점			
3	사례 1	부인중+박수범 (하자센터 아트디렉터)	학교 현관을 나무를 사용한 열린 공간인 카페로 꾸민 사례. 학생들이 모여들어 대화하고, 수업에서도 이 공간을 활용하는 등 학생들의 생활과 일상 관계에 활력을 가져온 변화 공유
	사례 2	백화현 (봉원중 교사)	학교 도서관을 바꾼 사례. 특히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배치했으며, 옹기종기 모일 수 있는 온돌방과 숨어들어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등 학생들의 일상과 특성을 근거로 구성한 콘셉트가 특징. 몇십 개의 독서동아리가 생겨나는 동인으로 작용
	토론	박찬국 (NonArt ButArt 디렉터)	남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특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을 통해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변화 사례.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도시, 교육, 사회, 예술의 경계 넘기와 연계 등을 포함하여, 공간에 대해 전체론적 시각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성 제안
		안성균(산돌학교 대표교사)	교육 공간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제기하며 ‘공간은 삶을 담는 곳’이며 ‘학교는 건축으로 구현된 교과서’로서 숨겨진 교육과정임을 이야기함. 이러한 배움과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실제 건축이나 인테리어로 구현된 다양한 학교 사례 공유
4			참여자 / 질의응답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하자센터의 교육 기획에 대한 철학 및 실행사례를 일선 학교와 협력해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첫 번째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 학교에서 늘 진행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다른 기획'을 보여주면서 외부 파트너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참여한 교사들은 혼자 고민하던 부분을 전문가나 경험자와 공유하여 좋았다, 고민의 시작부터 과정을 보여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단지 행사 기술이 아니라 교육철학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수학여행 기획을 바꾸고 입학식에 대해 공동기획을 시작했다는 등 다양한 피드백 및 후속 소식을 들려주었다. 특히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한 번에 하나씩 주제를 정해 깊이 논의하고 학습하며 일을 시도해볼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그러나 후속 프로젝트는 현 상황에서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하자센터는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교육사업들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하자센터의 철학과 실행 방향을 공유하며 함께 실행하는 파트너를 발굴하는 계기로서 새로운 교육포럼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more info

리뷰 <http://www.haja.net/?p=3890>

자료 PDF <http://archive.haja.net/archives/view/366>



교육포럼2 '청소년 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

사업 이름: 교육포럼 2 '청소년 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

대상: 교사, 학부모, 청소년 활동가 및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진행기간: 2012년 3월 15일(목) 오후 4시~6시

참가방법: 온라인 신청

참가비 여부: 1만원

장소: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나쁜 아이들만 골라내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질문에서 이 포럼은 출발했다. 학교폭력의 ‘대책’을 논의하자는 세미나, 포럼, 토론회는 이미 지난 2011년 말부터 러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는 것이 십대 청소년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가해와 피해로 단순화하고, 학교와 경찰이 처벌과 격리로만 해결하도록 떠넘기는 현재 분위기에서 나온다면 별 의미가 없을뿐더러 우려스럽기까지 한 상황이었다. 이에 하자센터와 하자센터와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이 공동 기획 및 주최한 교육포럼 2 ‘청소년 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는 오히려 ‘대책이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부제 역시 ‘가해자, 피해자의 이분법을 넘어선 다양한 시각’으로 정했다. 가해자 VS 피해자 식의 양분법, 격리와 처벌 일변도로 흐르는 각종 ‘대책’의 홍수 속에서 히키코모리, 학업 중단, 가해자 등 청소년들의 복잡한 세계를 다양한 시선에서 관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로 기획된 것이다.

what we did in 2012

세부 내용

사회 : 이충한(사회적기업 유자살롱 공동대표)

공동 주최 : 하자센터, 유유자적살롱

발표자

1. 집단 괴롭힘과 부등교 - 일본에 있어서의 괴롭힘, 부등교 현상과 젊은이들의 이야기

: 야마모토 코헤이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사회학과 교수)

2. '애너나 프로젝트' 외 지역별 사례 - 가해자 청소년을 만난 청소년과 어른의 이야기

: 한운장 (필통 기획팀), 장재연 (15호 클린하우스), 임천숙 (천천경 미용실)

3. 학교 안과 밖의 '무중력 청소년', 그들을 위한 중력의 그물망 만들기

: 전일주 (사회적기업 유자살롱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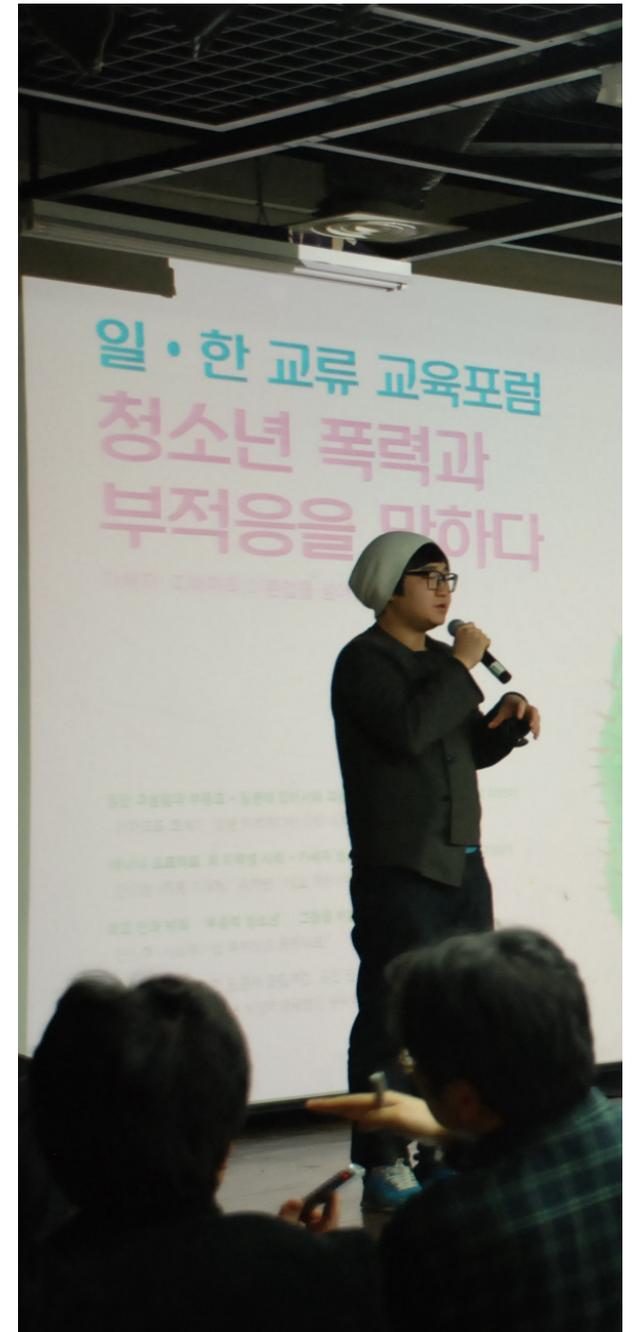
토론자 : 김경옥 (격월간 민들레 편집주간, 공간민들레 대표)

사토 요사쿠 (일본 비영리활동법인 문화학습협동네트워크 대표)

이 포럼에서는 우선 지난 1980년대부터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은 바 있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전문 연구자 야마모토 코헤이 교수가 기초 발제를 맡아 사회의 모순이 그대로 체현되는 축소판으로서의 학교, 그 복잡한 지형도를 보여주었다. '집단 괴롭힘과 부등교'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될 야마모토 교수는 지난 12월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유사한 일본 사례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 관중과 방관자의 4층 구조로 된 집단 괴롭힘(이지메)의 메카니즘을 제시했다.

1986년 2월 도쿄도 나카노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2학년 진급 이후 같은 반 그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오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자살하면서 일본 사회를 들끓게 했다.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교실 내에서 모의 장례식이 열려 '장례식 놀이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담임 교사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살 이후에도 반 학생들에게 함구할 것을 종용해 문제가 되었다. 결국 4월 경시청이 사건에 관련된 16명의 학생을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조사했고, 피해자의 유족이 유서에 명기된 두 명의 가해자 학생 부모와 도쿄도, 나카노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과 양호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밝혀진 일본 내 자살 및 자살 미수 현황, 또 실제 자살 미수 경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야마모토 교수는 이기는 것만을 강조하고, 도움이나 의존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 학교와 사회의 구조가 경쟁주의 아래서 배제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증가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묻는다. '할 수 없다'는 건 고작 능력의 차이일 뿐이나 현 사회에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은 본연의 삶, 생의 존엄조차 무시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또래들과의 경쟁에서 처지지 않기 위해,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친구의



위기를 방관 및 조장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의 생태계가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상, 그들의 문제를 교사나 경찰만이 떠맡을 수는 없다는 인식 하에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기업, 청소년 활동가, 시민 등 학교 밖의 다양한 그룹들이 청소년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청소년, 청년이 직접 기획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벌이는 온라인 학습생태계 '필통'을 기획했던 한운장은 서울시내 한 중학교의 말썽쟁이들만으로 구성된 27명의 남녀 중학생,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십대 후반의 15명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애너니'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십수년 간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일본 교사 미즈타니 오사무의 에세이 <애들이 너희가 나쁘게 아니야>에서 따온 이름. 일반적인 기준에서라면 '노는 아이들' '문제아' '가해자'로 불리는 청소년들과 부대끼면서 알게 된 그들만의 돌봄과 생존전략, 무엇보다 그들보다 더 폭력적인 어른들의 시선에 갇힌 청소년들의 진면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교사도 청소년 전문가도 아니지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든 제주 '15호 클린하우스', 구미 '천창경 미용실'의 사례도 소개되었다.

대중음악분야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음악 기반 대안교육 프로젝트 '집밖에서 유유자적'을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무중력 청소년'이란 개념을 내세워 눈길을 끄는데, 이는 학교를 비롯한 사회 영역의 중력 바깥에 위치한 은둔형 생활 청소년들을 부르는 이름. 인디 뮤지션과 작곡가, 엔지니어, 기획자 등 음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유자적살롱은 이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음악과 밴드 활동을 통해 친구를 만나고 사회성과 자신감을 찾는 과정을 밟아나간다. 15~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5기에 접어들 '집밖에서 유유자적'은 수료 후에도 기수별 밴드 구성, 인턴십 제공, 일자리 연결 등 돌봄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어 이미 30명 넘는 청소년 밴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차 발표가 끝난 후에는 사토 요사쿠 일본 문화협동네트워크 대표와 김경옥 격월간 민들레 편집주간 겸 공간민들레 대표가 코멘테이터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사토 대표는 1993년 부등교(등교거부) 청소년을 위한 프리스쿨을 개설한 이후 1999년부터 히키코모리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NPO법인 '문화학습협동네트워크'의 대표를 맡아오고 있다. 1999년 설립 이래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대안적 활동을 펴온 공간민들레는 최근 펴낸 격월간 민들레 79호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니라 폭력학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본 포럼 뒤 이어진 짧은 토론시간 이외에도, 두 개의 애프터모임을 통해 훨씬 더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신관 103호에서는 20명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교류와 전망에 대해서 논의했고, 윗층 203호의 오픈 모임에서는 포럼에서



나누지 못한 더 날것의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물론 이는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포럼은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거론되는 이슈에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계기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부모, 교사, 청소년들과 함께 학교 및 청소년 일선 현장의 문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압력밥솥처럼 숨막히게 눌러대는 사회의 모순을 온 몸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우리의 청소년은 닮아 있다. 일·한 교류 교육포럼 '청소년 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는 우리에게, 혹은 누구에게도 간편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more info

리뷰 <http://www.haja.net/?p=3918>



교육포럼3 '비정규트랙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말하다'

사업 이름: 교육포럼 3 '비정규트랙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말하다'

대상: 교사, 학부모, 청소년 활동가 및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진행기간: 2012년 5월 9일

오후 4시~저녁 7시(포럼/ 오후

4시~6시, 타운홀미팅/ 오후 6시~7시)

참가방법: 온라인 신청

장소: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허허홀

2012년 5월 9일(수)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신관 4층 하하허허홀에서 열린 '교육포럼 3-비정규트랙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말하다'는 가족과 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학 진학 대신 성인기 이전부터 자립을 요구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혁신적 진로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시설 청소년 등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 등을 하지 못하고 자립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내놓는 해결책은 '기술을 배워 취업'이다. 그러나 성인과 경쟁해야 하는 현재의 고용 환경 속에서 이들 청소년들에게 취업이 목표나 대안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청소년자활시설의 증언들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고용 불안정과 계급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불리한 생존게임에 성인도 되기 전에 시작해야 하는 이들이 의미 있는 일과 삶을 찾게 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비정규트랙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말하다' 포럼에서는 그 해답을 지역, 마을 등 커뮤니티에서 찾아낸 4개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기로 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청소년 창업을 시도한 하자센터 연금술사 프로젝트 '소풍가는 고양이'(도시락가게, 마포 성미산마을), '달콤한 꼬끼리'(컵케이크 카페, 신촌) 2개 사례와 요리 분야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요리학교 '영세프스쿨', 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의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수, Dabang(수, 다방)' 등이 그것이다.

커뮤니티는 심리적 지원자가 되어 줄 수 없는 가족과 학력, 배경 등 '스펙'으로만 평가하는 사회 사이에서 이들을 돌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환경, 즉 '비빌 언덕'이라고 이들은 설명한다. 기존 청소년 진로·직업교육의 경우 기술 전수 등 특정 직업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비정규트랙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사회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직업 기술 위주의 교육을 거쳐 기존 시스템에 취업시키는 기계적 인식을 탈피, 이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과 이 안에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이들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what we did in 2012

세부 내용

사례 발표

- 청년 인큐베이팅사업 청년공방 '手, Dabang(수, 다방)'
: 여광천 (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 팀장)
- 청소년 일과 배움의 조건, 비밀 언덕이 필요하다
: 한영미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 공동대표)
- 4막을 꿈꾸다 : 박진숙 (주식회사 '소풍가는 고양이' 대표)
- 서로 키워가는 청소년 순환창업 : 우소연 (하자센터 '연금술사 프로젝트' 총괄매니저)

토론

- 박복선(성미산학교 교장)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0년부터 권혁일 이사(NHN 해피빈재단)의 '(재)아름다운재단' 기부로부터 시작된 하자센터의 청소년창업 프로젝트 '연금술사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 분야에서 실제 일을 하며 실력을 쌓아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달라는 민간 기부자들의 취지를 받아들여 '연금술사 프로젝트'는 1기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턴십과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을 했으며 2기부터는 실질적인 청소년 창업 프로젝트로 전환, 2011년 5월에는 6명의 청소년들이 마포 성미산마을에 도시락가게 '소풍가는 고양이'를 창업했고, 2011년 12월에는 3기 청소년들이 신촌역 인근에 컵케이크 카페 '달콤한 꼬끼리'를 창업했다.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가게 부지 물색, 상품 개발, 매장 디자인, 홍보와 마케팅 등 전 과정을 함께한 것이 특징이다.

'소풍가는 고양이'의 경우 초기 창업 단계를 지나 주식회사로 독립, 청소년 멤버가 이사로 취업하는 등 다음 단계로 착실히 나아가고 있으며 '달콤한 꼬끼리'도 '청소년이 청소년을 가르치는 매장'이라는 콘셉트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가며 성장하는 순환창업을 지향하고 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궈낸 마포 성미산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당당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청년매장을 운영하고, 소비주의 일변도인 신촌에서 청소년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쉼터 같은 카페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들의 꿈. 일터와 배움터가 함께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탄생이다.

요리 분야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에서 진행하는 요리학교 '영세프스쿨'도 사회적인 자원이 없는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철저히 맞추고 있다. 오가니제이션 요리 한영미 공동대표에 따르면 '영세프스쿨'의 1차 목표는 자기 밥상을 차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자기 밥상을 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다른 이의 밥상도 차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입학 인터뷰시 '자기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원을 피력한다고 한다. 이들의 본능은 결국 가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한영미 대표의 진단. 이 때문에 '영세프스쿨'은 가족같은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 총 1년 과정으로 2010년 첫 시작, 현재 12명의 청소년이 3기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영세프스쿨은 하자센터 내 사람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영세프 밥집'을 운영하며 실무를 익히고 이천의 유기농 농가들과 연계,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 체험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결국 요리를 통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레스토랑을 오픈한다는 것이 영세프스쿨의 구상.

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이 2011년 2월부터 시작한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手, Dabang(수, 다방)' 역시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켜보았던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비정규트랙 청년들을 위한 창업으로 방향을 잡은 케이스다. 친환경소품, 아기용품을 테마로 한 손작업 공방을 메인 콘셉트로 잡았으며 현재 6명의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하자센터는 2월 15일 혁신학교들의 현장 개혁 사례를 모은 교육포럼 1 '학교를 바꾸는 작은 행동', 3월 15일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피해자-가해자의 이분구도로 보는 사회 분위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육포럼 2 '청소년 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를 개최해 해당 주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한 바 있다. 세 번째였던 본 교육포럼에서는 성인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청소년의 진로 설정에 있어 이제는 다른 세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들이 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존감 회복의 계기,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위축되지 않는 분위기가 필요하며 이는 설령 도망을 갔다가 와도 '빠낼 수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여받은 약점으로서의 '비정규트랙'이 어느덧 강점이자 축복으로 변한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 하자센터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2012 서울지역 청소년정책토론회 '커뮤니티와 청소년, 경험 속에서 실마리를 찾다'

사업 이름: 2012 서울지역 청소년정책토론회
'커뮤니티와 청소년, 경험 속에서 실마리를 찾다'

대상: 청소년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진행기간: 2012년 9월 21일 오전 10시~오후 2시

참가방법: 사전 온라인 신청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총 사업비: 10,000,000원

총 참여인원: 186명(성인 176명-청소년단체

· 기관·시설의 청소년활동가, 교사, 학부모 등
청소년 10명 -중·고교생)

2013년 시행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전국 4개 도시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사업 중, 서울지역 정책토론회를 하자센터 주관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2011년 말 완료된 기본계획 연구에 대해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취지였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내용, 다양한 층위의 발표자, 짧은 시간 등 여러 요인으로 피상적이거나 요식행위에 그치는 여타 대형 정책토론회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언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참여한 청중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가운데 공동학습,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팅했다.

기획의 몇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청소년 활동 관련자를 포함, 다양한 민·관 현장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다각적 제언의 기회를 마련한다. 주제별로 관심 있는 각계 인사들이 만나 정보 및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의 단초를 마련하는 장으로 활용한다. 일회성 행사지만 책자, PDF 등을 제작해 차후에도 공유한다.

운영방향

-콘셉트 : 지역 커뮤니티 기반 현장에서 실천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실제 사례를 정책과 연계한다. 제5차 계획안의 주안점은 '지역사회 기반(community based)'이며 서울시의 주요 정책 중 하나도 '마을 만들기'이다. 이것이 청소년 정책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정책이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제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사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미 나온 계획연구에 대해 추상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서울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청소년의 일상 공간인 '지역사회'를 공통분모로 하여 주요 분야 및 의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실험-실행한 청소년활동 사례와 경험'을 통해 발견한 문제의식 및 아이디어를 정책 분야에 제안하는 발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획자와 활동가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험하며 부딪혔던 과정 자체가 논의 도출의 요소가 되게끔 했다.

-내용 및 구성: 정책 분야 중 지역사회 연계 및 대안이 시급한 분야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핵심역량과 인성 강화',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및 복지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세 파트를 설정했다. 또한 구성면에서는 1부에서 기본계획 소개 후, 각 현장 활동가들의 발제를 스토리텔링과 이미지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팀으로 나뉜 참여자들이 분야별 민관 활동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모여 전체 공유를 진행했다.

-형식 :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 중심 피차쿠차, 주제별 분임토의, SNS 활용 현장토론

what we did in 2012

세부 프로그램



구분	내용	
제1부_발표: 현장 스토리를 통해 정책에 제안하다		
기초 발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 계획〉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발제 1	<p>〈지역연계 청소년 문화활동 경험을 통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소를 이야기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 문화활동을 진행하면서 삶의 성장을 도모해온 사례 공유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제언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발제 2	<p>〈탈학교 비활동 청소년의 사회복귀활동 사례를 통해, 정서적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야기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T/은둔형 청소년들이 커뮤니티와 음악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활기를 찾으며 변화하고 있는 사례 공유 • 보호책을 넘어, 변화의 계기를 생성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제언 	<p>이충한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 공동대표)</p>
발제 3	<p>〈후기청소년의 창업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청소년 자립을 위한 현실적 지원방안을 이야기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이 필요한 18~24세 청소년들이 ‘스펙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자 한 도시락가게 ‘소풍가는 고양이’의 창업과 성장 이야기 • 후기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 및 일을 만드는 실질적 자립 지원에 대한 제언 	<p>박진숙 (주)소풍가는고양이 대표</p>
발제 4	<p>〈마을에서 공동으로 만드는 교육경험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핵심방향을 이야기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을 마을이 함께 키운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마을 커뮤니티에 대한 사례. 프로그램 위주의 접근을 넘어서 마을카페, 마을밥집 등을 거점으로 관계를 통해 만들어낸 연결망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의 실제적 지원에 대한 제언 	<p>김준열 (아름다운마을공동체 주민, 강북마을모임 집행위원)</p>
정리 발언	: 현장의 발제를 기반으로 한 종합 의견	<p>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p>
제2부_ 주제별 대화 : 지역사회 기반		
	<p>문화활동: 문화로 마을을 만드는 아이들</p>	<p>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이승훈(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관장)</p>
	<p>정서적 위기/탈학교: 관계성, 자존감 회복의 장</p>	<p>이충한(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 공동대표) 전미학(서울시대안교육센터부장 /서울시상담지원센터실행위원)</p>
	<p>사회적 자립: 청소년이 행복한 일터</p>	<p>박진숙((주)소풍가는고양이 공동대표) 여광천(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 청년인큐베이팅사업)</p>
	<p>지역사회 환경/교육공간: 마을관계망에서 자라는 아이들</p>	<p>김준열(아름다운마을공동체주민, 강북마을모임집행위원) 남소연(여성가족부 사무관, 광진 방과후 교육)</p>

사례발표자는 우선 제시되는 정책 중 관련 부분에 있어 긍정적 측면과 보완될 부분들을 언급한 후, 자신의 사례를 통해 보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발표했다.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발제 형식에 있어서 발표자들의 실험과 실패, 고민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정책적 제언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식 발표로 구성했다. 2부는 관심 분야별로 민간 영역에 있는 1부 발표자들과 관 등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각 공간으로 이동하여 팀당 15~30여 명이 후속 논의, 제언,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논의 내용을 취합하여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주요 패널들의 평가와 기본계획 연구책임자의 코멘트, 참여자들의 피드백 등을 고려할 때 토론회 주제와 콘셉트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을 맡았던 김기현 박사는 2013년 사업 기획 시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논평을 했다. 특히 2부 순서까지 100여 명의 참여자가 남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던 것을 보아도 이 프로그램이 현장 활동가들의 고민과 맞닿는 내용이었음을 증명한다. 청소년기관이 아닌 다른 현장의 활동가들이 패널이나 토론자로 섭외된 것이 오히려 신선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집약적인 스토리텔링 발표로 진행되어 분야별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현 상황, 제언의 방향과 근거를 더 잘 볼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진행과정 설계에 있어, 기획자가 일방적으로 틀을 짜고 발제자들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것도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방향과 콘셉트 등에 대한 1차 기획을 한 후, 각 현장의 발표자를 선정하여 정책안에 대한 간략 스터디와 사전회의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논의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는 전체 주제와 각 발표들을 연결시키며 전체 구성을 매끄럽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전체 발표 시간이 더 충분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향후 일회성 행사를 넘어 느슨하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네트워크 연계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 실행에 있어 현장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more info

리뷰 <http://www.haja.net/?p=4034>

PDF <http://archive.haja.net/archives/view/595>



청소년 활동가 연수 '사업기획 이라는 미로를 여행하는 청소년 활동가를 위한 안내서'

사업 이름: 청소년활동가연수 '사업기획이라는
미로를 여행하는 청소년활동가를
위한 안내서' (기획에 꼭 필요한 자기
질문&체크리스트 만들기 워크숍)

대상: 서울·경기지역 청소년활동가
(주 대상: 기획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알되
자신과 환경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소
몇 차례 이상 자신이 직접 사업 기획을 한
경험이 있는 2~5년차 실무자)

진행기간: 11월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주 1회/
오후 2시 30분~오후 6시)

참가방법: 온라인 신청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2,200,000원

총 참여인원: 25명

하자센터는 청소년을 만나고 그들을 위한 활동을 만드는 청소년활동가들의 기획력 강화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기에, 파트너 단체들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각자의 노하우가 결합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성찰을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장 실무자들에 대한 사전 리서치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활동가들은 정해진 예산과 바쁜 사업 일정 등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찾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당장 써먹을 아이디어와 답을 구하는 아이템 쇼핑에 급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청소년의 변화와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며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과 한계를 인식하고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전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센터는 각 현장의 구체적인 환경과 문제상황에서 기인한 특수성들이 반영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문제의식을 확대해 핵심적인 활동으로 기획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또한 지속적 사업이 아닌, 단회로 기획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상, 참여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했다. 이 결과 참여 청소년 활동가들이 각자의 상황,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및 네트워크를 토대로 기획시 참고할 수 있는 자기만의 질문 & 기획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는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what we did in 2012

콘셉트: Learning by doing, 주의환기+활동+성찰, 소통+협력

운영개요: 팀별 워크숍 기반 프로그램 구성

운영방향: 네트워크 및 협력 진행

기획: 하자센터, 지속가능한창작공동체 공동기획

참여자: 팀 기반의 프로젝트 형태(5인 1팀)

강사: 팀 티칭(주강사 3인/ 지속가능한창작공동체, 하자센터)

리스트	내용	비고
지속가능한창작공동체(김미경, 민경은) 하자센터 교육팀(손민정)	공동기획, 1-4회차 퍼실리테이팅	팀별 협업
밴드 몽구스(김준수)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이충한 외)	음악창작 워크숍	팀 티칭

프로그램 내용

구분	단계	내용
1강	Opening & 일상 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 / 팀 만들기 • 음악으로 만들어보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일상 희노애락!
2강	기획난감, 문제인식	<p>“갑자기 기관에 뚝 떨어진 사업! 대략 난감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기획-실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질문을 통해 진단
3강	기획공감, 문제해결	<p>“우리 현장에선,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을 기획할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기질문 & 기획 체크리스트 만들기 • 사업기획과 실행에 필요한 현장점검 기준 설정/ 문제해결 방안 도출
4강	공유 & 네트워크 파티	<p>“무엇을 서로 배우고 공유할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자기질문 & 기획 체크리스트 공유 • 과정에서의 배움과 통찰 공유 & 네트워크



진행과정

“여러 한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초대할 주요 대상을 설정했는데 특히 연수 후 실질적으로 사업기획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가를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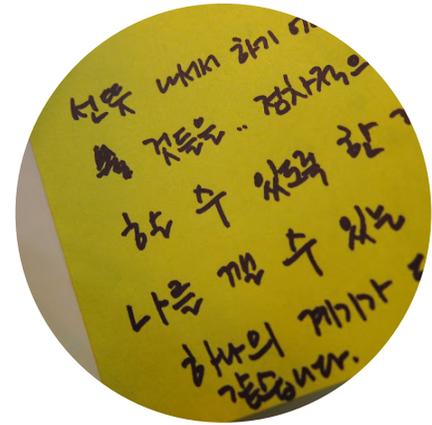
‘기획’ ‘문제의식’ 등의 단어는 일에서 필수적인 것임에도 일부 활동가들은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어했다. 따라서 첫 회차에서는 즉흥적인 음악 창작작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일상을 돌아보도록 했다. 또한 매 워크숍 진행 후에 리뷰와 다음 회차 세부 구성을 논의하면서 참여자들의 에너지와 진행 속도,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필요성에 따라 내용을 조정해나갔다. 공동으로 설정한 목표에 참여자들이 함께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하우에 대한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실제 프로세스대로 공동기획을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저녁에는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별도 모임들을 통해 심화 논의가 진행되었다. 팀별 결과물 발표 또한 네트워크 파티 형식으로 기획, 부담을 덜어주었다. 매 과정 축적되는 자료 및 기록은 온라인으로 공유하였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청소년교육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근본적 문제의식에 근거한 콘셉트, 외부 파트너들과의 공동기획은 참여한 활동가들에게 이전에 없던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실제 모집에서도 한창 각 현장에서 바쁜 2~5년차 활동가를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해진 인원을 훌쩍 넘는 많은 실무자들이 신청했고, 서울은 물론 의정부, 용인 등 경기 지역의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참여 활동가들은 ‘사업을 단순 행사 중심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발견되고 깨졌다’ ‘기획에서의 자기 철학과 팀 내 공동의 기준을 세울 필요성을 느꼈다’ ‘질문을 통해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문제의식과 콘셉트 등 단계별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등의 피드백을 들려주었다. 또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관을 벗어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들을 만나고, 일방적 강의식이 아닌 실제 진행형 워크숍에 참여해서 좋았다는 반응도 많았다. 연수 후 이번 경험을 살려 연간 사업을 청소년들과 기획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는 등 각자 현장에서의 변화 조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번 연수에서 도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각자 현장에서 기획한 콘텐츠와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후속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 기관 및 단체가 소수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기에 자체 성장 프로세스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비슷한 환경과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을 공유한 동료를 만드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나아가 활동가들에게 현장의 상황을 재인식할 수 있는 인문학적 학습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자센터에서 직접 후속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청소년 활동가를 위한 타 연수기관과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공식적인 후속사업은 아직 예정에 없으나 청소년 활동가들의 욕구 및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했기에



지속가능한창작공동체와 함께 참여자들의 지속적 자료 공유와 소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참여 모임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more info

리뷰 <http://www.haja.net/?p=4094>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진로활동을 중심으로

사업 이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진로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용역사업)

진행기간: 2011년 5월~2012년 5월

총 사업비: 40,000,000원

총 참여인원: 연구 및 운영 12인, 자문 및 시연

8인, 어린이 및 청소년 50인

연구책임: 김찬호(성공회대 연구교수)

공동연구: 양안나(서울대 농생명연구소), 손민정(하자센터
교육팀), 이재훈(교육사랑방 교사)

보조연구: 박설희(중앙대문화학)

프로그램 개발: 스토리텔링연극/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 미술/ 예술과시민사회 영상/ 사회적기업 영상제작소
눈, 박형주 음악/ 김준수 만화/ 심승희 디자인/ 이재훈,
장민경(하자센터)

자문: 정연순(한국고용정보원),

방혜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배성호(온신초등학교)

이현호(충현초등학교), 이선희(부인중학교),

이현경(부인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강화 정책과 맞물려, 이에 대한 일반 학교와 학부모들의 수요 및 욕구가 급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하자센터에서 진행되어온 창의 및 진로교육 콘텐츠의 확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때마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연구용역 공모에 선정되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 수주의 내용은 '예술 강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작업을 통해 진로와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하자센터에서 진행해온 교육사업의 주 키워드인 공공의 창의성,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넘은 모험, 협업 실행과 같은 내용을 담아 통합적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자 시도했다.

이를 통해 현 진로교육이 대부분 분절적인 단순체험과 검사 위주에 청소년과 직업/학과를 매칭(matching)하는 식으로 이뤄지는데다 주요 키워드로 창의를 내세우지만 실제 여기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은 부재한 상황에 대해 하나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극단적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 키워드로 '공공의 창의'를 설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할 것인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를 핵심 질문으로 제안했다. 또한 이와 연관된 다양한 질문들에 창작활동으로 답하고 표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실패가 허락되는 프로그램 안에서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놀이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와 관점을 고민하면서 상상한 것을 시도하며, 다양한 삶을 만나고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스스로의 사고와 행위, 자신이 창조한 스토리를 재경험하면서 세계와 상호작용하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강점을 활용한 것이다.

연구 파트에서는 문화예술 기반 활동이 진로교육에 대해 지닌 의미와 특징점, 현재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개발 역량을 검토, 재정리했고, 각 역량별 하위요소와 단계별 활동의 목표를 제안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파트에서는 6개 학년(초 4학년~6학년, 중 1학년~3학년) 각 10회차의 강사용 세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강사들이 기획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구체적 질문과 워크숍 사례들을 역량 요소별로 제안했다.

what we did in 2012

창작·실행·감응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특징과 강점을 살리며 진로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포지셔닝하기 위해 '창의·역량 중심 문화예술교육'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프로그램명은 'C·Art·E'(카르떼)로 명명했다. 'C·Art·E'는 Creativity/Competence centered Art & Culture Education의 약자이며, 스코틀랜드 영어로 '카드놀이의 패' 또는 '지도'를 뜻한다. '여러 가지 카드를 찾고, 삶의 지도를 그려가는 진로활동'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팀은 연구진과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강사 개발진, 교사 및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팀은 20회의 기획 및 논의 모임, 4회의 자문회의, 3회의 공교육 학교 연계 시연을 진행했다.

1권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진은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과 활동 목표를 정리했는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초·중학생 진로교육 목표와 진로핵심역량을 추출하였다. 차별점은 기존 진로교육 목표와는 달리 가치 부분을 포함해 청소년 개인의 삶을 중심 스토리로 한 핵심역량과 하위요소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진로를 고민하되 자신의 고유성과 특성을 알고, 지지와 공감을 주고 받으며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특히 자신과 공공의 가치 형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선택하고, 타자와 의사소통하고 동료와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며, 상황을 분석하고 창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모험적으로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노력하는 가운데 자신이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살

수 있는 과정'을 상정한 것이다.

이후 역량 범주에 따른 활동목표에 대해 해외 교육정책의 진로 목표 기술 표현을 참조하되 정량적 기술이 아닌, 인지 정서적 부분을 포괄하여 작성하였다.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교·강사들이 진로교육의 핵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기획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발문, 워크숍 아이디어 등을 구성했다. 6개 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구성한 교육 기획 방향과 원리, 활용방안 등도 정리했다. 2권 프로그램북에서는 학령 구분에 따른 강조점과 장르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현행 학교 행정상 진로교육으로서의 배치와 예술강사들의 다양한 역량을 고려하여 독특성과 난이도를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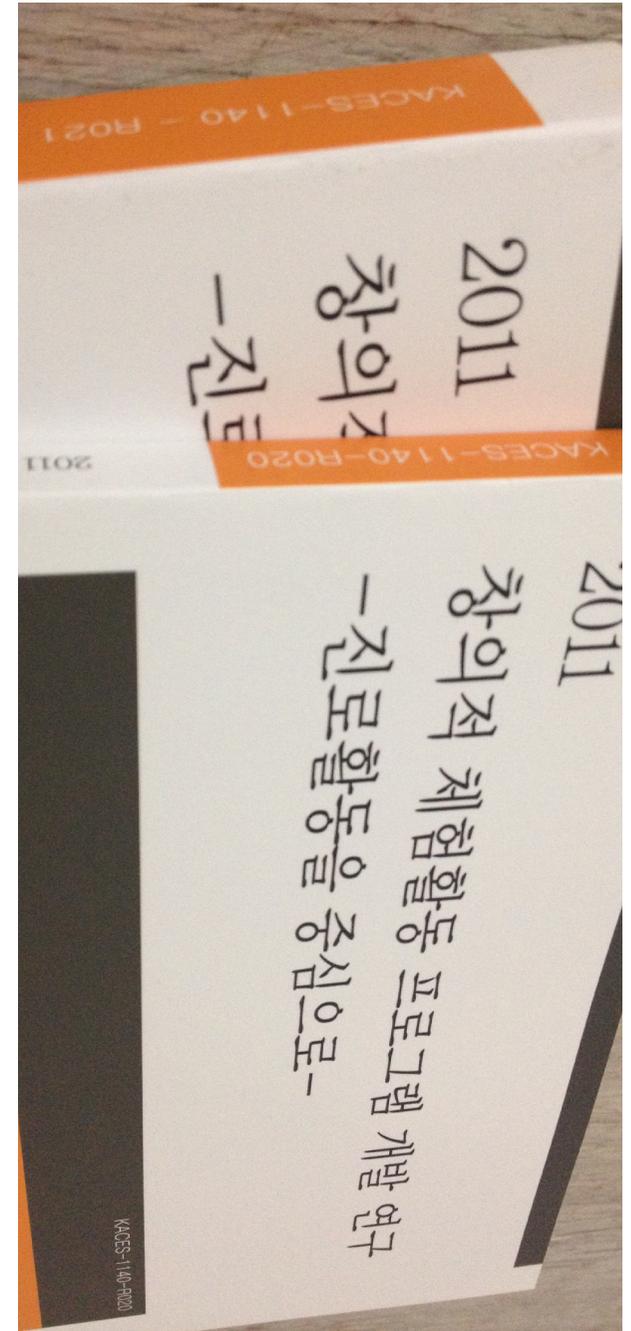
본 연구사업은 문화예술교육과 진로교육의 통합 샘플링에 초점을 두었기에, 가능한 다양한 장르의 결합을 의도하였다. 이에 전문 예술강사진과 코디네이터, 연구진이 논의를 거쳐 개발하고 보완, 편집하였다. 제안한 모든 역량과 목표를 6개 학년의 활동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별로 구체적 주제나 스토리를 잡고 중점 역량을 배치하였다.

발달단계 연구들을 참조하여 초등은 자유로운 사고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중등은 사실과 가능성, 구조와 융통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조하여 활동의 주요 요소를 구성하였다. 커리큘럼 외에도 개발한 4~9학년 프로그램의 각 회차별 내용이 제안한 역량과 활동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보여주는 표로 구성했다. 이 표는 역량 목표별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차를 표기하였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역량 배치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 프로그램 구성의 개괄적인 원리나 방향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 중심의 활동으로서 지식 습득을 넘어 자신이 이해하고 정리한 진로 관련 고민과 성찰 내용을 다감각적으로 표현, 소통하도록 한다. 둘째,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답'이 없듯 상호작용, 우연과 창발성을 고려한다. 셋째, 도식적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시나리오와 같은 관점을 가진다. 넷째, 자신과 타인,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상과 성찰, 재구성의 과정을 넣는다. 다섯째,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통하여 다시 자신을 인식해보는 순환적 방식을 고려한다. 이후 개발한 프로그램은 초, 중 2개교에서 시연을 진행하여 정리하였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연구 과정에서 전문 자문위원들은 시대 맥락을 고려한 창의적 인간 설정과 수업 기획을 위한 핵심역량 재정리, 전인적, 통합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와 진로교육의 목표가 교집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사례를 만든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두 교육 분야가 궁극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본 연구가 두 교육이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현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 콘텐츠들이 주로 상담과 일회성 체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본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 기반 주제중심 통합학습으로서의 독특한 포지셔닝을 꾀하면서 진로교육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구성에 있어서 참여자가 단순 주지주의식 학습을 넘어 스토리와 내러티브, 공동 창작 작업을 하는 커리큘럼 교육기회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진로교육 요소들을 이해하고, 흥미를 가지고 쉽게 몰입하며 기꺼이 협업한다는 것을 시연을 통해 발견했다. 교강사를 위한 발문과 워크숍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 역시 향후 문화예술교육으로 진로교육을 기획,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에 게시된 본 연구보고서 자료의 다운로드 및 조회수를 고려할 때 진로교육 콘텐츠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단순 정보 전달이나 현장체험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 및 공감과 성찰, 실행 경험을 중시하는 장기간의 통합활동으로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았다. 연구 개관과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거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이트에 DB화되었으며, 예술강사들이 활용하고 있다. 결과물을 예술강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용하거나 진로활동을 문화예술교육 측면에서 접근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료 개발 등 후속 연구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향후 문화예술교육 기반 등 다양한 통합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진로교육계와 문화예술교육계 등 각 현장과 학계 등이 연계, 범주와 개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상태에서 긴밀히 논의하고 이를 녹여내는 공동기획 작업들이 필요하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할 때 고정된 시수, 강사의 역량 차이, 예산, 현실적인 활동 공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으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 활동가 및 연구자들의 창의적 공유와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콘텐츠 기획 시 예술강사들이 넉넉지 않은 기간 내에 연구에서 제안하는 진로 교육 방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세부 커리큘럼을 쓰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기에 충분한 학습 기간과 퍼실리테이터와의 긴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현장 또는 커뮤니티와의 연결,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좋은 어른과의 만남 등 실제 생활 속에서의 실행과 경험을 통한 배움이 일어나는 중간 환경과의 연결은 본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배제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more info

연구보고서 1권 다운로드 www.arte.or.kr (연구개발/컨텐츠 개발연구)

연구보고서 2권 문의 green@haja.or.kr

하자마을책방

사업 이름: 하자마을책방

대상: 하자마을 주민, 인근 지역주민

진행기간: 상시

참가방법: 회원 가입 후 대출, 열람

장소: 하자센터 본관 106호와 쇼케이스 돌림책장 공간

총 사업비: 4,689,000원

총 회원 수: 270명, 월평균 이용 인원 50명,

자원활동가수: 10명

총 장서 수: 단행본 6,800권, DVD 2,000여 개,
비디오 1,000여 개

2012년 추가도서: 516권 (313권 자체구입,
158권 우수문학도서 지원, 기증
45권), 유료 정기간행물 4종(〈민들레〉
〈개똥이네〉 〈고래가 그랬어〉 〈녹색평론〉)

하자마을책방은 하자마을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하며 특히 하자센터 관련 자료를 특화해 비치하고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자원활동가들이 자체 모임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했으며 매달 하자마을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신간 도서를 입고,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공간에 있어서도 책방 내부 공간 외에 외부 쇼케이스에 오픈 서가를 설치, 열람 공간이 부족한 단점을 해소했다. 특히 쇼케이스에 설치된 ‘돌림책장’은 하자센터 내외부의 관심 속에 지속되고 있다.

what we did i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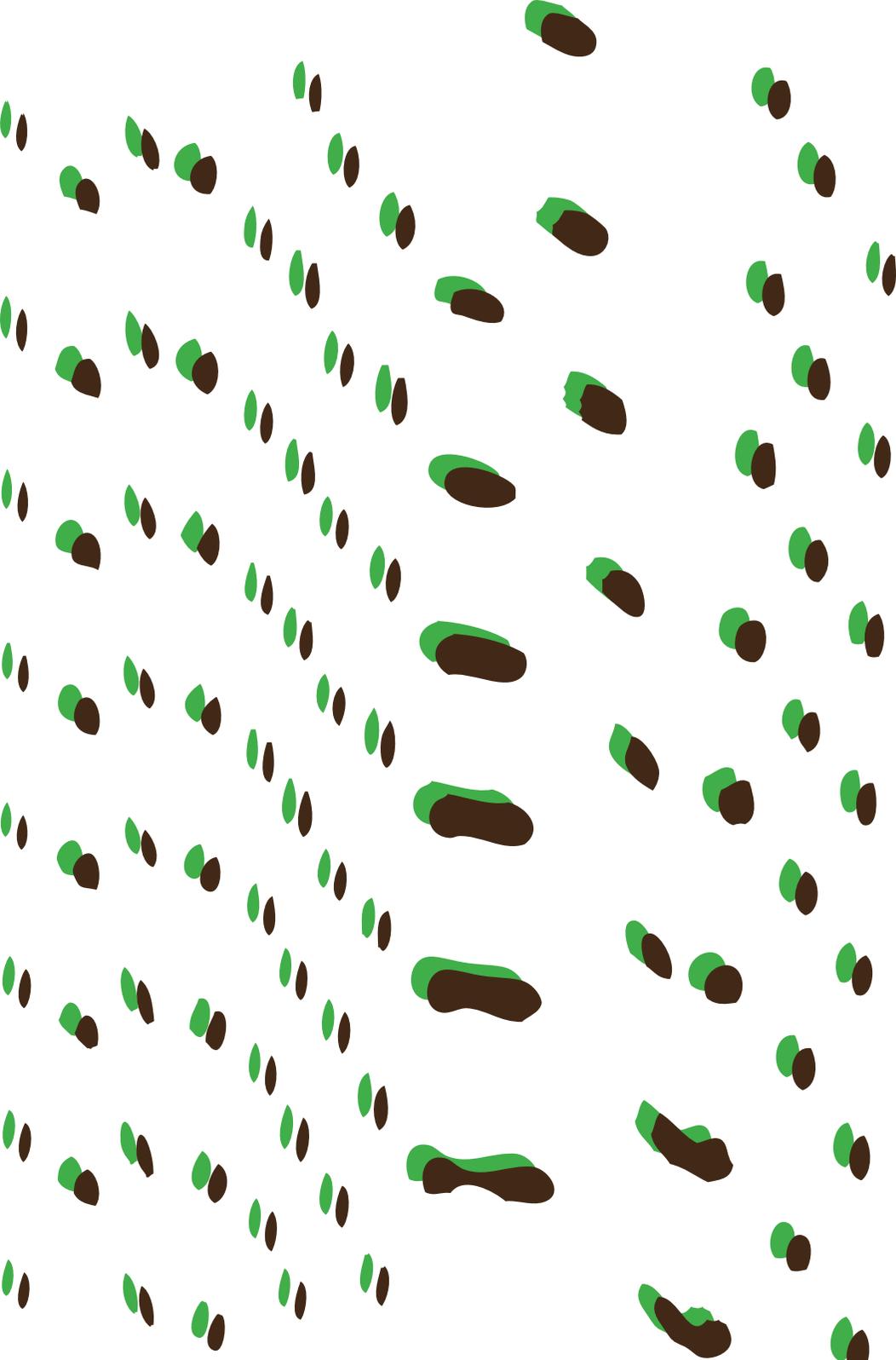
2011년 4월 개편된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원 수는 총 270명이다. 그 이전에 이용하던 사람들도 전부 새로 등록하고 있다. 주 이용자는 하자마을 주민이며, 지역주민들도 이용한다. 2012년 4월부터 무인대출제도를 시험운영하기 시작하여, 6월부터는 무인대출이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자원활동가들의 역할도 변화해 무인대출 시간 동안 들고 난 도서를 처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2012년 12월 자원활동가모임 결과 책방 입구에 있는 비디오 자료를 뒤쪽으로 옮기고,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하자마을책방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자원활동가 활동의 경우 2012년 연중 3회의 모임을 가졌다. 2회는 하자마을책방에서 모였고 1회는 새로 개관한 서울도서관 방문과 함께했다. 책방 앞에 붙인 홍보문을 보고 매년 5명 정도가 새롭게 자원활동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현재 3명의 자원활동가가 힘을 보태주고 있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1년 이상 꾸준히 매월 1회 하자마을 주민들의 사전 신청도 받아 정기적으로 도서를 구입, 작은 도서관이지만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볼 수 있다는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이와함께 정기적인 자원활동가 모임을 통해 일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작은 도서관 운동의 의미도 함께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자원활동가 수가 줄어들면서 상시 도서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인대출제도를 도입해 보았다. 시스템 입력이 아닌 수기에 의한 대출제도이지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희망적이다. 현재 이용자들의 하자마을책방 개선 요구 중 가장 큰 부분은 온라인 상에서 검색기능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추후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돌봄

하자센터는 주류 질서로부터 탈주하거나 소외된 이들에게 삶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삶, 정보와 자원의 공유, 글로벌 시민으로 함께 살기 같은 하자마을의 가치를 함께하는 네트워크 학교들을 길러내고 지원한다.

하자센터의 네트워크 학교 속에는 기존 제도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다양하고 독창적이며 공동체적인 삶과 학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탈학교 십대 중심의 시민문화작업자를 길러내는 하자작업장학교와 도보여행을 다니며 현장 속의 인문학을 몸소 배우는 로드스콜라가 있다. 또한 10대 후반 자립의 시기에 대면하게 되는 생존과 사회적 데뷔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연금술사 프로젝트와 요리를 통해 꿈과 자립을 실현하는 영세프, 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데뷔를 돕는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까지 총 5개의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하자작업장학교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가고 있다. 일하고 살면서 '평생학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고 연습해보고, 또 몸에 익히는 것이 이 학교의 학습방법이고 내용이다. 배운 것을 몸에 익히기, 배우고 알게 된 생각에 맞게 몸을 바꾸며, 관계 맺고 소통하고 일하고 꿈꾸는 몸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자작업장학교다.

more info

사이트 <http://productionschool.org>

로드스콜라

사업이름: 로드스콜라

대상: 로드스콜라의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교육
목표에 동의하는 15~22세의 로드스콜라
3기 & 4기 청소년

진행기간: 2012년 1월~2012년 12월

참가방법: 로드스콜라에 재학 또는 입학

참가비 여부: 등록금(중식비 포함) 및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여행경비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332,500,000원

총 참여인원: 총 33명 (교사 6명, 학생 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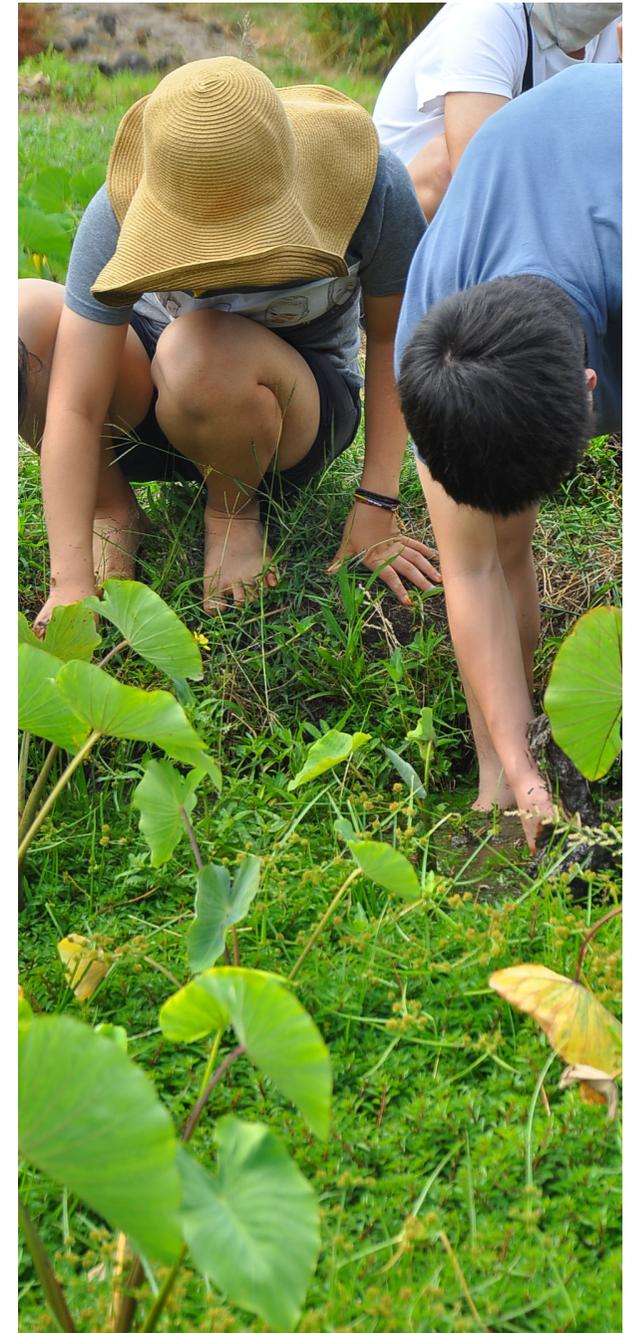
‘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road’와 ‘학교’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schola’를 합친 말로 ‘길 위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는’ 학교이자 여행을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로드스콜라는 총 3년 과정으로, 학습과정(2년/4학기)과 인턴과정(1년/2학기)으로 진행되며, 길머리(1학기), 길가온(2~4학기), 길너머(5~6학기) 등 총 6학기로 이루어져 있다. 2012년 봄학기에는 길가온 과정 2(3기)과 길머리 과정(4기), 그리고 가을학기에는 길가온 과정 3(3기)와 길가온 과정 1(4기)이 각 기수별로 진행되었다. 2012년에는 길가온 과정 1과 길가온 과정 3의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로드스콜라의 학습단계 중 ‘탐색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기획, 운영해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태도와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목적 및 비전

- 여행 속에서 철학과 역사, 인문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한다
- 국내외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연대한다
- 소통과 배려, 즐거운 상상과 창의적 에너지를 가진 스토리텔러를 양성한다
-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세상을 지속하는데 기여한다

what we did in 2012

구분	사업기간	내용
3기 3학기	2월 20일	봄학기 개학파티
	3월 31일~5월 31일	남미 프로젝트(볼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6월 11일	남미 프로젝트 이후 등교 시작
	6월 21일	봄학기 3기 종강파티
3기 4학기	9월 3일	가을학기 개학파티
	10월 10일, 10월 17일, 10월 24일, 10월 31일	공동네트워크 학교 수업(매주 수요일 총 4회)
	11월 15일	여행기획안 발표
	12월 8일	제 1회 로드스콜라 영화제
	2013년 1월 22일~2013년 1월 24일	여행기획 상품 '러닝인부산' 전
	2013년 2월 21일	수료식
4기 1학기	3월 2일	입학파티
	3월 27일~3월 29일	금단재 오리엔테이션
	4월 4일~4월 13일	태백 도보여행
	4월 14일~4월 30일	태백 마을 프로젝트
	6월 21일	봄학기 종강파티
	7월 5일~7월 6일	로드스콜라 통합 M.T.
4기 2학기	9월 3일	가을학기 4기 개학파티
	10월 12일~11월 1일	중국 프로젝트 여행(동북3성, 베이징, 상하이)
	11월 27일~11월 28일	네트워크학교 김장파티
	12월 21일	가을학기 종강파티



세부 프로그램 진행

2012년 봄학기 / 3기 길가온 과정 2

	월	화	수	목	금	
09:40 ~ 10:00	아침모임					
10:00 ~ 11:00	메인 프로젝트	영어	메인 프로젝트	영어	메인 프로젝트 특강	
11:00 ~ 12:30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12:30 ~ 14:00	점심시간					
14:00 ~ 16:00	선택과 집중	메인 프로젝트 특강	메인 프로젝트 특강	영상/디자인		
16:00 ~ 18:00	메인 프로젝트 특강	퍼커션	글쓰기	영상/디자인		

2012년 봄학기 / 3기 길가온 과정 2

	월	화	수	목	금	
09:40 ~ 10:00	아침모임					
10:00 ~ 11:00	영어	영어	영어	영어	걷자	
11:00 ~ 12:30	자치회의	태백 프로젝트	사진	태백 프로젝트		
12:30 ~ 14:00	점심시간					
14:00 ~ 16:00	선택과 집중	우쿨렐레/영상	글쓰기/책읽기	여행인문학		
16:00 ~ 18:00	퍼커션	우쿨렐레/영상	글쓰기/책읽기	특강		



2012년 가을학기 / 3기 길머리 과정 3

	월	화	수	목	금
09:40 ~ 10:00	아침모임				
10:00 ~ 11:00	음반 프로젝트	영상 프로젝트	디자인 프로젝트	전시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
11:00 ~ 12:30					
12:30 ~ 14:00	점심시간				
14:00 ~ 16:00	개인 프로젝트	메인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16:00 ~ 18:00	요가	선택과 집중		요가	

2012년 가을학기 / 4기 길가온 과정 1

	월	화	수	목	금
09:40 ~ 10:00	아침모임				
10:00 ~ 11:00	스윙댄스	중국어회화			이민사 프로젝트 외부탐방
11:00 ~ 12:30	영어	메인 프로젝트	영어	메인 프로젝트	
12:30 ~ 14:00	점심시간				
14:00 ~ 16:00	메인 프로젝트	디자인/포토샵	영상/사진	글쓰기/글읽기	
16:00 ~ 16:00		A, B	A, B	A, B	
16:00 ~ 18:00		디자인/포토샵	영상/사진	글쓰기/글읽기	
		A, B	A, B	A, B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012년 로드스콜라는 3기 재학생들과 2012년 봄에 입학한 신입생 대상으로 여러 프로젝트들을 기획, 운영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태도와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들과 함께 공정여행/책임여행을 하면서 여행의 가치와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문학 철학 수업을 통해서 이들이 자기성찰의 시선을 기르고, 훌륭한 청년 문화작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에서 실험과 모험을 해보았다.

여행을 매개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인식의 틀을 넓히고 깊이 있는 사고능력을 기르는 한편, 여행 중에 함양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직접 영상, 문집, 음반 등을 제작하고, 공연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출연까지 함으로써 문화작업자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는 과정을 밟아보았다.

로드스콜라는 2013년에도 여행을 통해 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재학생인 4기의 경우 여행을 통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를 읽고 동시대와 호흡하는 방안을 찾아보며, 가을학기에는 책과 앨범을 제작하고 공연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2013년 봄에 입학한 5기 신입생들은 여행자의 몸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가을학기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공부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네트워크 활성화와 기자재 보유에도 초점을 둘 예정이다.

more info

사이트 <http://roadschola.haja.net>

블로그 <http://roadschola.tistory.com/>



연금술사 프로젝트

연금술사 프로젝트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는 일'을 통해 사회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거나 드러내는 회사이자 학교이다. 2010년에는 사회적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그리고 2011년부터는 창업을 통해, 구체적인 일과 방법을 배우며 삶을 꾸려나가는 힘을 키우고 있다. 또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재미를 알아가고, 기술과 경영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단골을 만들고 마을과 만나고 있다.

more info

연금술사 창업 1호점 :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즐거운 청(소)년 일터 '소풍가는 고양이'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ogo5090>

영셰프스쿨

대상 : 요리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17~22세 청소년

모법인 :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

진행기간 : 2010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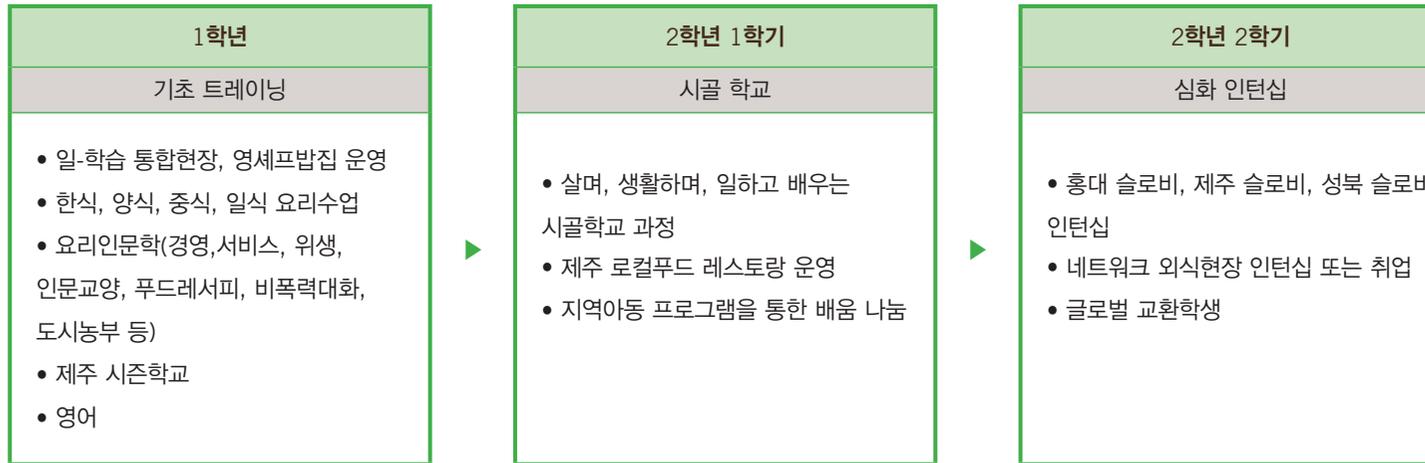
장소 : 하자센터 내 영셰프 밥집 및 본관 105호 교실

‘인생을 요리하는 청소년 요리사’ 영셰프스쿨은 요리를 통한 자립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대안학교다. 공교육보다 직업학교의 배움을 선택하는 청소년, 해체 가정의 청소년, 저소득, 학업중단 등의 이유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자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요리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영셰프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3년의 진화과정을 거쳐 2012년 8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네트워크스쿨로 지정되면서 대안학교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영세프스쿨의 미션

- 영세프 밥집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일하며 배우는 현장학습 모델 개발
- 내/외부 인턴십을 통해 실전 학습 프로그램 구축
- 청(소)년이 운영하는 청년 레스토랑 창업
- 대안적인 외식업의 생태계를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일자리 모델 발굴

학습과정: 주5일 전일제 2년 과정



what we did in 2012

선발인원	9
수료인원	3
인턴 취업 기타	1(중식당 '대상해') 1(영세프 청년레스토랑 창업 스태프) 1(고등학교진학)
사업비	106,000,000원
후원 자부담	49,000,000원 57,000,000원
후원처	하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점 사항	현장 중심의 일·학습 통합 교육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양교육: 경영수업, 회계수업, 쿡_잉글리시, 위생교육, 비폭력대화 - 전공교육: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베이킹, 바리스타, 핑거푸드, 장 담그기 - 시즌학교 (국외 : 라오스 외 2개국 / 국내 : 제주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기부 적극 연계 (중식, 일식, 양식 외 특강다수) - 내부자원 강사 적극 활용 (영어, 실패를 위한 레시피북, 회계, 핑거푸드 등) - 대안장터를 통한 다양한 테스트마켓 참여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하반기 '도시형대안학교' 지정 - 영세프 징검다리 프로그램 '고임돌' 1회 진행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012년, 영세프의 가장 큰 성과는 '영세프스쿨'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영세프가 지속학습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학습의 능동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으로 접근하고자 '프로젝트'로 시작했다면,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통한 사람됨을 가르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학교'를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금 시대 청소년들의 요구이고 흐름이다. 때마침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네트워크학교 지정은 '영세프스쿨'이 학교로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2012년 여름, 베트남의 호아수아학교(HOA SUA SCHOOL), 코토(KOTO), 캄보디아의 프렌즈 인터내셔널(FRIENDS INTERNATIONAL), 피에스이의 로터스블랑(PSE, LOTUS BLANC), 라오스의 푸딘댕유스센터에서 오픈한 카페 줌선(CAFA ZOOMSUN)의 방문으로 '영세프스쿨'이 요리학교이자 직업학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삶이 자원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낮은 자세'와 '가난을 재산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라는 점을 가장 크게 배울 수 있었다.

2012년 7월 고용노동부의 청년 등 사회적기업 지원에 이어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H-온드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영세프 카페테리아팀이 최종 선정되어 1억2천 5백만원의 지원금을 거머쥐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영세프들이 직접 오디션에 참여하여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고, 이로써 제주 영세프 청년레스토랑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과 유자살롱의 유자청 청소년들, 그리고 영세프들의 연합으로 이뤄낸 제주 시즌학교는



안으로는 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을, 밖으로는 제주 가시리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배움나눔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훌륭한 학습 모델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키워가야 할 바람직한 학습의 형태로 평가되었다.

영셰프가 궁금한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인 '고임돌 프로젝트'의 첫 시도가 2012년 하반기 진행되었고, 총 6명의 참여 청소년 중 3명의 청소년이 2013년도 영셰프 4기로 입학하는 성과를 거두어 '고임돌 프로젝트'가 그야말로 영셰프 예비학교로 정착되는 '고임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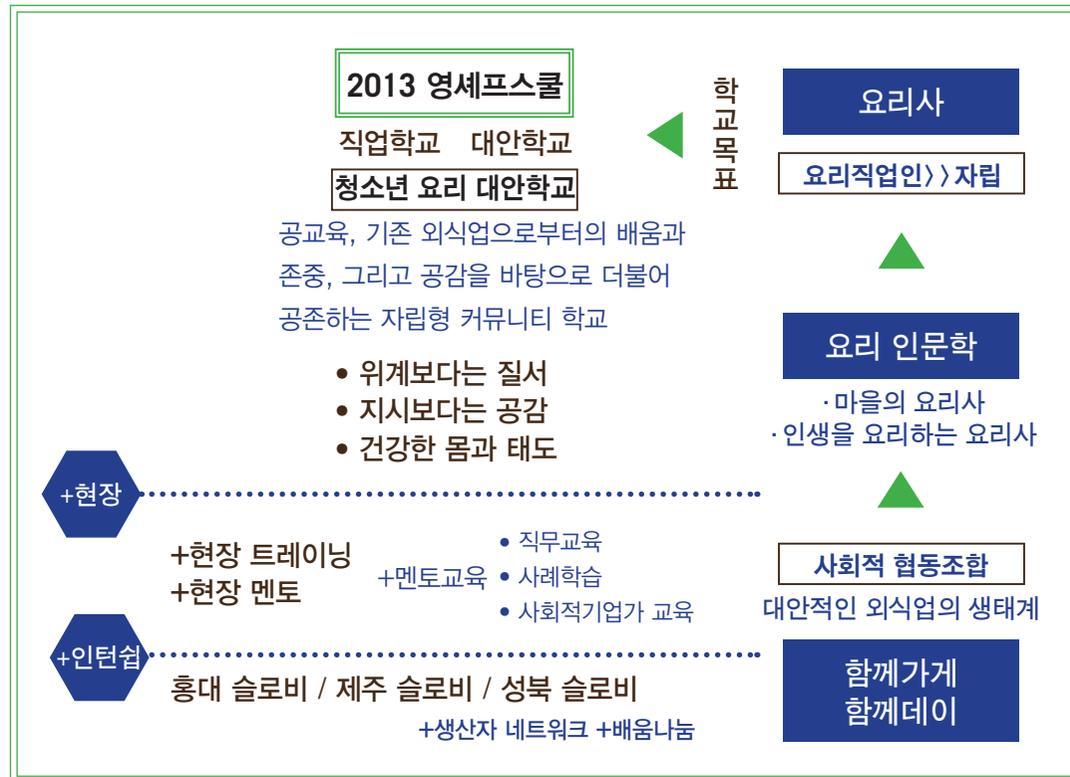
2013년은 영셰프스쿨의 운영기관이자 모법인인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사업 확장과 더불어 '일터가 학교다'라는 모토를 실천할 현장 2곳을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요리인문학을 비롯한 교과연구에 힘쓰고 더불어 학교재정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more info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ngchef8

블로그 <http://blog.naver.com/youngchef>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

사업 이름: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

대상: 만 15~24세, 학교를 그만둔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는 무중력 청소년

기간: 기초반 3개월, 심화반 3개월 과정

기초반 기준으로 4기(2011년

11월~2012년 1월), 5기(2012년

4월~6월), 6기(2012년 9월~12월)

참가방법: 모집기간 중 직접 방문 및 면담

참가비: 월 40만원, 3개월 과정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참가비 조정 가능)

장소: 하자센터 및 외부

참여인원: 한 기수 당 7~8명

학교를 그만두고 할 일도, 소속도 없이 무중력 상태로 지내는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통해 다시금 삶의 의지와 목표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매년 7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두지만 이중 일부 청소년들만 대안교육이나 유학 등의 길을 택할 뿐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

다시 학습과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 무중력 청소년들은 미래의 빈곤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들에게는 당장 학습을 이어가는 것보다 학교에서 제공해 주지 못했던 친구와 일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는 음악활동을 통해 무중력 청소년들이 사회성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들이 무중력 문제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 사회의 가족과 학교, 마을 같은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오는 관계와 존재감의 결핍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오직 학습과 경쟁만 배워온 청소년들은 스스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힘이 부족하다.

음악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놀이다. 무중력 청소년들은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를 통해 친구들과 같이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 지내는 경험을 통해 삶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이런 과정을 거쳐 무중력 상황을 벗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준다.

what we did in 2012

집밖에서유우자적 프로젝트는 기초반 3개월, 심화반 3개월로 이루어져 있다. 한 기당 10명 이내로 진행되며, 기초반을 수료한 뒤 지원자에 한해서 심화반을 편성한다. 월, 수, 금 일주일에 3회 진행되며 악기를 배우는 것과 단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반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달은 집에서 나와 새로운 공간과 사람에 익숙해지고 자기에게 맞는 악기를 찾는 단계. 두 번째 달은 함께하는 친구들과 같이 연주를 시작하는 단계로, 같이 연습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작은 공연에 도전하게 된다. 세 번째 달은 합주에 몰입해 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단계이다.

심화반은 기초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중심을 형성하며 새로 들어온 기초반 친구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기초반과 함께 공연하는 것은 물론 하자 내외부의 여러 행사나 공연에 참여하면서 좀 더 주도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협력의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음악적으로는 연주와 이론 등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다.

2012년 진행상황

- 4기 6명

기초반: 2011년 11월~1월, 심화반: 2012년 4월~6월 진행

- 5기 4명

기초반: 2012년 4월~6월, 심화반: 2012년 9월~12월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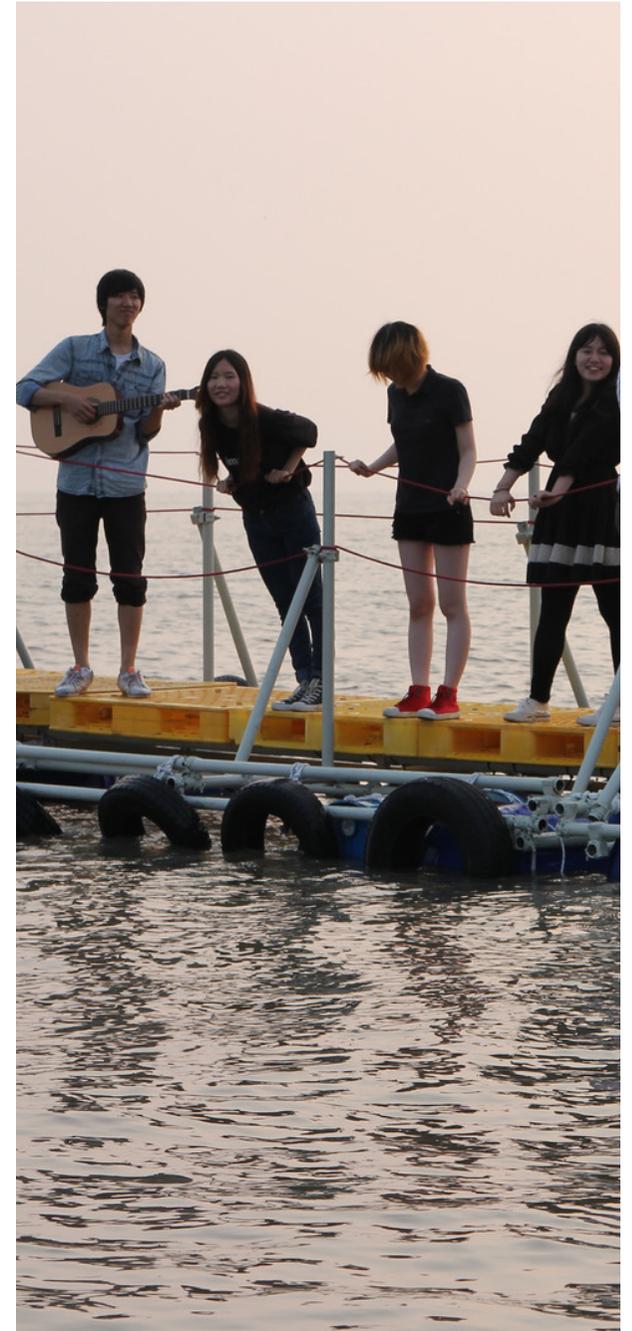
- 6기 8명

기초반: 2012년 9월~12월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집밖에서유우자적 프로젝트의 경우 2010년 1기를 시작해서 현재 40여 명의 무중력 청소년들을 만나왔다. 일부는 기초반과 심화반을 마친 후에 다시 입시 준비를 시작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지만, 많은 친구들은 여전히 집밖에서 유우자적 같은 프로그램과 유자살롱이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연습공간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유자살롱의 구성원으로서 크고 작은 일을 돕고, 자유롭게 연습하면서 지냈다. 음악적인 역량을 키워가던 몇몇 친구들은 서로 밴드를 조직해 공연을 하기도 했고, 유우자적 청소년 밴드(이하 유자청)이라는 이름으로 유자살롱의 밴드인 유자사운드와 함께 공연하고 음악작업을 하기도 하며 서로 성장하고 있다.

집밖에서유우자적 프로젝트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창의적인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음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성격에 가까운 프로그램이지만, 한편으로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악기를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자신의 곡을 무대에서 즐겁게 연주할 수 있도록 실력을 끌어올린다. 이 과정에는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는 유자살롱 스태프들의 다양한 철학과 시각, 에너지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하루하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스태프들은 어떻게 그들의 에너지 레벨에 맞춰 이끌어가는지 등의 노하우를 기록, 축적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런 작업 역시 탈학교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유자살롱의 미션이자 의지라고 생각한다. 유자살롱은 일련의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안을 주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 진행되어 나가는지에 대해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집밖에서유자적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탈학교 청소년들만이 아니다. 20대 초반, 중반, 심지어 후반에 접어든 성인들도 연락을 해온다. 진학했지만 여전히 '무중력'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들 또한 많이 만났다. 유자살롱은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는 이들을 다 포용해 음악을 통한 즐거움이라는 경험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 별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서 현재 무중력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음악 워크숍 프로그램을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more info

공식 사이트 <http://www.yoojasalon.net>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oojasalon>



네트워크학교 실험교실

사업 이름: 네트워크학교 실험교실

대상: 하자 안의 N개의 학교 학생, 교사

진행기간: 2012년 9월~2012년 12월

참가비 여부: 무료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7,239,790원

총 참여인원: 학생 72명, 교사 15명

사업수행 주체: 하자작업장학교

연구 책임: 황윤옥((사)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하자작업장학교가 지난 11년간의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로 운영되어 오면서 축적된 성과를 하자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작은 학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대하고자 출발한 프로젝트이다. 청소년 시민공익학교(크리킨디스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하자작업장학교의 실천적 인문학교실의 콘텐츠와 방법론을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춰 적용하는 동시에 공동의 비전과 자원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하자 내 'N개의 학교'인 청소년 창업/자립학교 '연금술사 프로젝트', 청소년 요리대안학교 '영세프스쿨', 무중력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 여행학교 '로드스폴라' 등이 하자센터 내 자원과 경험을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진화해나갈 수 있는 공동학습 실험 및 공동학습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보았다.

하자작업장학교 설립 당시 IMF 경제위기와 학급붕괴현상이 맞물려 부각되었던 청소년들의 동기 문제는 이제 훨씬 고도화된 청년실업과 저성장의 그늘 아래에서 더욱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금융자본주의의 극심한 무한경쟁과 화력발전예 의존한 인류문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진행되면서 생태주의적 전환과 공생, 지속가능성 추구는 학습과 성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공생과 호혜, 자립과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공공(自助, 共助, 公助)'의 비전을 공유하는 네트워크학교의 설립이 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what we did in 2012

공동학습실험 '몸으로 말하기'

강사: 남정호(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이지은(한국종합예술학교 강사)

1차: 10월 10일 저녁 7시~9시 (신관 4층 하하하하홀, 1층 고양이카페)

2차: 10월 17일 저녁 7시~9시 (신관 4층 하하하하홀, 1층 고양이카페)

3차: 10월 24일 저녁 7시~9시 (신관 4층 하하하하홀, 1층 고양이카페)

4차: 10월 31일 저녁 6시~8시 종합 리뷰 (본관 2층 999클럽)

전체 참여자 56명을 두 팀으로 나누어 1시간 춤수업을 진행하고 1시간은 각 학교별 소개시간을 가졌다.



공동행사 '김장잔치'

김장 1일차: 11월 27일

팀을 나눠 마늘, 파, 무우 등 각종 양념 밑준비와 배추 손질해서 절이기, 배추 겹겹데기로 발 덮어주기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각 학교 학생 및 교사 40여명 참가.

김장 2일차: 11월 28일

오전에는 무, 녹각, 갓, 파 등 각종 양념 채썰기와 절여놓은 배추를 씻었으며 오후에는 속 양념 버무리기, 배추 속 넣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학생, 교사는 물론 하자마을 주민들까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정기술난로로 조리한 수육을 만들어 김장잔치를 했다.



네트워크학교 교사 워크숍

12월 13일~12월 14일 1박 2일 진행. 14일

장소: 경기도 가평 취응예술관

참가: 하자 내 5개 네트워크학교 교사, 운영진 총 15명

네트워크학교의 정체성 논의와 방학중 공동수업, 2013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하자내 네트워크학교 첫 공동수업이 설정한 작은 목표는 각 학교의 학생들이 '만나니 즐겁더라, 또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춤수업 이후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성공을 느낄 수 있었다. 만남과 헤어짐, 시작과 끝을 말이 아닌 몸으로 나누는 춤수업에 학생들은 열광했으며, 지도를 맡은 남정호 선생님의 몸놀림에도 존경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이와 함께 진행된 각 학교의 소개 시간은 노래, 컵케이크 만들기, 제주에서 오픈할 청년 레스토랑 공동 메뉴 작성 등 각 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같이 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서로 좀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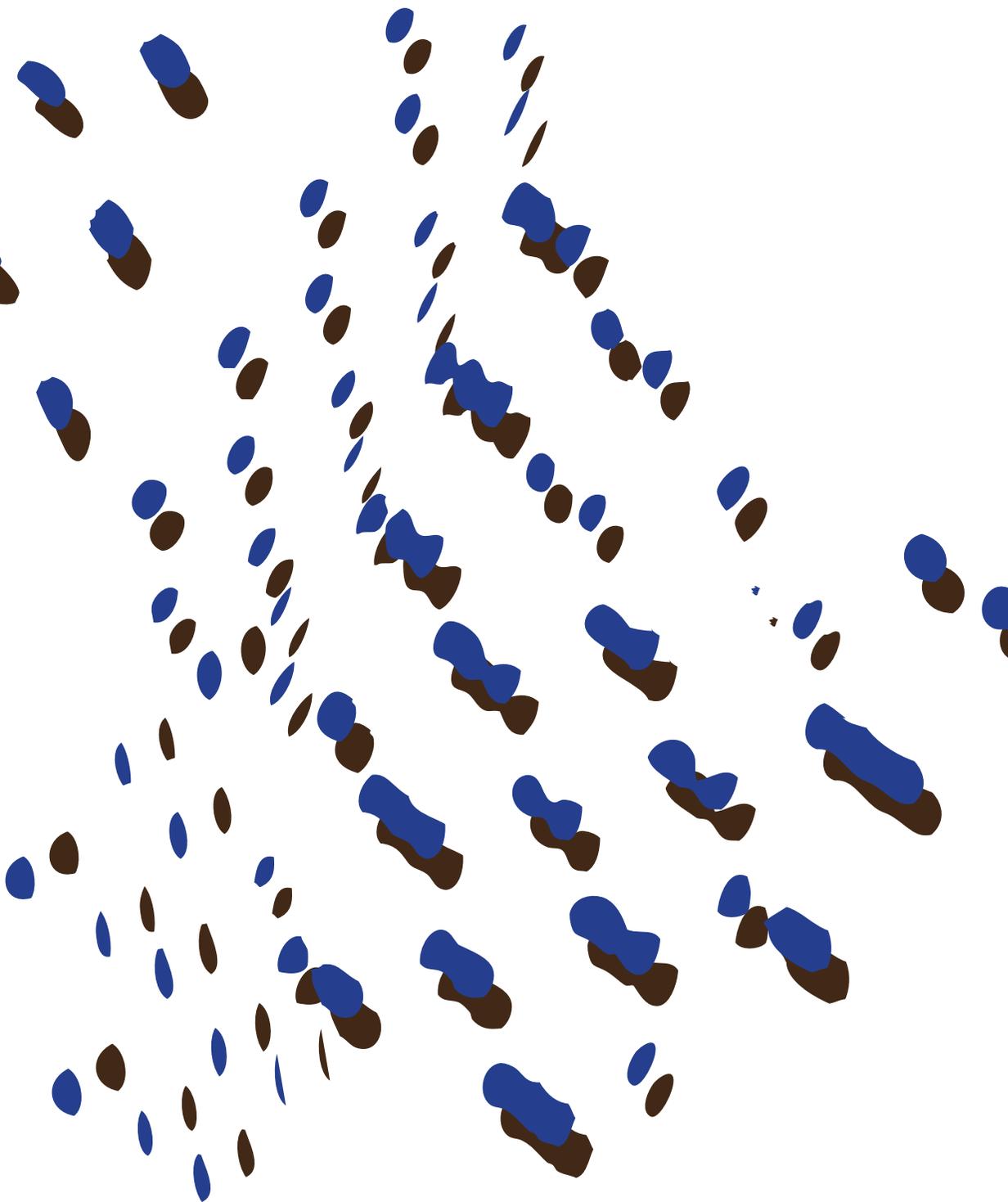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열린 김장잔치는 다듬고 버무리고 설겅이에 뒷마무리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며 끝낸 다음에는 다른 하자마을 식구들도 초대해 마을 잔치날로 만들었다. 이미 공동수업을 함께 한 후 두 번째로 만나는 공동행사여서 처음보다 훨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같이 일하면서 신뢰를 쌓는 기회도 되었다. 네트워크학교 교사워크숍은 그간 월 1~2회 진행하던 교사회의를 종합한 형태로서 그간의 활동과 논의를 평가하고 계획하며 친목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진행된 네트워크학교 실험교실은 하자센터 내 대안교육 경험과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학습조직이 연대하면서 자원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학교는 다른 학교를 적극적으로 초대해 삶과 학습에 관한 청소년과 청년의 동기 문제에 대응하는 공공적 대안 제시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more info

춤수업 등 실험교실 활동 영상 <https://vimeo.com/52909017>





하자센터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네트워크와 교류를 통해 서로 기운을 소생시키고, 상호 돌봄과 협동을 통해 다양한 배움과 활동, 사회적기업 등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장을 열어간다.

'하자마을'에서는 창의적인 에너지가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 경계를 넘어 만나고 결합한다. 개인화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함께 하는 삶'의 기적을 다시 맛볼 수도 있다. 때로는 혼자 작업에 몰입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차를 마시고, 세미나하고, 파티도 하고, 전시하고, 여행 가고, 사업 구상을 할 수도 있다. 이 다양한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구조화되면 곳곳에서 삶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한다.

3.마을

3.마을

하자허브



하자허브

‘하자허브 (haja hub)’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건을 지켜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자센터의 또 하나의 실험으로, ‘자공공-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자공공은 ‘스스로 돕고, 서로 도우며, 공공을 돕는다’는 의미로, 개인을 넘어 이웃과 사람들을 연결해내며, 협력을 통한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가고 실천해가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허브 사업들은 크게 1. 허브 멤버십 2. 커뮤니티 지원사업 3. 학습생태계 조성 4. 허브 네트워크 조성 5. 공방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허브의 기본원리 아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우정과 환대’ ‘돌봄과 상생’의 핵심 키워드를 각 사업을 통해 구현해가고 있다.

허브 멤버십

사업 이름: 허브 멤버십

대상: 개인 및 팀의 활동을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진행기간: 2013년 5월~12월

참가방법: 수시 모집 및 추천 - 신청서 제출 -
인터뷰 - 멤버십 활동

참가비 여부:

- 일반 멤버십 : 자발적 기부(이용료 납부, 재능 기부 등)
- 입주민 : 1인 5만원

장소: - 허브 203호 : 허브 멤버 워크룸
- 허브 301호 : 허브 입주민 워크룸
- 허브 103호, 302호 : 허브 멤버들을
위한 활동 공간

총 사업비: 없음

총 참여인원: 50여명

2012년의 허브는 '자공공-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을 기본 원리로, 이웃과 사회를 연결해내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플랫폼으로 재구성되었다. 허브의 판들은 2012년 하반기까지 '자공공' 개념을 학습하면서, 이에 기초해 여러 가지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동시에 허브의 정체성과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친구들과 단골들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허브 멤버십은 이러한 단골들을 엮는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허브 공간을 기반으로 자발성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려는 개인과 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적은 시간을 들여, 적게 버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동료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적은 벌이의 틈을 메꿔나가는 '3만엔 비즈니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팀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정해져있는 '취직'자리를 찾기보다, '직업'이 아닌 자신과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하자허브를 통해 만들어보고자 했던 것이다.

멤버십은 크게 멤버와 입주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멤버의 경우 워크룸을 자유롭게 오가며 다른 멤버들과 허브의 자원을 통해 다양한 상상력을 얻으며 새로운 일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입주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려는 일의 구상이 있으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자원을 필요로 하는 팀들이 해당된다.

지금은 서울허브를 비롯해서 하자허브와 유사한 공간들이 여럿 생겨나면서, 유/무형의 협력적 공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는 했으나, 자발성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공공의 플랫폼'을 설명하는 것은 초기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운영 초기에는 허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잡지 않았던 탓에 사무실 공유 (share office) 또는 서울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으로 이해한 창업 초기단계의 청년팀들이 잦은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협력과 상생을 기본으로 여러 자원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허브와 같은 공간들이 점차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hat we did in 2012

위에 언급한 것처럼 물리적 공간 지원으로 허브 멤버십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시 인터뷰와 초대를 통해 멤버십을 조금씩 확장해갔다. 팀 구성과 사업 계획이 마련된 팀들의 경우 일정한 활동 기반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3층의 워크룸을 배정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팀들 간 교류와 공유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팀들은 2층의 워크룸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허브를 오가는 사람들을 비롯해 다양한 자원들과의 접점들을 넓혀가며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운영 원리는 '자발적 기부'다. 고정적인 활동공간을 보장하는 입주민을 포함하여 허브 멤버들은 허브를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내지 않고, 각자가 기여할 수 있는 만큼의 재능이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것들로 허브의 비어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채워 나가게 했다. 이를 통해 허브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자공공 계시판을 만들어 멤버들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재능,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멤버들이 호스트가 되는 허브주민파티를 격월로 개최하여 깊이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허브 멤버십 구분

구분	지원내용	멤버십 비용
입주민	- 3층 워크룸(고정 공간 배정) - 공용 회의실(집중 작업 및 회의용)	1인 5만원
멤버십	- 2층 워크룸(자율 이용) - 사물함 - 공용 회의실(집중 작업 및 회의용)	자율적 기부

주요 활동 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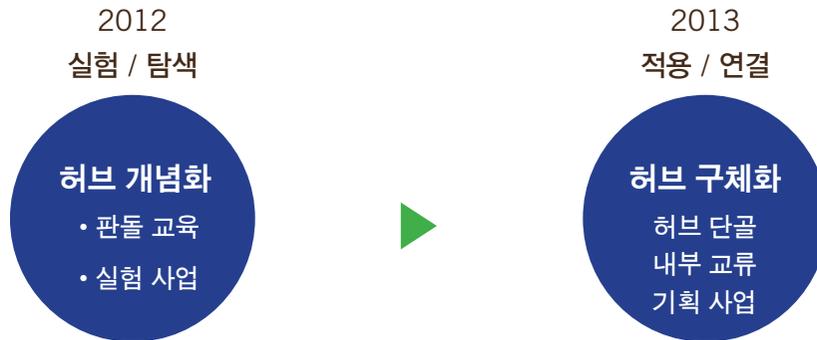
구분	팀명	활동내용
입주민	위누	- 미술 및 디자인계 경력단절 여성들과 작가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어린이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물단	- 마을시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이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생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 프로그램 운영



멤버십	공동육아	- 돌봄이 있는 마을 프로젝트 기획
	플레이 플래닛 (play planet)	-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를 잇는 여행 콘텐츠 개발 및 연계
	어스맨 (earth man)	- 제3세계 상품을 판매하는 공정무역 - 바른 생산과 유통을 통한 지역과 생산자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팀	- 한국과 아시아 인터넷 역사의 중요한 사건 목록을 작성 및 관련된 자료 수집/정리
	00은 대학	- 지역에서 활동할 청년문화기획자를 양성하여 청년과 마을을 연결
	개인	- 웹 기획 및 기타 문화작업자 다수 활동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허브에 있어서 2012년 상반기는 개념을 잡고, 이와 관련된 실험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기간이었으며, 5월부터 진행된 멤버십은 실험기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멤버십의 틀과 기반을 잡아가는 중요한 실마리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멤버십의 경우, 실험기의 경험을 통해 운영을 위한 기본 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 이 부분은 개념에 의존했던 경험들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언어화하고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면 하자허브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넘어 '자공공'이라는 쉽지 않은 개념을 대중적으로 설명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허브의 단골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며, 즐거운 일을 상상하고 꾸밀 수 있는 이웃과 동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멤버십 제도뿐만 아니라 허브를 포함한 하자센터 사업들과의 연계 지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공공아카데미와 재능나눔 워크숍처럼 다양한 층위를 지닌 학습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기획, 진행함으로써 허브로의 유입 경로를 넓히고 단골들을 엮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허브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연계와 학습의 장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은 이러한 고민을 담아 허브를 함께 만들어 가고, 활력을 불어넣을 친구들을 늘려가기 위한 내/외부 연계 사업들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브를 좀 더 가볍게 넘나들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점차 늘려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more info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aja.hub?ref=hl>

허브 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이름: 허브 커뮤니티 지원사업

대상: 이웃과 사회를 연결하는 활동을
준비하는 커뮤니티

진행기간: 2012년 8월~2012년 12월

참가방법: 공모 - 신청서 제출 - 인터뷰 -
커뮤니티 활동

참가비 여부: 없음

총 사업비: 1,138,860원

총 참여인원 : 주 250여명

허브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기본 취지는 허브라는 공간, 특히 카페를 매개로 커뮤니티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 커뮤니티형 카페 운영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으나, 그 실효성 여부로 인해 구체적인 기획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12년에는 시간을 두고 서울시내 유사한 커뮤니티형 카페를 직접 조사하고, 대면하면서 기본 운영안을 준비해 나갔다. 가장 핵심은 운영방법으로 주 1회 순환운영제를 기본으로 하여 3만엔 비즈니스의 구체적 실험을 염두에 두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사회와 연결하고자 하는 커뮤니티들에게 기본적인 활동 공간과 서로를 보듬는 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기운으로 작용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what we did in 2012

세부 운영 개요

참여 커뮤니티 소개

요일	이름	소개 및 참여 취지	내용
화	숨 (SOM)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 창직을 위한 예비 협동조합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계기와 장 제공	창직 여성을 위한 포럼, 워크숍, 소모임 진행
수	(사)어린이 어깨동무	-남/북녘 어린이를 위한 평화활동 사단법인 -기부카페 운영	어린이 관련 전시회 및 평화캠프 기획
목	달달 스튜디오	-시각디자인 작업자 커뮤니티 -시각디자인 작업자를 위한 허브 역할 및 새로운 작업 생태계 만들기	시각디자인 작업자들의 재능과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한 워크숍 기획
금	빨간 뽕데기	-여성주의 미술작가 그룹 -허브 공간을 활용한 미술작가들의 활동기반 제공	주제별 퍼포먼스 및 여성주의 미술작가들의 콘텐츠를 활용한 워크숍 기획
토	순한카페	-음식 순환 관련 대학생 그룹 -허브여름학교 음식그룹의 결과물 및 활동 연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음식 소비모델 연구. 음식을 통한 1인 가구 및 청년 커뮤니티 형성 및 관련 워크숍 기획
일	바우문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과 버마 청소년 지원단체 따비에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룹 -기부 및 청소년의 일교육 과정	대안에너지를 활용한 적정기술 워크숍 및 비전력카페 운영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팀들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씩, 카페 운영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했고, 준비회의에서 희망하는 요일과 운영 내용들을 협의하며, 참여 방식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 이외에 허브 공방 및 다른 공간들을 활용한 자체 사업과 연계 사업의 기획, 진행을 지원했다.

진행 실적
커뮤니티 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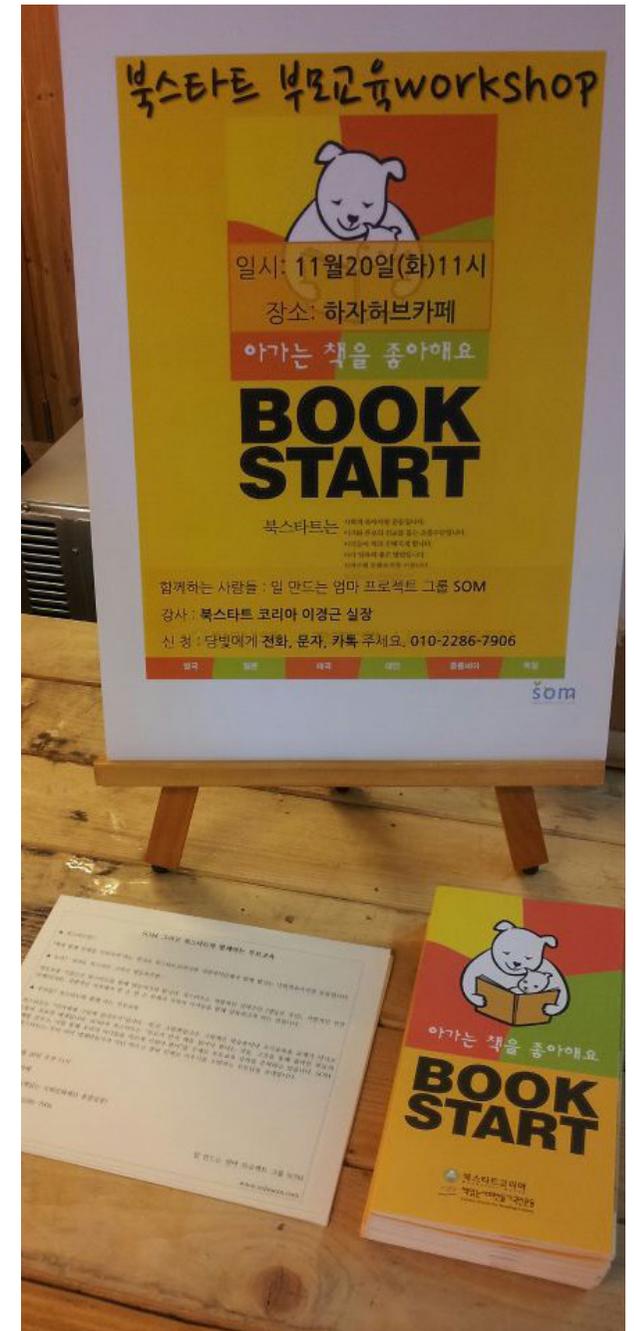
날짜	구분	내용
8월 9일	준비 회의	-담당 요일 논의 -공동 메뉴, 커뮤니티 개별 메뉴, 운영시간 확정하기
8월 15일	준비 회의	-허브카페 정체성에 대한 논의 -각 커뮤니티 별 사업 계획 논의 -카페 이름 정하기
8월 16일	카페 청소	-카페 청소
8월 17일	준비 회의	-외부 연계 논의(연금술사 프로젝트 '달콤한 Co.끼리') -공동메뉴 논의 -공동의 약속 & 운영
9월 5일	운영 회의	-2주간의 운영 소감 나누기 -공동의 약속 재점검과 점검 리스트 확정
10월 24일	운영 회의	-중간 점검 회의 -2개월 간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소감 및 의견 나누기 -허브카페 정체성에 대한 논의 -2012년 12월까지의 자체 계획 점검
11월 8일	운영 회의	-2012년 하반기 운영 리뷰 -2013년 허브카페 운영방향 및 참여 관련 논의
12월 28일	운영 회의	-2012년 허브카페 운영 결산을 위한 마무리 모임 -참여한 커뮤니티별 운영 회고

허브카페 8월 22일 오픈 임박

- 숨 (SOM)** ---
창직 역성을 위한 포럼, 워크숍, 소모임 진행
단호박 스무디, 고구마 라면, 달걀류
- 어린이에게동무**
어린이 위한 청소의 힘 평화캠프 기획
옛날 도시락, 일본식 라면과 주먹밥
- 달달스튜디오**
시각디자인 작업을 위한 허브 역할 및 새로운 작업 생태계 만들기
웹사이트+홈페이지상자, 물감, 아크릴판, 인도시 필크티 짜이
- 빨간번데기** ---
주제별 워크숍 및 여성주의 미술작가들의 워크숍 기획
이브공자, 오곡라미 워 오차즈케, 구운주먹밥 등
- Food circle** ---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음식 소비요령 연구,
1인 가구 및 청년 커뮤니티 형성 및 관련 워크숍 기획
우유콜로이드, 초가리, 달걀류
- 바우문** ---
대안에너지를 활용한 정장기술 워크숍 및 비건에카페 운영
미얀마국수 외 채식 음식

커뮤니티 활동내용

구분	활동내용	외부연계
숨 (SOM)	9월 11일: 일일 워크숍 '친환경섬유와 패브릭 제품 디자인' 9월 25일: 스페셜 테이블 첫 번째 - 북태의 테이블 진행 10월 9일: 영등포지역 엄마들과 함께 하고 있는 북스타트 모임 관련 북스타트 관계자 미팅 10월 30일 -스페셜 테이블: '북태의 테이블' -워크숍: '나만의 월급만들기 프로젝트-건강한 가정재무 스테디' 11월 6일: 스페셜 테이블 두 번째 - 혜영 11월 20일: 스페셜 테이블 세 번째 - 권수나 12월 11일: 영등포지역 엄마들과 함께하는 책모임 12월 18일: 2012 정리모임 준비 회의	-영등포 주민 -북스타트 코리아 -기타 개인작업자
어린이 어깨동무	8월~10월: 북녘 어린이 그림 전시 9월 5일: 평화이음이 자원봉사 및 음식 판매	
달달 스튜디오	9월 20일, 9월 27일, 10월 4일, 10월 11일, 10월 18일: 니트인형 만들기 워크숍 진행 10월 7일: 마을잔치 시범사업 (달달 스튜디오, 허브팀, 소풍가는 고양이) 10월 13일: 2012 서울 마을이야기 먹거리 부스 참여(시청앞 광장) 11월 8일: 니트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12월 27일: 2012년에게 안녕을 고하며 2013년을 열렬히 환영하는 파티	소풍가는 고양이 은퇴 시니어 개인 작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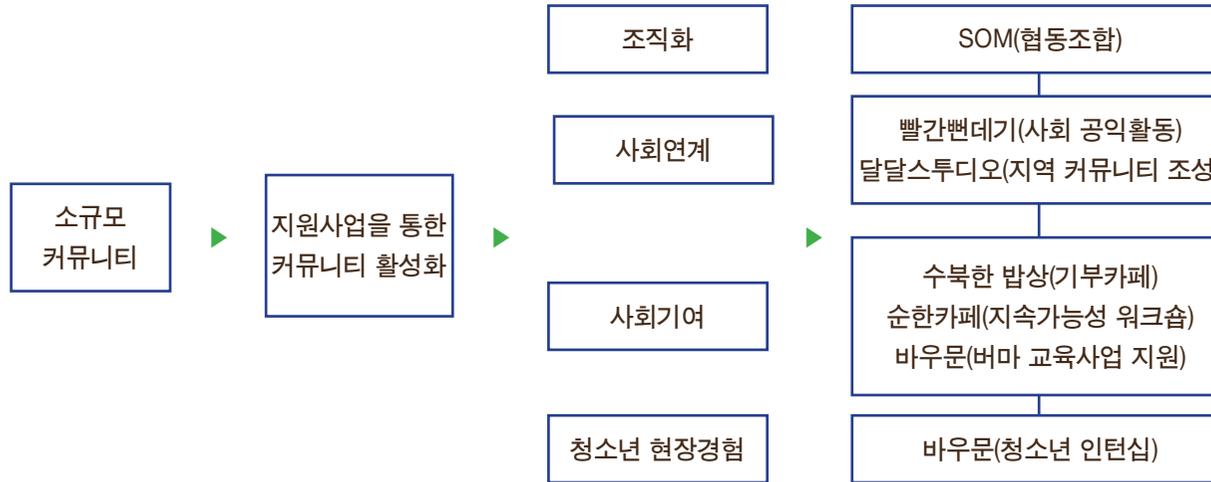
빨간 뺨데기	8월 31일: 첫 번째 빨뺨지 발행 9월 14일: 두 번째 빨뺨지 발행 9월 27일: 세 번째 빨뺨지 발행 10월 5일: 네 번째 빨뺨지 발행 10월 26일: 다섯 번째 빨뺨지 발행 12월 21일: '프라이데이 땀:다방' 전시 오픈파티-우주의 크리스마스	
순한카페	8월 25일: ASK (입양아 연대모임) 후원 (판매액의 10% 기부) 10월 20일: 푸드 저스티스 포럼+데니쉬 디너 11월 24일: 순한워크숍-버려지는 것들로 조명 만들기 12월 29일: 송년 이벤트 '안녕, 다시 만나요!'	ASK 음식 관련 전문가
바우문	9월 9일: 오프닝 행사 및 공연 11월 4일: 적정기술 워크숍(강동난로 만들기) & 캔들나이트 12월 23일: 종강파티 & 클로징파티	음악작업자 개인작업자 따비에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애초 커뮤니티 지원사업에서 의도했던 사업 목표는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관련된 활동들의 사회연결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참여한 6개 팀은 층위는 다르지만 자체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조직화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지역에 연결했다는 점에서 목표했던 지점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활성화와 지역 및 사회연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운영경험을 쌓아야 구체적인 성과 여부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여 커뮤니티 성장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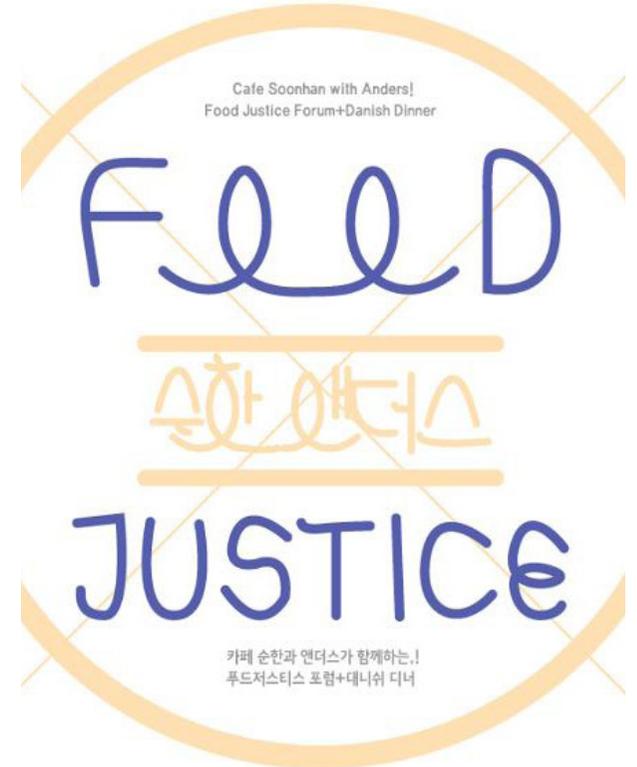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본다면,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그 상징성과 의미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곳곳에 허브 같은 장소를 통해 여러 커뮤니티가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는 주체로서 자치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는 사례의 확산을 기대한다. 실제로 허브카페 사례에 대한 외부의 벤치마킹 및 문의를 통해 사회적 욕구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 그리고 자발적인 나눔과 교류를 통해 마을과 돌봄의 장이 실현되는 곳으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시작한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은 이러한 구상 아래 주체적으로 활동할 사람들과 팀, 그리고 단초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 왔다면, 2013년은 이러한 기반 아래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집중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실험기를 넘어 안정기에 접어든 허브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각 커뮤니티들의 특성을 살린 활동들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와 연결됨으로써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활력을 생산하는 실험들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

2012.10.20 16: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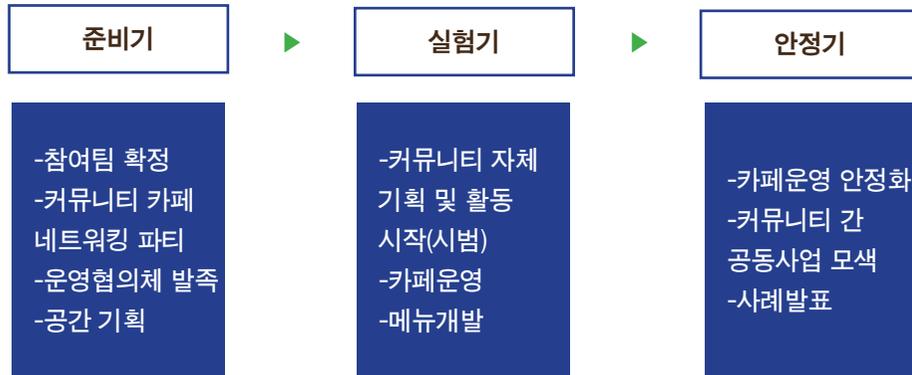
푸드저스티스 포럼 with Anders Riel Muller
 대니쉬디너-대니쉬 버거 + 포테이토 샐러드 만들어 먹
 (2부에만 재료비 5000원을 받습



- ①우리은행 1002-947-046537로 5000원을 입금한다.(2부 참)
- ②foodcirculation@gmail.com 으로 '이름 / 간단한소개 / 손전화번호 / 2부 참가여부'를 보낸다.
- ③10월 20일 토요일, 4시에 하자 허브카페로 온다.

2012.10.20 16:00-18:00

표2) 커뮤니티 지원사업 단계별 도표



구분	활동내용	비고
준비기	-준비기간~초기 약 2주 -공모 일정 진행 -지원사업의 기초가 되는 카페 운영을 비롯한 일머리를 익히는 단계	기본 매뉴얼 마련
실험기	-시작 후 약 2달간 -카페를 매개로 하는 음식 개발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단계 -자체 기획사업 시작 (시범)	운영일지를 통한 상황 공유
안정기	-본격적인 커뮤니티 활동 단계 -커뮤니티 간 공동사업 모색	



more info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AJAHUBCAFE?ref=hl>

하자허브 여름학교

사업 이름: 하자허브 여름학교

‘지속가능한 도시를 디자인하자!’

대상: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진 20대 (20~29세)

진행기간: 2012년 7월 2일 ~ 8월 3일 /

주 5일 오전 10시~오후 6시 (8시간)

참가방법: 참가신청서와 사전워크숍을 거쳐 참가

참가비 여부: 1인당 350,000원

장소: 하자허브 101호 워크룸 외

총 사업비: 지출 5,500,000원 / 수입 4,200,000원

총 참여인원: 12명 (연인원 300명) /

결과발표회 : 60명 참석

하자허브 여름학교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디자인하자’는 주제로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를 훈련하는 학습 프로그램이다.

‘디자인사고’는 불명확한 생각과 정보들을 창의적으로 조직하는 다양한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말한다. 문제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조사·분석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결과물로 현실화하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걸쳐 활용된다. 활용되는 분야도 기획, 디자인, 비즈니스, 사회혁신 등 폭넓다. 전문영역 안에 고립되는 것을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만나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것, 책상 앞에서만 궁리하는 것을 넘어 몸을 움직이고 직접 조사·실험하며 활동하는 것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카오스필로츠(Kaospilots)’(덴마크), ‘노매드(Knowmads)’(네덜란드) 및 사회혁신디자인을 하는 비영리 기관 ‘인덱스(INDEX)’(덴마크) 등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자허브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나의 문제가 곧 우리/사회의 문제임을 깨닫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기획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름학교를 기획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했다.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현재를 탐색하고, 디자인 사고 워크숍과 강의, 리서치를 통해 도시 생활의 다양한 요소들을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현실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거나 직접 진행해보는 것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이자 학습으로 기획한 것이다.

what we did in 2012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 에너지, 음식, 쓰레기처리, 주거, 교통, 삶의 질 등을 위한 기반시설 요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전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40%가 서울에서 소비되지만, 서울은 자신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1% 정도만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변화시킨다는 차원에서부터, 도시 안에서, 그리고 대도시와 지역이 관계 맺고 있는 방식 안에서 더 정의롭고 생태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넘어서, 사회적 분배와 재생산의 문제, 경제와 문화, 역사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수강생들은 디자인사고 워크숍과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다양한 강의에 참여하면서, 그룹별로 스스로 문제와 미션을 설정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갔다. 여름학교가 진행되는 5주에 걸쳐 열린 디자인사고 워크숍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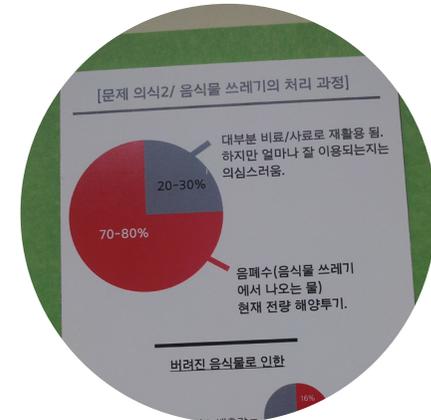
디자인사고 워크숍 리스트

- 개인별 학습목표 세우기 : 개인별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 현재와 목표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 목표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도전과 위협요소를 적는 템플릿을 이용해 학습목표를 세우고 어드바이저와 1:1 면담을 가진다.
- 월드카페 :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물, 주거, 에너지, 교통, 음식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9가지 키워드로 월드카페를 연다. 월드카페는 대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다.
- 그룹 만들기 : 월드카페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사에 따른 그룹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한다. 주제별로 너무 많거나 적은 인원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성원들이 가진 경험이나 기술을 그룹별로 적절히 안배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디자인사고 워크숍 :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우리의 경험 속에선? 실패한 프로젝트 경험은? 프로젝트가 가져야 할 것과 가지면 더 좋을 것들은 무엇인가? 질문과 사례를 통해 '프로젝트'를 이해한다.
- 프로젝트 리더십 워크숍 : 리더란 무엇인가? 나는 리더인가? 주변에 좋은 리더의 사례는 누가 있는가? 리더십은 무엇인가? 게임과 토론을 통해 리더십을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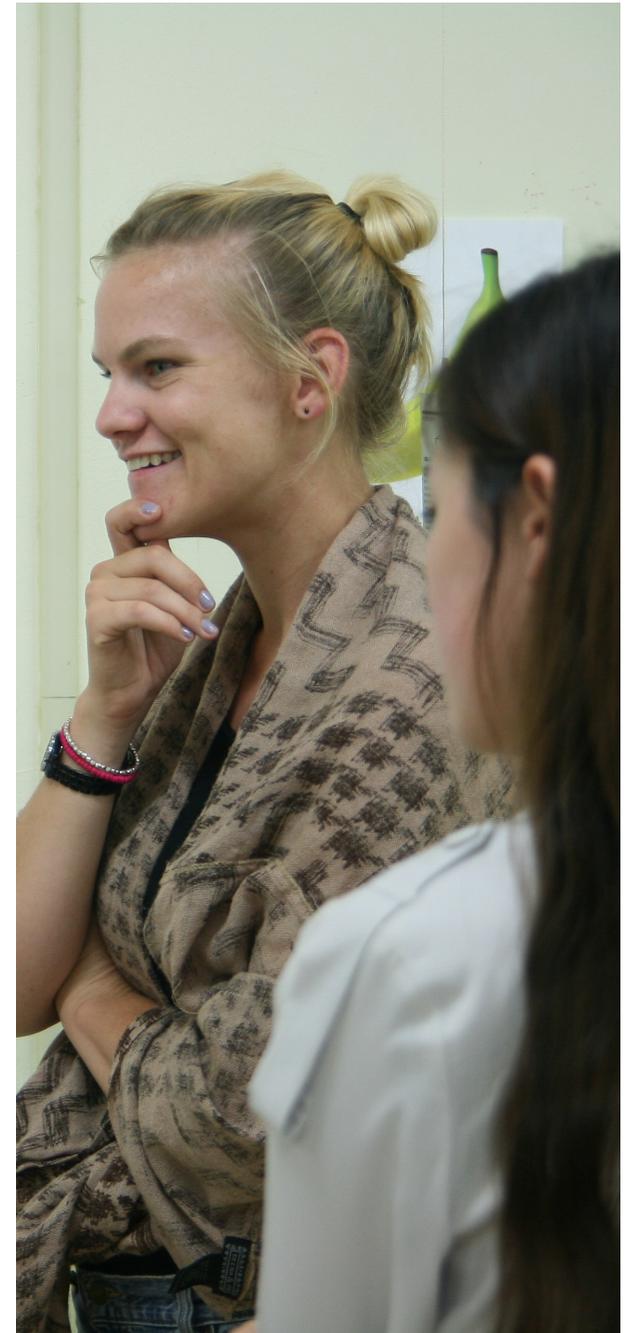
강좌, 투어, 라운드 테이블 리스트

- 라운드 테이블 '서울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고민은?' / 서왕진 (서울시 정책특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서울시에서 환경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우리가 평소 생각해왔던 이슈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다.
- 서울투어 '청계천 녹조투어' / 박은선 (리슨투데이 시티 디렉터) 우리의 삶에 하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도시에서 하천이라는 것, 강이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자연과 도시의 관계는 무엇일까? 몇 년 전 '복원'된 청계천에서 출발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동대문까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 '2050 한국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시나리오 만들기' / 이상훈(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 한국사회의 조건들이 어떻게 변하면, 석유고갈과 핵에너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100%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2050년 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나보고, 우리들 각자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았다.
- '지역 활성화와 커뮤니티 만들기' / 코토부키 크리에이티브 액션(Kotobuki Creative Action) 일본의 급격한 산업화시기, 공장지대 노동력 공급을 위해 1만 명 가까운 일용직 노동자 대상의 저렴하고 임시적인 숙소로 번성했던 코토부키 지역. 버블경제가 막을 내린 후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쇠퇴해버린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계획 전문가와 아티스트들이 모여 만든 코토부키 크리에이티브 액션의 경험을 나누었다.
- '내 생활 속의 탄소발자국은 얼마나 될까?' / 임송택 (에코네트워크(주) 대표) 자판기 종이컵 하나의 무게는 5g. 그러나 자판기 종이컵 하나가 만들어지고 폐기되기까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12g이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이동하고 생활하며 일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될까? 또한 이런 활동이 기후변화라는 현상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nalysis)를 통해 알아보았다.
- '디자인이 어떻게 도시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 임의균 (디자인그룹 슬로워크 대표) 디자인이 친환경 인재를 만드는 것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공간과 동선을 설계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데까지 디자인의 역할과 상상력이 확장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았다.
- '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한국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40% 가량이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서울은 자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단 1%도 직접 생산하지 못한다. 세계적으로도 대도시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 에너지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의



활동이 다른 지역에, 그리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12명의 수강생들은 서로 겹치는 관심사를 찾아 프로젝트를 함께 할 그룹을 만들었다. 음식, 주거, 물을 주제로 세 그룹이 만들어졌다. 디자인사고 워크숍과 지속가능성 분야 활동가들의 강의,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한 리서치와 인터뷰, 실험으로 그룹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었다.
- **음식 그룹**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뉘면서 생겨난 식량의 과잉 소비와 폐기,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배송되며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문제를 포착해, 도시 안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한 뒤 퇴비화를 통해 다시 먹거리를 길러내는 순환시스템을 실험해보고자 했다. 1주차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2주차에 문래도시텃밭, 이웃 람랄라 등 현재 도시텃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곳을 방문 조사했다. 3주차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이주민 문화예술센터 '프리포트(FreePort)'의 베란다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직접 시도하는 지렁이집 실험을 시작했다. 지렁이집을 보급해 가정에서 퇴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는 이미 환경단체 등에서 시도되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으나,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안 된다' 결론내려 포기하기보다, 실패하더라도 직접 실험해보고 경험을 얻어 다음 단계를 고민해보기로 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프리포트'가 있는 홍대의 인근 카페들을 찾아가 음식물 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작은 캠페인을 하기도 했다.
- **주거 그룹**은 도시 내 공공 공간의 부족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브레인스토밍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서로 돌보는 '마을'이라는 개념이 부재한 도시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거주자를 고려하지 않는 재개발 계획이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주민으로 만들고, 있던 커뮤니티마저 붕괴시킨다는 생각으로 '대안적인 재개발 방향'을 그룹의 주제로 삼았다. 그러던 중 이태원의 '해방촌'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방 직후 형성된 오래된 거주자들의 커뮤니티와 외국인 커뮤니티,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빈집'을 운영하며 새로운 주거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따로 또 같이 어우러져 그들이 살고 있는 해방촌을 사례로 마을에 대한 생각과 재개발의 대안을 고민해 발표했다.
- **물 그룹**은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도시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뒤덮여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가 사라진 요즘.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증가해 집중호우의 강도와 횟수가 늘어나자, 서울에서는 두 해 연달아 도심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물 그룹은 1주차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에 빗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도시농업 등에 이용하는 대안을 고민했다. 그러나 빗물저장소를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계절에 방치되면 쓰레기통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등 다양한 피드백이 돌아오자 프로젝트의 방향을 다시 모색하게 되었다.



•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대책은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고, 대형 빗물저장소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빗물 하수도를 넓히고, 물이 흡수되는 보도블럭 등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물 그룹은 많은 예산과 새로운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빗물이 흘러드는 서울, 녹지가 많아진 서울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간을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큰 힘을 가진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상습 침수 지역인 광화문에서 침수대책으로서 녹지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수강생들은 마지막 5주차에 결과발표회를 열어, 그룹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다. 이들의 그룹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 여름학교를 마무리하는 결과발표회에서 몇몇 수강생들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지만,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것'에 프로젝트의 의미를 부여했다. 기대만큼 실험적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패를 경험해본다'거나 '아래로부터 위로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의미있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경제 및 사회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삶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저성장 고실업 세대로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내 주변을 돌보며 자활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이를 가능케 하는 장소와 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의 파괴로 갖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지만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버린 지역에는 이를 변화시킬 청년들이 필요하다. 자기 삶과 사회의 연결망을 이해하며,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구체적인 작업과 일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계기들이 생겨날 수 있길 기대한다.

More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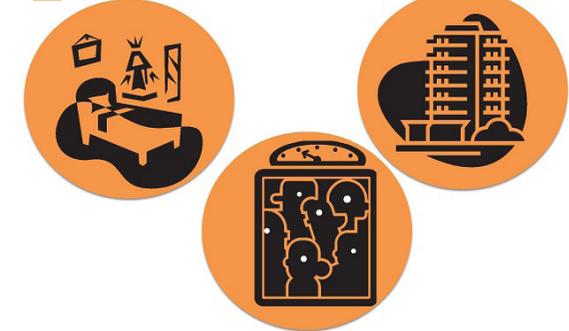
하자허브 여름학교 블로그 <http://hajahubacademy.tumblr.com/>

수강생 모집공고 <http://www.haja.net/?p=3215>

강사 및 세부프로그램 소개 <http://www.haja.net/?p=1498>



↑ 서울의 주거문제 - 소외 Housing problem 'estrangement' from our life



자공공 아카데미 1기

사업 이름: 자공공 아카데미 1기

‘사회와 공간 큐레이터 학교’

대상: ‘자공공(自共公)’의 삶을 지향하는

20~50대 (50명)

진행기간: 2012년 10월 31일~12월 12일 /

매주 수요일 저녁 6~9시 (7주간)

참가방법: 전체강좌 수강 / 개별강좌 선택 수강 가능

*전체강좌 수강자는 별도 토론시간 참여

참가비 : 전체수강 50,000원 / 개별강좌 5,000원

장소: 하자허브 203호 워크룸

총 사업비: 지출 7,780,800원 / 수입 : 840,000원

총 참여인원: 매 강좌 50명

자공공 아카데미는 전지구적 차원의 경제위기와 환경위기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스스로를 돌보고, 서로를 도와, 공공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공유의 감각과 협력의 태도를 길러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학습을 하며, 공공성과 협력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기른 다음에야, 그 다음 걸음으로 구체적인 일과 변화를 궁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직접적으로는 청년활동의 지형도를 그려본 청년난감모임, 새로운 에너지를 모색하는 이들이 모이는 심심모임, 직업적 성취와 대안적인 삶의 선택 사이에서 불안을 말하는 30대 여성 난감모임을 열어온 허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의 변화에 관심과 의지를 가진 이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장을 열고자 기획되었다.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의 줄임말인 ‘자공공’은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며, 공공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넓은 차원에서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의 협력과 지혜로 지속가능한 마을과 사회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자공공’의 원리는 하자센터와 하자허브의 새로운 운영철학이기도 하다.

자공공 아카데미 1기의 주제는 1) 관민협력, 소통과 화통 2) 사회경제 3) 사회 큐레이팅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보면 관과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정말 화통한 소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 기존의 경제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꿈꾸는 이들이 상상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기획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큐레이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사례를 소개하자는 목적이었다.

what we did in 2012

첫 번째 ‘관민협력’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1강과 4강에서 각각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여성 1인 가구 지원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개별 주체의 자유를 성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와 사회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 경제’와 ‘사회 큐레이팅’은 2,3,5강에 걸쳐 논의되었다. 스스로 서고 서로를 살리는 경제, 누가 진정한 부자인지를 이야기하는 사회적경제의 방향을 넓은 의미에서 탐색해보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경제 논리를 둔 공간, 예컨대 등가교환 대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 받는 길종상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기 마을을 떠나는 대신 마을 작업장에서 손기술을 익히며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땅콩밭(땅콩집 30여 채, 60여 가구가 모여 만드는 마을), 관이 마련해준 비어있는 땅에 시민들의 자치로 내용을 채워가는 공간,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교육에 투자하는 대신 모든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서관을 열어가는 마을 등 사람들의 맘과 고민이 쌓여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다. 누가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떤 철학과 능력,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 열심히 관찰하고 질문해보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6강에서는 사회 큐레이팅에 앞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나와 내가 속한 세대의 변화를 정신분석의 틀거리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제목	초대자
1강(10/31)	‘관민 협력, 소통과 화통 : 마을공동체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김태균(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2강 (11/7)	‘작업장, 단골경제, 그리고 마을 : 땅콩집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욱(땅콩집 건축가), 이경일(월간<건축문화> 편집장)
3강(11/14)	‘공간을 통한 사회 큐레이팅’	안상수(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박길종(길종상가), 이강오(서울시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4강(11/21)	'정책과 현실의 만남 : 여성 1인 가구 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채혜원(여성가족정책실 홍보담당) 황은진(전인한의원장, 여성조기축구팀원)
5강(11/28)	'누가 부자인가? 무연·단속사회를 넘어'	김영배(성북구청장), 문종석(서울시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박영숙(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6강(12/5)	'자기에 세대를 위한 정신분석 : 퇴행과 고착, 그리고 전이'	맹정현(정신분석학자, <리비돌로지> 저자)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정승화(연세대 사회학과)
종강(12/ 12)	아카데미 1기 마무리 파티 '엮이고 엮는다는 것, 판을 짜고 돌린다는 것'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자공공 아카데미의 정규 수강생 중에는 30대 여성, 농사, 대안교육, 비혼 공동체 등에 준거를 둔 활동가들도 있었고, 이제 막 사회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대학생들도 많았다.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 중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시작했다'는 길종상가의 이야기나, '바람맞는 데 익숙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다보면, 사람들이 천천히 그 공간에 찾아오고 머물게 된다'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이야기는 이들에게 새로운 공공지대를 상상하는 영감이 되었다.

자공공 아카데미 1기는 허브 스태프들에게도 중요한 학습의 기회였다. '자공공'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하자센터의 새로운 지향점과 가치를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시간이었고, 허브가 시도했거나 실험하고 있는 활동에 담긴 운영원리와 철학을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2013년도에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자공공 아카데미 2기가 열리게 된다. 하자센터 안팎의 다양한 세대그룹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more info

자공공 아카데미 블로그(영상 강의록 링크) <http://jagongong.net/>
수강생 모집공고 <http://www.haja.net/?p=2520>



청년난감모임

사업 이름: 청년난감모임

대상: 청년 당사자 운동을 하는 여러 그룹과
전 세대에 걸친 활동가, 장인 등

진행기간: 3월 14일부터 4주간 매 수요일

참가방법: 이메일을 통한 초대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허브 203호

총 사업비: 7,000,000원

총 참여인원: 280여 명

“함께 차를 마시며 난감함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모임”

하소연하는 자리도, 가르치려는 자리도 아닌, 무라카미 하루키가 ‘요상한 민주주의’에서 표현한 바, ‘함께 차를 마시며 난감함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밀어붙이지 않는 것,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원탁회의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공감대를 갖고 시작하는 모임이었다.

일이란 무엇인지,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며 단골과 마을, 자조와 공조, 그리고 ‘성스러운 것’을 떠올려보기 위한 자리, 후기/탈 근대를 살아낼 협업의 공간과 다양한 ‘도시 부족(urban tribes)’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전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발제자들을 초대했다. 주로 청년 당사자 운동을 하는 그룹과 여러 세대에 걸친 활동가, 장인들이 모였고 한 세대, 한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는 난감한 시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세대와 분야를 넘어 지혜를 모아보는 원탁모임으로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what we did in 2012

청년난감모임은 3월 14일 수요일을 첫 모임으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저녁 6시, 허브 203호에 모여 우선 따뜻한 저녁을 함께 하며 워밍업을 한 후 본격적으로 주제별로 초대된 발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모임은 조한(하자센터 설립자,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난감함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수다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열었으며 모임에 초대된 사람들이 자기소개와 함께 요즘 각자가 느끼는 '난감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자리에 참석한 '청년유니온',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신진다큐모임'의 이야기는 세대론에 대한 생각, 청년의 일과 삶, 세대간의 소통,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연세대 문화학과 김현미 교수의 여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공동체, 공동주거, 자활, 결불찌기, 장소성 등의 이슈를 설정, 인문학공동체 '헛간', 해방촌 '빈집', '골목바람', 정릉생명평화마을, 배재훈 님까지 다섯 팀을 만나보았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청년활동의 '매개', '미디어'를 주제로, KAIST 정철 박사의 여는 이야기에 이어, 지역화폐 '한밭레츠' 팀과 독립잡지 <헤드에이크>, <싱클레어>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 돈 벌려고 하는 일 외에도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 나를 위해, 혹은 공동체나 타인, 사회를 위해 우리 스스로 구상하고 실천하는 자발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 일로 잘 매개할 것인지 상상하게 된 시간이었다.

네 번째 모임에서는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 온 더 체인지 하승창 대표가 여는 이야기를 해 주고, 희망제작소 배민혜 연구원의 '천 개의 직업' 프로젝트, 청년 정도회 이효상 팀장의 청춘콘서트 사례를 들은 뒤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사자 활동들이 흐름을 타고 퍼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결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청년난감모임'은 청년들의 '시대적 난감함'을 공유하고, 대안적 청년활동의 지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일시적인 해답보다는 각자가 처한 현실 상황에 대한 공유를 바탕으로 천천히 함께 고민해나갈 수 있는 대안적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청년 난감모임을 찾은 청년들은 당사자 그룹들의 이야기를 두루 듣고, 또 발화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 에너지를 얻고



돌아갈 수 있었다. 또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다른 세대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다. 청년난감모임이 끝나고 이뤄진 평가모임에서는 청년들이 서로 만나고 공동의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과 강좌를 허브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를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꾸려나갈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활동 조직들이 자유로운 공간과 협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는 허브 워크룸에 연결하고, 청년들의 자치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을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멤버십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모임의 기록은 발제 자료와 함께 다듬어져 간략한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more info

하자허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aja.hub>



30대 여성 난감모임

사업 이름: 30대 여성 난감모임

대상: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난감함을
공유하는 여러 세대

진행기간: 2012년 10월 14일~10월 17일

참가방법: 이메일을 통한 초대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허브 203호

총 사업비: 950,500원

총 참여인원: 50여명

허브는 다양한 세대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 상반기에는 청년들의 난감함을 주로 들어보는 '청년난감모임'을 열었다면, 하반기에는 '30대 여성 난감모임'을 통해 이들이 겪는 '커리어' '결혼' '육아' '자살' '우울' '연애'라는 주제를 새롭게 보고, '쉐어 하우스', '잡 쉐어링', '자율적 노동', '새로운 공동육아와 대안적 커리어' 등의 대안으로 논의를 넓혀가고자 했다. 30대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 난감함을 공유하고, 급하게 방안을 내기보다는 우선 공유하는 자리로서 모임의 지향점을 설정했다.

현재의 난감한 상황을 타개할 핵심 주체들은 아직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자율성과 급진성, 그리고 성찰성을 가진 여성들, 아직은 '덧'에 완전 걸려들지는 않아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여성들은 분명히 있다. 그들이 누군가와 손을 잡을 때 가능한 변화들을 그려보면서 마음으로 모이는 시간, 더 이상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할 사람들로서의 대화를 기대했다. 또한 이 모임이 잘 되면 공공자원과도 연결하고 사회 인프라를 바꿀 정책 제안도 해볼 수 있다고 보았다.

what we did in 2012

30대 여성 난감모임은 준비모임을 포함하여 세 차례 진행되었다. 10월 14일 첫 모임은 출세와 성공을 위해 경쟁에 유리한 몸을 만드는데 주력하던 기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아 천천히 살기를 선택한 '다운쉬프트족 (Down Shift)'의 이야기로 물꼬를 틔웠다. 첫 번째 모임은 심심모임과 더불어 진행되었으며, 기존 심심모임 참가자들과 허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전주의 '비혼여성들의 비행' 팀과 제주도에서 공동생활하는 팀을 비롯해 멀리 강원도 횡성이나 충남 홍천에서도 참여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안공동체, 생태주의와 귀농·귀촌 등에 관심이 많은 비혼여성들이 주 참여자였다. 이어서 10월 17일에 열린 두 번째 모임에서는 사회인이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여성, 비혼여성, 출산 후 양육을 하고 있는 여성,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중인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의 30대 여성들의 난감함을 나누는 자리였다.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데서 오는 난감함과 피로를 털어놓고, 신자유주의 이후 높아진 노동강도와 고용불안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불안감과 위태로움을 나누었다. 10월 14일과 10월 17일의 모임은 참여자들의 성격도, 오고가는 이야기들도, 모임의 분위기도 상당히 달랐으나, 두 모임 모두 관심과 열기가 높았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10월 14일 첫 번째 모임의 경우,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셨다.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이들이 망라된 소중한 기회였는데 시간 등 여건상 모든 참여자가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흩어져 아쉬움이 컸다. 앞으로 하자허브는 다양한 세대들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후속작업을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모으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10월 17일 모임이 열렸던 수요일 저녁의 경우 30대 직장여성들이 오기에 그리 편한 시간은 아니었기에 10월 14일 일요일 모임에 비해 참여자 수가 적었다. 발제자 중 한 명은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일찍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모임의 특성을 고려한 날짜 선정이 원활한 진행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3년에도 하자허브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세대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기록, 공론화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가정일과 직장일 사이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30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더 모아 작은 책자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more info

하자허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aja.hub>



심심모임

사업 이름: 심심모임

대상: 심심한 일요일을 보내고 싶은 누구나

진행기간: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하루, 일요일

참가방법: 이메일을 통한 초대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허브 1층 허브카페

총 사업비: 200,000원

총 참여인원: 400여명

“우리는 지금 가만히 멈추어 서서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

허브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일요일, 바쁘고 피로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심심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인공이나 관객, 주빈 등의 개념이 없이 기존 성과주의 사회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는 다르게 ‘별일이 없이’ 만나는 새로운 만남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모임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했다. 음식도 한 접시씩 가져오고 서로 요가를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막간의 심심함에서 피어나는 창조적 활동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된 것이 심심모임이다.

what we did in 2012

‘성과없는 성과주의’ 사회의 회로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삶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되어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심심한 배려에 기반한 ‘느슨한 공동체’의 기운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4월의 첫 모임은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둘러 앉아 서로가 가지고 온 군 고구마, 과일, 음료 등을 나누면서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낮잠도 자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함께하면서 두런두런 봄기운을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5, 6, 7월에는 본격적으로 야외에서 요가도 하고, 지방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초대되어 유부초밥과 퀘사디아등 각자 가져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느슨한 공동체’ 생활에서 갖게 된 단상을 나누었다. 8월에는 ‘쭈마네’에서 활동 중인 30~50대 여성들이 직접 만든 단편영화를 함께 보고 서로를 응원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며 9월에는 사회 전반에 깔린 ‘힐링’이라는 주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진정한 ‘힐링’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0월에는 30대 여성 난감모임과 함께 30대 심심모임 단골들을 주로 초대했다. 11월 11일 심심모임에서는 프랑스에서 셰프로 활발히 활동하는 로랭과 칼럼니스트 이미령 님이 프랑스 요리 및 식문화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프랑식 양파 스프를 함께 만들어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심심모임이 거듭되면서 모임을 찾은 사람들과 십시일반(十匙一飯)해서 함께 식탁을 꾸미고 전체 흐름에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보태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높고 강하고, 질긴 것’에 대한 감각보다는 ‘낮고, 연하고, 유연하게’, 편안하고 긴 호흡으로 유유자적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속적인 만남에 적절하다는 공통의 감각이 형성되었다. 2013년에도 심심함을 찾아 허브에 올 사람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심심모임이 생각보다 큰 규모로 진행되어 진정한 ‘심심함’을 찾기 힘들었던 경우가 발생했던 것을 보완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 잠시의 막간조차 각종 기획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뽁뽁이 채워져 소모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요즘 시대에 진정 필요한 ‘심심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more info

하자허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aja.hub>



3.마을

하자허브 공방

삶디자인공방

사업 이름: 손으로 만드는 삶의 방식-

삶디자인공방

대상: 목공과 대안적 삶의 방식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진행기간: 2012년 1월 1일~12월 31일

참가방법: 온라인(하자 홈페이지, 페이스북) 신청

참가비 여부: 10,000원 ~ 100,000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장소: 하자센터 신관 지하 1층 목공방

총 사업비: 10,000,000원

총 참여인원: 150명

왜 우리의 생활은 무기력해지고 고립되는가? 생활의 무기력은 주거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생활 속에서 생산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완제품으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는 더욱 경쟁적인 삶의 방식에 젖어들어간다. 아이들에게 '생활생산'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서 아무 것도 만들지 못하는 무기력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으며, 더 이상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생산의 활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삶디자인공방은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생활생산문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급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what we did in 2012

리사이클 적당기술 정기 목공 워크숍

영등포 지역 일대에 버려진 목재 팔릿(Pallet, 화물 운반용 깔판)을 수거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워크숍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9기(총 100명)를 배출하였으며 대상은 대학생, 회사원, 교사 등 다양했다. 직접 사용할 테이블을 4주(총 4회)에 걸쳐 제작했는데, 전기공구보다는 수공구를 사용해 자르고, 못박고, 칠하는 '적당기술'을 이용하도록 짜여졌다. 참여자들은 몸을 사용하고 공구를 다루는 데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잔액부족하우스 워크숍

부동산 경기침체와 32년 상환 주택융자 상품이 나오는 불안한 시대에 자신이 살 작은 집을 직접 지어 봄으로써 주거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워크숍이다. 10명 정도의 인원이 팀을 이뤄 5일 정도 함께 작은 집을 완성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평상을 만들고 그 위에 집을 만들게 되는 방식인데 한번 체험하면 다음에는 혼자서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계되었다. 에너지원으로 작은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011년이 주로 외부 연계사업에 중점을 둔 한 해였다면 2012년은 내실을 다지는 한 해였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정기 워크숍을 중심으로 목공에 관심이 있는 커뮤니티를 공방 내에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결과 자발적인 두 개의 청년 그룹이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반면 정기 워크숍을 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2013년에는 몸을 사용하는 생활방식의 다양한 영역들을 적용해 워크숍 형태로 다듬어 보고자 한다.

more info

페이스북 그룹 <http://www.facebook.com/groups/245274948907324/>



무한나눔사이클 (무.나.사) 자전거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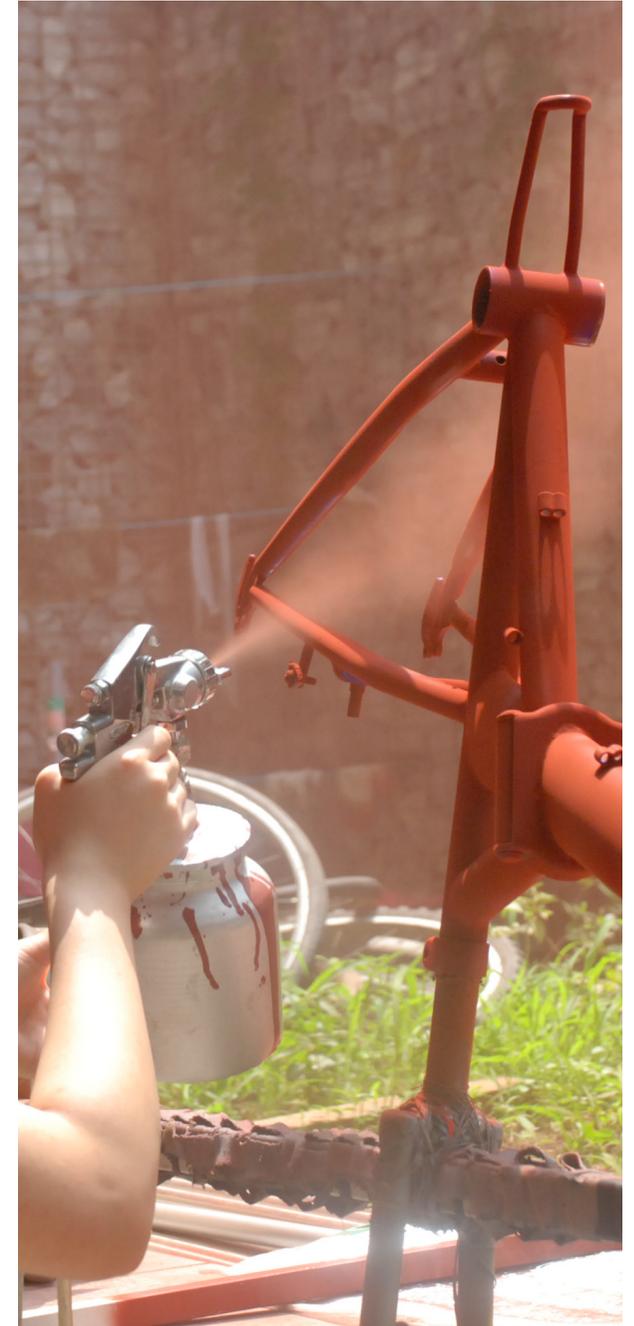
사업 이름: 무한나눔사이클(무.나.사) 자전거공방
대상: 자전거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진행기간: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참가방법: 온라인(하자넷, 페이스북) 모집
참가비 여부: 10,000원~100,000원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음)
장소: 하자센터 신관 지하1층
자전거공방 및 외부
총 사업비: 12,000,000원
총 참여인원: 200명

자전거 1천만 시대, 이제 자전거는 환경, 교통,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진로설계, 자립, 사회혁신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는 탁월한 교육 수단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전거 협동조합, 자전거 공방, 자전거 교육프로그램 등 생활 속 자전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는 제반 인프라 부족으로 자전거의 창의적인 동력이 사회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문화에서 공공문화로의 전환, 새로운 자전거 시대를 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시도와 상상,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무한나눔사이클(이하 무.나.사) 자전거공방에서는 하자센터 내·외부 (예비)사회적 기업, 문화예술가, 자원활동가 등과 연계해 자전거 자가 정비교실, 리사이클링과 여행 등을 접목한 청소년 프로그램, 생태문화 행사, 자전거 창업모델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진로직업, 환경과 생태, 지역문화 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친 활동을 통해 무.나.사 자전거공방은 창의적 동력이 사회와 청년들에게 확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허브로서 '지속가능한 자전거 공방문화 만들기'를 위해 힘을 보태려 한다.

what we did in 2012

주요 프로그램 리스트

프로그램 명	내용	대상	기간 (참여인원)
지구를 살리는 에코 리사이클링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 직접 수리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의 감각을 되살린다. 자전거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이 생각하는 자전거에 대한 창의적 상상력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자전거를 일상으로 초대해본다.	영등포구청 토요 우수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5월 12일~12월 22일 (1기: 6명 2기: 7명)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에 참가한 특성화고등학교 청소년	8월 7일~8월 10일 (11명)
		하자센터 내 대안교육프로그램 '집밖에서유유자적' 참여 청소년	6월 14일~9월 26일 (7명)
		계원예술대학교 '계원예술협동조합'	8월 13일~10월 30일 (20명)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네트워크 사회의 문화기획' 수업 참여 학생	10월 10일~12월 9일 (6명)
		개인 예술작업자	상시 (10명)
		한강, 어디까지 가봤니	생태환경의 보고인 한강을 자전거로 탐사하면서 한강 보존의 중요성을 배운다. 팀을 나눠 스마트패드를 활용해 사진 촬영, 스케치, 소감 작성 등으로 실시간 자전거 생태지도를 만들어본다. 이후 탐사대 블로그 및 SNS, 청소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전파한다.



<p>자립 가능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모델 만들기: '심란한 공방'</p>	<p>누구나 소정의 회비를 내면, 자전거 공방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자가 정비하고 리사이클링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자전거 정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동호인들은 자원활동가로서 자전거 워크숍 및 정비교육을 진행 할 수 있다. 시니어 그룹이 장인으로서 세대 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사랑방 같이 편하고 재미있는 공간 만들기'를 통해 청(소)년, 장년 등 다세대가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사례를 만든다.</p>	<p>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동호인</p>	<p>1월 1일~12월 31일(20명)</p>
---	---	------------------------------	---------------------------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주요 프로그램별 성과

프로그램 명	진행팀	성과
<p>지구를 살리는 에코 리사이클링</p>	<p>영등포구청 토요 우수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p>	<p>주 5일제 도입후 청소년 주말참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낀 영등포구청의 요청을 받고 진행했다. 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 동안, 85% 이상의 참여자가 수업을 이수(자전거 조립 완성)했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평일에 별도로 개인 작업을 했고, 한 참여자는 수원에서 오가며 꾸준히 참석하는 등 전체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특히 자전거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한 대학생 멘토들과 자전거 전시회장을 방문하고 해외 아티스트 동영상 자료 및 영화 감상 등을 통해 스티커 작업, 부분 도색 등 리사이클링 자전거의 완성도가 높아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영등포구에서 거주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학 등 자전거 타기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참여자들이 생긴 것도 특징이다.</p>
	<p>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에 참가한 특성화고등학교 청소년</p>	<p>하자센터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에 참여, '에코 리사이클링: 자전거' 분야의 기획 및 진행을 맡았다.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막연히 알고 있던 자전거 분야 진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제 자전거공방 장인, 자전거문화 카페, 자전거 문화기획자, 자전거 용품 개발자 및 디자이너,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 자전거 프로선수, 여행 작가, 여행 리포터 등 다양한 관련 직업 소개와 멘토 만남 등을 진행했으며 직접 폐자전거를 수리, 리사이클링하는 워크숍도 병행했다.</p>

지구를 살리는 에코 리사이클링	하자센터 내 대안교육프로그램 '집밖에서유유자적' 참여 청소년	학교를 그만두고 할 일도 소속도 없이 무중력상태로 지내는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통해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프로그램 '집밖에서유유자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변했고, 애초 1개월 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이 3개월 이상 연장되었지만 7명 중 5명이 끈기를 가지고 자전거를 완성했다. 한 참여자는 리사이클링한 자전거를 타고 일산에서 영등포까지 통학에 도전하기도 했다.
	계원예술대학교 '계원예술협동조합'	계원예술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위해서 '계원예술협동조합'을 조직했다. 이들은 버려진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재활용하는 의미와 작가 개인의 색깔과 개성을 담아 우리의 무관심에 쉽게 버려지고 잊혀가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담은 전시회를 개최했다. 리사이클링한 자전거 외에도 설치, 사진, 영상, 그리고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네트워크 사회의 문화기획' 수업 참여 학생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수업의 일환으로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교 안에서 '공용자전거 프로그램, 자전거 협동조합, 자전거 문화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상상들을 공유하는 가운데 6인 1팀으로 1대의 자전거를 완성했다.
	문화작업자들	목수, 미술가, 음악인 등이 참여해 리사이클링에 대한 개인의 창의적 해석을 공유했다.
한강, 어디까지 가봤니	문래청소년수련관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프로그램 초기에는 혼자만 잘 타던 참여자들이 자전거 이론, 교통법 등을 학습하고 나니 단체 도로주행이 가능했다. 내가 달리는 자전거 속도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전거 속도, 안전거리 유지, 앞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수신호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 주행 중에 자주 발생하는 '핑크'에 대처하는 자가 정비 교육도 진행했다. 자전거가 단순히 놀이 도구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삶의 대안이며 몸과 마음을 깨우는 탁월한 도구라는 걸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립 가능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모델 만들기: '심란한 공방'	일반인	자전거공방이 출범할 수 있도록 물품, 시간, 재능 기부를 해 준 프로젝트 회원들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했다. 에코 리사이클링, 단체 장거리 라이딩, 자가 정비교실, 자전거 장인 초대, 자립을 위한 바자회, 블로그 운영, 자출 지원단 운영, 자전거 사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무.나.사 자전거 공방의 기반을 닦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공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2년은 대내적으로는 작업장 공간 디자인, 운영 프로그램 설계 및 자전거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만 탈 수 있다면 참여 가능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높이고 숨어있는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거리감을 좁힌다는 크고 작은 도전들을 시도했다. 2012년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넓고 알뜰하게 에너지를 집중했다면, 2013년은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 공방모델 확산, 자전거 타기 일상화'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더 좁고 깊게 고민하며 공방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힘을 모으고자 한다.

2013년 진행 예정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내용	진행팀
하자 네트워크학교 자전거교실 '지구를 살리는 에코 리사이클링'	대안학교 중등 실과과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환경적 대안인 자전거를 지속가능한 도구(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 와서 직접 수리하고 재활용하는 과정)로 관리하는 능력을 배우며 몸과 마음을 깨운다.	하자센터 무.나.사 자전거학교 (네트워크학교: 하자작업장학교, 성미산학교, 산어린이학교 등)
자전거 타고, 어디까지 가봤니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공익캠페인. 매주 토요일마다 자전거 활동가, 동호인, 청(소)년 등이 40~160km를 달리면서 출퇴근, 통학 등 자전거 타기 일상화를 권장하는 활동을 한다.	무.나.사 자전거공방
무.나.사 자전거공방 모델 심화 개발 및 확산 프로젝트	커뮤니티 모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프로젝트 회원들과 블로그 운영, 자전거 여행, 자가 정비, 해외 자전거 전문 서적 번역 등 심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심란한 공방
	연세대학교 송도 글로벌 캠퍼스의 그린 캠퍼스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로 에코공방을 진행한다.	세 바퀴의 꿈

more info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simgong/>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ike4life.kr>

무.나.사 블로그 www.bike4life.kr



3.마을

사회적 경제 파트너십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사업 이름: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대상: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진행기간: 2012년 8월 ~ 2013년 10월

참가방법: '위키서울닷컴(www.wikiseoul.com)'을
통해 아이디어 접수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서울 곳곳(하자센터, 서울시청 등)

총 사업비: 1,228,000,000원

총 참여인원: 위키서울닷컴 가입자 약 15,000여명

아이디어 등록수 1,024개

위키토크 관람객 약 10,000여명

세부 프로그램 : '위키서울닷컴'을 통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

사회적경제 명사들과 나누는 토크쇼 '위키토크'

37개 시민 아이디어 선발

하자센터, 사단법인 씨즈,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세스넷),

희망제작소,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아이디어 사업계획서 인큐베이팅

37개 아이디어 대상 크라우드 펀딩(개미스폰서와 굿펀딩 참여)

9개 창업지원팀 선발, 해외연수 및 1천만원 창업준비금 지원

9개 팀 '시민 아이디어 발표회' 개최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하자센터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적 중간지원조직인 사단법인 씨즈,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세스넷), 희망제작소, 함께일하는재단 등이 공동주관 및 협력기관으로 참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재까지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참신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를 온라인 오픈 플랫폼 '위키서울닷컴(www.wikiseoul.com)'을 통해 모집하고, 모은 아이디어 중 참여 시민들의 투표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실천이 가능한 아이디어 37선을 선정, 인큐베이팅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개미스폰서, 굿펀딩과 함께 37개 아이디어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며 이들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기타 아이디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강의형 콘서트 프로그램 '위키토크'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최종적으로 창업이 가능한 9개 팀을 선정, 창업지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씨앗에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인큐베이팅 및 해외 우수 사회적경제 사례들을 탐방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하자센터 매칭 아이디어 팀 소개

* 마음을 여는, 마을을 여는 '달려라 피아노'

“거리나 공원에 놓인 피아노에 사람들이 앉아 피아노를 친다. 홀로, 때로는 여럿이. 때로는 밴드와 함께.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버지 손을 잡아 이끌어 피아노 연주 자량을 하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피아노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동네 어르신까지. 때로는 합창도 울려 퍼진다. 피아노 한 대로 삭막한 서울의 동네에서 작지만 흥겨운 축제가 만들어진다.”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더하모니(the harmony)'에서 제안한 '달려라 피아노' 아이디어는 지역을 기반으로 예술작업자와 교육전문가, 시민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커뮤니티 예술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다.

* 임대아파트와 함께하는 힐링장터

'영등포 달시장' 등 대안 마을장터 기획 및 진행을 맡고 있는 청년창업팀 '방물단'이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제안한 '힐링장터' 아이디어. 당시 임대아파트에서 불거진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큰 공감을 얻었다. '방물단'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 참여 문화예술 워크숍, 마을 축제 등으로 구성된 '힐링장터'를 제안했다.

* 시민이 직접 대안대학을 만들고 지식을 나눠 갖는 '지식순환 협동조합'

'자유예술대학' 팀은 가까운 도시의 유휴 공간에서, 학력과 빈부, 세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창작할 수 있는 '대안대학'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자유예술대학'은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 기업화된 대학에 맞서 '협동조합'의 원리를 적용한 대학, 높은 등록금 및 분과학문으로 고립되어 버린 지식생산에 맞서 '문턱 없는 대학'을 통한 자유로운 지식 생산 및 유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출, 큰 호응을 얻었다. 비록 최종 아이디어는 되지 못했으나 '자유예술대학'은 지난 4년간 활발하게 벌여온 '자유예술캠프' 활동을 통해 충분히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이제 광범위한 교·강사 및 공간기부 네트워크를 조직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학'의 형태를 갖춰 나가고 있다.

* '땡땡이공작'의 키트 개발 프로젝트

획일적 소비문화에 찌든 현대인들에게는 때때로 '생산적 일탈'이 필요하다. '땡땡이공작'은 잿빛 일상에 햇살을 드리워 줄 생산적 일탈 활동을 지향하는 작업자 팀이다. DIY정신에 입각하여 기술과 놀이를 접목시킨 생산/창작 워크숍 프로그램 '땡땡이공작 워크숍', 땡땡이 활동을 위한 DIY 제품 '땡땡이키트' 판매, DIY 창작 공간을 통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땡땡이공작기지'까지, 땡땡이공작의 '생산적 일탈 활동'은 계속된다.

* 청소년을 위한 음악프로젝트 '솔직한 이야기가 깃든 노래 - 솔깃'

청소년들에게 대중음악은 그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는 청량제와도 같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이 즐겨 듣는 대중음악은 상업적 코드에 맞춰진 선정적인 음악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팀 '솔깃'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음악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직접 쓴 가사를 선정하고, 그 가사에 노래를 입혀주며, 앨범 발매와 콘서트까지 개최하고 있다. 열정적인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청소년의 삶과 경험, 일상과 고민들이 담겨 있는 음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솔깃'은 이미 1집 앨범과 첫 번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저력도 갖추고 있다.

*** 대학생 전공서적 공유서비스 - 전공책**

고물가, 취업난, 스펙 쌓기 등으로 고단한 삶을 사는 청년들. 등록금, 방세, 학원비까지.... 여기에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사야만 하는 3~4만원의 전공서적은 청년들에게 또 다른 커다란 짐이다. 이에 책값만큼은 걱정없이 공부하길 바라는 4명의 대학생들이 뭉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바로 대학생 전공서적 공유서비스 '전공책'이다. 책장에 잠들어 있는 '유휴' 전공서적을 서로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정가의 30% 가격에 잠들어 있는 유휴서적을 팔고, 정가의 20%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전공서적을 한 학기동안 대여해 공부한 뒤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얻어진 수익은 북콘서트, 아동전집 기증, 노인대학 책 기증 등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 대학로에 연극의 희망을! - 소극단과 관객이 함께 만드는, 쇼닥터 프로그램**

문화예술의 거리 '대학로'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연극 작품이 관객들의 호응을 바라며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로 연극문화를 만들어가는 소극단들은 대부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실정.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로와 인접한 성곡관대 동아리 'Streaming into Culture'팀은 지난 6년 동안 소극단들과 함께 다양한 관객참여형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특히 아이디어대회에 제출한 '쇼닥터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연극진단서'를 도입, 관객들이 연극을 더 쉽고 저렴하게 즐기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극단에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극단 또한 관객들의 반응 및 제안을 수용하고 반영함으로써 연극의 질적 완성도 및 대중성을 조금씩 높여나갈 수 있다. 관객의 참여와 연극의 질적 향상으로 선순환을 이루며 소극단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보자는 아이디어였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013년 2월 19일 기준으로 총 방문자 수 117,393번(1일 최대방문자 5,139명), 회원가입자 수 11,870명, 아이디어 참여 수 1,024개. 수치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둔 대회이지만, 무엇보다도 대회 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오픈 플랫폼 '위키서울닷컴'을 통하여 시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 다른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37개 시민 아이디어를 선정할 때에도 시민들의 추천 점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크라우드펀딩 과정을 통하여 각 팀들에게 종자돈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시민들의 호응도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온라인상의 성과뿐만 아니라 총 4회 진행된 대규모 토크콘서트 ‘위키토크’에는 회당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 사회적경제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위키토크’는 일방적으로 강연만 듣고 가는 일반적인 컨퍼런스형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고자 강연 후 참여자들끼리 조를 편성해 해당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멘토들과 함께하는 테이블 토크와 연계시켰다. 이 테이블 토크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 역시 ‘위키서울닷컴’에 등록되었으며,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동을 바탕으로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사회적경제라는 낯선 개념을 시민들에게 더욱 쉽게 소개하기 위하여 웹툰 및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콘텐츠들은 위키서울닷컴의 아카이브(<http://www.wikiseoul.com>)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하자센터와 매칭된 7개의 아이디어 팀을 비롯해 질적인 완성도를 갖춘 여러 시민 참여 아이디어를 확보했다는 점일 것이다. ‘위키서울닷컴’에 올라온 아이디어들 중 시민들의 투표 참여와 전문가들의 심사로 선정된 37개 아이디어들은 하자센터를 비롯한 대회 참여 조직들의 솔루션개발 워크숍을 통하여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완성된 사업계획서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들 사업계획서는 전문가들에게 그 어느 경연대회보다 훨씬 뛰어난 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았으며, 이들 중 대부분의 팀은 실제 사업을 계획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ore info

위키서울닷컴 홈페이지(1,024개 아이디어 수록) <http://www.wikiseoul.com>



영등포 달시장

사업 이름: 영등포 달시장

대상: 영등포 주민을 비롯한 청년문화기획자 및 아티스트, 문화예술·생태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 문화예술상품에 관심있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정책담당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영등포에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책담당자 및 시민활동가, 대안화폐 및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책임 소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진행기간: 2012년 5월, 6월, 8월, 9월,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저녁 9시 (5월 25일, 6월 29일, 8월 31일, 9월 28일, 10월 26일 등 총 5회, 7월 흑서기 휴장)

참가비 여부 : 없음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총 사업비: 총 70,000,000원

총 참여인원: 회당 1500명 ~ 2500명

영등포구 주최, 하자센터 주관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영등포 달시장이 2012년에도 계속되었다. 지난해와 같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되었고, 흑한기와 흑서기를 피해 5, 6, 8, 9, 10월 총 다섯 차례 하자센터 앞마당에서 열렸다. 영등포 달시장은 마을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장터이다. 마을 주민이라 하면 영등포를 주소지로 가지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곳을 근거지로 장사를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이 예술가, 문화작업자부터 사회적기업가, 청년창업팀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채우는 축제가 바로 달시장이다.

2012년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달시장 온라인 마켓의 기능은 축소되었다. 사회적 시장으로서의 달시장 특성상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거래는 자연스럽게 퇴화되었고, 기획팀 또한 온라인 마켓보다 실제 사람들이 만나 만들어내는 거래와 그 사이의 네트워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오프라인 마켓에 집중하였다. 대신 사람들 사이의 거래가 신뢰로 매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안화폐 '별통화'를 시도해 보았다. 돈과 물건의 교환이 중심이 되는 현물화폐의 거래를 축소하고 사람과 사람, 각자가 가진 이야기들이 교환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달디오'라는 달시장만의 라디오를 진행해보기도 했다. 달디오에서는 달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았으며 현장 안내 역할도 맡았다. 청년자원활동은 '별무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별무리로 참가한 청년들은 달시장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했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통해 별무리 내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졌다.

2012년의 달시장도 여러 주체들이 모여 함께 꾸려나갔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회적 시장으로서의 꿈과 청년 예술작가들의 생태계 조성, 그리고 영등포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이라는 기대가 모여 달시장을 운영하는 힘이 되고 있다.

what we did in 2012

2012년 영등포 달시장의 특징은 매 달 주제를 선정해 특색 있게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첫 회인 5월 달시장은 '다른 화폐'란 주제와 함께 대안화폐인 '별동화'를 도입했고, 달시장 미디어인 '달디오'도 시작하면서 모두 78개의 부스로 운영되었다. 6월 달시장은 '에코ECO'라는 주제를 가지고 환경 관련 사회적기업, 작업자 등이 집중 참여, 5월보다 더 많은 92개의 부스로 진행되었다. 달시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텀블러를 대여해주는 청년팀 '브링유어컵'과 연계했고 사회적기업 '위누'와 환경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에코'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애썼다. 한 달의 휴지기를 가진 후 진행된 8월에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다른 에너지'란 주제를 담아 진행되었다. 대안에너지 관련 NGO와 적정기술 팀들이 참여해 '다른 에너지 ZONE'을 구성해 특색있는 달시장을 선보였다. 8월에는 5월 규모와 비슷하게 80개의 부스로 운영되었다.

9월 달시장은 '달책장'이란 주제를 가지고 출판사와 주민들의 기부로 구성된 기부 달책장을 운영했으며 총 85개 부스가 열렸다. 특히 9월은 하자센터 교육팀과 함께 특화된 어린이 대상 워크숍, 베품시장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창의페스타'를 진행해 어린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냈다. 한 해를 마무리짓는 10월 달시장은 올해 내세웠던 주제들을 묶어 '다함께 달시장'이란 주제로 90개의 부스로 진행되었다. 지난 주제에 관련된 참여팀들을 다시 초청해 1년 간의 달시장을 돌아볼 수 있게 기획했다. 이와 함께 가을밤,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별빛영화제'를 진행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세부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쇼케이스

영등포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복지 분야나 문화예술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매회 개별 사회적기업의 가치 홍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달시장 기획팀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 결과 사회적기업들은 상품 판매/홍보 부스, 아트마켓, 먹거리장터, 문화예술 워크숍, 공연 등 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 및 참여 프로그램은 매달 평균 10여 개 이상이었다.

아트마켓

아트마켓은 수공예 작품 판매, 전시, 공연, 체험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공예 작품 판매 부스의 경우 영등포 지역 주민들 중 남다른 솜씨를 자랑하는 작가들과 더불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각종 프리마켓(홍대 프리마켓, 삼청동 프리마켓, 명동 명랑시장, 동대문 봄장 등)에서 활동하는 주로 20~30대 전문작가들이 매달 30명 내외로 참여했다.



2012년에는 영등포 거주 작가의 비율이 평균 30% 수준이라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독특한 재능을 가졌으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판매 및 유통 채널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 작가들과 대중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 벼룩시장

달시장은 영등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근무지가 영등포인 직장인들만이 벼룩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을장터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 벼룩시장은 모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사이에 달시장에 대한 정보가 전해지면서 ‘주민참여형 마을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운영상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 연령대의 자녀를 둔 주민들이 옷과 책, 생활소품 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달시장이 경제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영등포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녹색가게’를 비롯해 영등포 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의 활동가들도 공식적으로는 물론 개인 자격으로도 벼룩시장에 꾸준히 참여했다. 올해는 특별히 벼룩시장과 연계해 여러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어린이 경제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던 ‘어린이 벼룩시장’, 길을 영구임대아파트 어린이도서관에 기부할 책과 도서 구입비를 모으는 ‘달책장’ 등이 열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 벼룩시장과 함께 진행되었던 오가닉마켓에는 전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먹거리장터에서는 하자센터 내 먹거리 기획팀과 주민들 가운데 신청을 받은 팀들이 참여해 달시장에 활력을 더했다.

별시장

올해 달시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초대해 매월 특정 주제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테마시장인 ‘별시장’을 진행했다. 첫 번째는 ‘지구환경’ 테마로 한 옷과 마대 자루 등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가방과 깨진 채 바다 속에 오랫동안 잠겨서 성질을 잃은 일명 ‘시글라스(sea glass)’를 활용한 액세서리 등의 제품들을 소개했고, ‘한등빼기 캠페인’ ‘에코 마일리지 캠페인’ 등 환경 관련 캠페인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 두 번째는 ‘다문화’ 테마로 다문화 2세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에 발맞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작가와 오랜 해외여행에서 배운 기술로 직접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작가들을 초대한 테마시장을 개최하였다. 세 번째는 ‘지역문화시장’ 테마로 전주 남부시장, 전북 정읍시장, 대전 대흥동립만세, 부산 지구인시장 등 전국 각지 대안문화장터에서 활동하는 운영팀 및 작가들을 초대한 테마시장을 열었다.

네 번째는 ‘어린이와 도서’ 테마로 온라인 미디어가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여전히 독서 특히 어린이 대상의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아 주민 벼룩시장과 연계하여 ‘달책장’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어린이 동화책 출판사 및 소규모 출판잡지들을 초대해 판매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별시장은 지역부터 전지구적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특성화시장의 모델을 달시장 내의 코너로서 다양하게 실험해 보았다. 이로 얻은 성과들은 경기도 성남, 평택, 부천 등을 순회하며 진행된 문화 다양성 장터의 기획과 운영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공연

2012년 달시장의 공연 연출 콘셉트는 '작고 신나게'였다. 시장에 역동성과 활기를 불어넣어 참여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목표. 이에 따라 매 회 3회씩, 인디밴드 2팀과 사회적기업 공연팀 1팀을 기본 구성으로 했다. 지난해에는 평균 4회 진행했으나 너무 빠듯한 무대 일정으로 공연 리허설 시간 확보가 어렵고 특히 5시 공연은 관객이 적어 오히려 분위기를 저조하게 만든다는 피드백을 반영해 횟수를 줄였다. 올해 달시장에서는 지역간 교류를 위해 특별히 서울 외 지역에서 두 팀(제주/윤영배, 광주/ '우물안개구리')를 초청하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인근이 주택가임을 고려해 드럼을 포함한 록밴드 세팅은 가능한 배제하고 어쿠스틱 사운드 위주의 팀들을 초청했다. 달시장 공연의 주 관객층은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었다. 이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인디밴드와 사회적기업 공연팀의 무대를 즐기는 광경 역시 달시장만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워크숍

올해 달시장 워크숍은 예술가, 사회적기업, 청년창업팀 등 다양한 팀들의 참여를 통해서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골목놀이와 다양한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고 성인층 대상으로는 액세서리 만들기, 타로 등이 개설되었으며 노년층을 배려한 마사지, 수지침 워크숍도 시도하는 등 전세대가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았다. 이 중 사회적기업 위누는 6월부터 10월까지(7월 제외) 매달 다양한 워크숍을 기획, 진행했으며 문래동 예술창작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노보C는 문래지역 노인분들과 함께 달시장에 참여해 직접 배운 워크숍을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는 지역 주민 작가의 워크숍 참여가 돋보이기도 했는데, 이상이 작가는 5월부터 별통화 지갑 만들기 워크숍으로 참여해 대안화폐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백현 작가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연하기도 했다.

별통화

올해는 영등포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안화폐 '별통화'가 시행되었다. 별통화의 기본단위는 '별'로서 10별이 '한 끼의 식사'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책정되었다. 화폐의 가치보다 주고받는 소통과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별통화 사용의 목적. 때문에 상호신뢰가 가장 우선되며 50별까지 마이너스 거래도 가능하다. 단순히 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달시장 내에서 노동, 물품 기부, 재능 기부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게 만든 것도 특징이다.

달시장을 찾아온 주민들은 대안화폐의 개념에 낯설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첫 달에 목표치를 훌쩍 넘겨 68명의 주민이 가입 신청을 완료했고, 매달 사용자가 증가해 10월 달시장을 마친 후에는 279명에 달했다. 판매에 있어서는 일반장터에서는 선택 사항으로, 다른 부스보다 참여자 이용률이 높은 먹거리장터에서는 별통화 사용을 의무화해 별통화 판매존을 홍보했다. 다섯 번의 달시장 동안 별통화 사용자와 판매자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했으며 평상시에도



하자센터 내에 중고물품 순환마켓인 별샵(#)을 상설 배치해 달시장이 열리지 않은 일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별통화 도입은 대안화폐 사용의 첫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 270여 명의 사용자들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었으나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달시장만으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측면도 발견되었다. 대안화폐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판매자와 소비자의 등장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귀중한 경험이었다.

별무리

별통화와 함께 2012년 새롭게 도입된 프로젝트로서 달시장을 함께 가꾸어가는 청년 자원활동가 조직을 뜻한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달시장에서는 2011년부터 청년 자원활동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청년 자원활동가 그룹을 프로보노(Pro-bono,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로 구성하려 했다. 기존의 자원봉사에서 탈피해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지속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별무리들에게는 하루 활동에 별통화(40별)을 지급해 대안화폐 활용을 높이기도 했다. 예상보다 전문 활동가의 참여는 저조했으나 대학생 그룹의 지속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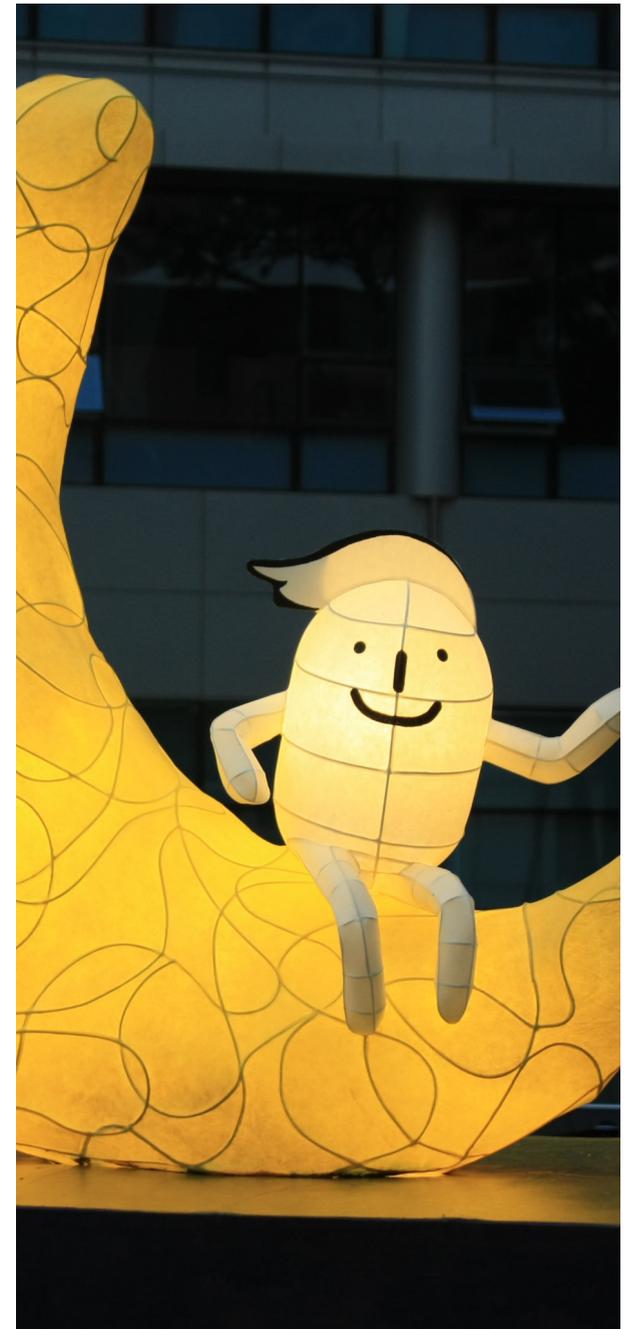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2012년의 달시장은 청년창업의 플랫폼으로 이용되었다.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직접 달시장 운영 과정에서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며 자신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특히 3월에 모집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청년팀 '방물단'은 2012년 한해 하자센터의 파트너로서 달시장에 참여하면서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방물단'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의 제 2기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달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키운 기획력을 바탕으로 2012년 영화로놀장, 박물관장, 무지개장터, 헬로우문래 등 다양한 외부 장터들을 기획했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012년 달시장은 첫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팀들과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영화제작소 눈, 오가니제이션요리와 같은 사회적기업은 물론 청년창업팀 '브링유어컵(Bring your cup)', 페스테자 등 다양한 팀들과 연계하면서 한 해 동안 달시장을 만들어나갔다. 특히 사회적기업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초기 목적이었던 만큼 2012년에는 단순 홍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워크숍이나 쇼케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기업들을 알려나갔다.

청년팀 '방물단'과 함께하며 청년들을 육성했다는 것도 큰 의미 중 하나이다. '방물단'은 달시장을 통해 1년 만에 대안시장에 대한 기획력을 갖춘 팀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청년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2기에 지원하여 수료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H-온드림'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열린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에도 참여하여 서울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달시장은 영등포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역 시장이다. 올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주민들 사이에 아직 소규모이긴 하지만 달시장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가 조성되었다는 점은 큰 수확이라 할 것이다. 달시장은 매달 개장 전 사전설명회와 주민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벼룩시장은 물론 먹거리장터와 솜씨방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고자 했다. 특히 벼룩시장은 주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로 가장 인기가 높았다. 키즈카페, 어린이 창의페스타, 어린이 벼룩시장, 어린이 체험워크숍 등 어린 달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신경을 쓴 것도 지역 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more info

홈페이지 www.dalsijang.kr

블로그 <http://dalsijang.blog.me>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alsijang>

트위터 <http://twitter.com/dalsijang>



〈일, 청년을 만나다〉 청년 취재단 운영

사업 이름: 서울시 청년 혁신 일자리 책자
〈일, 청년을 만나다〉 발간을 위한 청년
취재단 운영

대상: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청년 워킹그룹 및 개인

진행기간: 2012년 3월~2012년 8월

참가방법: 섭외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서울시 및 전국

총 사업비: 세입 2,925,264원

총 참여인원: 69명

일을 통해 삶의 길을 찾는 청년들에게 소위 '유망직업'만 강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직업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국내외 새로운 직업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함께일하는 재단과 하자센터는 일방적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책자가 아닌, '청년과 함께 만드는 책'을 콘셉트로 민-관-당사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에 주무부서인 서울시 일자리지원과와 당시 청년명예부시장 김영경, 함께일하는 재단, 하자센터, 청년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청년 사회적기업 모티브하우스가 의기투합하여 '서울시 청년기획TF'가 결성되었다. 함께일하는 재단이 사업의 총괄 PM이 되었고, 하자센터는 책의 내용을 만들 청년취재단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회의 빈자리, 자신의 꿈, 일상의 틈에서 일거리를 찾아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일을 청년들이 직접 소개했다. 또한 단순한 직업 소개가 아니라, '사회와 관계맺기'라는 측면에서 일이란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 만들어지는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시선을 통해 담았다.

〈일, 청년을 만나다〉 발간 미션

청년 세대의 주요 문제를 대변하고 사회혁신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그룹이 직접 취재하고 구성한 국내외 관련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세대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이들의 긍정적인 도전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청년 진로개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what we did in 2012

3월 서울시 청년기획TF 결성

4월 청년 취재단 섭외 및 구성. 총 23개 팀 조직

청년취재단 소개

[보물상] 고물이 보물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청년들. 사용 가능하거나 혹은 재활용 가능하지만 그냥 버려지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

[비교우위] 자유로운 시간과 열정을 비교우위로 지닌 청년(대학생)의 시선으로 비주류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극복한 이들을 만나기 위해 결성한 팀

[서울소셜스탠다드] 자신의 거주지를 찾고 선택하는 과정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체계를 재편성하고, 그에 수반한 '부동산중개'라는 경험을 재정의·디자인하는 청년팀

[슈크플랩] 영상이론과 및 방송영상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미디어 변화에 따른 새 비평 담론 모색과 적극적인 기획·창작·비평 연대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그룹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대학교에서 텃밭을 일구는 대학생 모임. 레알텃밭학교, 대학 내 파머스마켓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

[조각보] 사회적임 소비를 알리는 지역경제 미디어 벤처. 소셜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통 시장과 사회적기업 및 인근의 소소한 여행지를 알리고 있다

[청년유니온] 청년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청년 공동체.



비정규, 아르바이트, 첫 직장 등 '청년들의 일'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교섭하기 위한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장사꾼] 장사와 창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착한 상행위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그룹. 실제 물건들을 판매하는 '보부상' 프로젝트와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진행.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창업 관련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함

[청춘사업] 창조기업, 창업, 디자인, 예술을 공부하며 '연애하듯 사업하라'를 모토로 학우들의 창업을 돕는 비주얼매니지먼트 전공자 그룹

[청출여락]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야만 하는 사회 구조에서 지역에 남아 새로운 사회 가치를 창출하려는 모임.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매달 1회 다른 지역의 사회 혁신 사례를 찾아 해당 지역에서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

[취준진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발해 온 사례를 철저한 취업준비생의 시각으로 담기 위해 구성된 문화인류학과 학생팀

[페퍼트리] 'Different Perspective Tree'의 약자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각의 전환을 유도하여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자발적인 청년 활동 모임

[한살림 청년아카데미]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생명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직거래를 통한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팀. '한살림 참 신나는 청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음

[모티브하우스] 꿈꾸는 문화를 만드는 청년 사회적기업. 박원순 서울시장에 만든 '소셜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대항마 '꿈 매니저'를 만든 장본인들

[못생긴나무] 고용노동부 주최 '2012 창조캠퍼스' 프로젝트 팀으로 활동 중. '1인 창조기업, 기업이 정신, 농업'을 키워드로 취업대란 속에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중

[생활기획공간 통] 지역의 보통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꿈꾸는 공간을 운영하며,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변화를 꿈꿀 수 있고, 그 꿈이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닌 주변과 우리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을



실현해 나가는 그룹

[이웃Ewut] 지역 사람들의 경험(Experience)을 바탕으로 일(Work)을 놀이처럼 즐거운(fUn) 작업이 될 수 있는 문화(culTure)를 만들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되살리고픈 놀이문화 기획사

[플레이플래닛] 공정여행과 IT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하여 창업한 아시아 거점 공정여행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박세상+신재연] 전주에서 사회적기업 이음의 인턴으로 활동중인 신재연과 (주)아이엠공을 창업해 한옥 마을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박세상. 지역에서 청년 활동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팀

[이미함] 대안적 삶에 대해 고민하며, 도시의 생활 방식을 벗어난 삶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모인 대학생팀

[이성용+이정화] 대전 최초 청년 사회적기업인 공정여행사 '공감만세'의 창립멤버 이성용과 COPION, KOICA 인턴을 거치며 국제 개발에 열정을 지닌 이정화가 국내외 경계를 없애는 '진정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위해 결성한 팀

[텔렛투비] 콘텐츠 제작자 및 비평가를 꿈꾸는 20대 청년 그룹. 예능, 다큐, 문학 세 장르의 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될 때의 양상을 살펴보고 또 다른 출구를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함

[학상필이] '깨알같은 학자금 상황과 이자 납부'라는 공통점을 가진 20대 청년문제의 당당한 당사자들. 비영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음

[학생단위]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취재하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혁신적 일자리란 무엇인가,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기 위해 결성된 대학생 팀



5월 청년 취재단 오리엔테이션 및 취재활동 개시

청년 취재단 각 팀의 관심사에 맞도록 1차 취재 희망 대상, 분야별 검토 및 중복 대상 조정 작업 진행 후 최종 취재 대상 결정.

5월~6월말 취재단 활동 종료 및 원고 취합

7월 취재단 보고회 <청년 일 대토론회: 청년에게 Good Job이란 무엇인가?> 진행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기획 단계부터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단과 취재단이 되어 우리 시대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과 일자리 문제를 청년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취재했다. 청년들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혁신 직업을 취재하면서, 도전의 계기를 열었다.

직업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취재 대상을 찾고, 만나고, 분석하면서 기성세대의 기준이 아닌 청년 당사자 스스로의 시선으로 느낀 직업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래서 단순히 색다른 활동을 하는 독특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일과 삶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들의 힘겨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빠짐없이 들으면서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막상 세상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힘든 청년들의 고민과 한계도 함께 담고자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청년들의 원고는 기대 이상으로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다 담을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모집과 취재기간이 짧았던 데다 100가지 직업을 소개해야 한다는 미션 때문에 청년팀의 원고는 더욱 대폭 요약되어야 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 사업을 할 수 있는 취재단 운영 모델 및 인재풀을 전국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점은 성과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총서 형태의 기획으로 더 심도 깊은 주제별 발간을 기획하고자 한다.

more info

<일, 청년을 만나다> 블로그 <http://hiddenwork100.tistory.com/>



2012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자활의 환경, 자급의 기술'

사업 이름: 2012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자활의 환경, 자급의 기술'

대상: 커뮤니티 비즈니스, 청년창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 일반
시민, 청소년 등

진행기간: 2012년 9월 25일(화)~9월 27일

행사 내용: 메인 포럼, 청년 간담회, 적정기술 및
대안에너지 워크숍, 청소년 대상 특강

참가비 여부: 워크숍 별로 다름

장소: 하자센터

2009년 청소년, 청년의 창의적 진로설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 포럼, 공연, 이벤트, 전시 등을 망라한 연례 축제로 출범한 이래 2012년으로 네 번째 해를 맞은 2012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자활의 환경, 자급의 기술'로 주제를 선정했다. 청소년과 청년 나아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행복과 지속가능성이 이뤄지려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모색하는 장으로 기획하며 하자센터가 올해 주목한 것은 바로 '청년'과 '지역'이다. 최근 들어 청년과 지역은 현재 사회 상황을 해결할 대안적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 안전망 파괴와 공동체 붕괴 등으로 실업을 상승과 비정규 고용 확대, 빈곤 악화 등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세대, 청년은 주거, 등록금, 일자리 등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당사자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한 중앙집중형 발전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 고령화, 공동화, 지역민 소속감 저하 등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은 지역의 경우 대안 에너지와 적정기술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화폐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번 서밋의 콘셉트는 올해 이미 두 번 개최된 바 있는 하자센터의 행사 '자공공(自共公)' 포럼에서 확대된 것이다. '자공공'은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의 첫 글자를 각각 따서 만들어진 것으로 '스스로 돕고 서로 도우면서 새로운 공공의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를 담아 2012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청년과 지역이 주체가 되어 환경을 살리는 적정기술, 이웃과 함께하는 단골경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호혜의 부조가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모색하는 메인 포럼을 비롯, 적정기술의 이론과 기술을 배워보는 워크숍, 청소년 대상의 특강, 청년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었다.

what we did in 2012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신갈 4층 하하하허홀에서 메인 포럼이 개막 행사로 열렸다. 일본의 발명가 후지무라 야스유키(니혼대학교 교수, 비전력화공방(非電力化工房) 대표), 청소년 창의교육과 사회 혁신, 문화지원에 앞장서온 홍콩 출신의 사회운동가 에이다 원(변호사, 홍콩현대문화원 대표), 하자센터 설립자인 조한혜정 교수(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자원·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기술인 적정기술을 보급해 온 김성원 대표(휴부대생활기술네트워크) 등 4인의 멘토가 발제에 나섰다. 이들은 청년들을 살리는 자활의 환경,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자급의 기술에 대한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했다.

특히 후지무라 야스유키 대표는 메인 포럼 발제는 물론이고 같은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지역을 살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주제의 청년 간담회,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청소년 특강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까지 주재해 이번 서밋의 메인 멘토라 할 만했다. 이는 그가 적정기술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두 분야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오사카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그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던 중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로운 일을 하는 응용 물리학자로 변신하였다. 별빛으로 움직이는 냉장고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발명하는 '비전력화 프로젝트'로 일본 내에 잘 알려져 있으며 저서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는 국내에서도 발간되었다.

후지무라 대표는 일본 나쓰 지역에서 비전력화공방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을 기반 삼아 지난해에는 <3만엔 비즈니스>라는 저서를 펴내 5쇄까지 찍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에서 후지무라 대표는 소비만 부추기고, 지역사회에 해로운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이로운 일을 찾아내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3만엔 비즈니스' 사업가는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유연하게 해내는 사업가이다. 또한 '사업'이 번성하여 3만 엔 이상을 벌게 되면 확장하지 않고 남들이 그 '사업'을 하게 나누어 주는 '탈-승자독식'의 원리를 실천한다. 다른 이들도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할 기회를 나눠줘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게 하는 것. 사업 아이템 역시 얼굴을 맞대고 인간관계를 활성화시킬 상품과 서비스만을 취급한다. 하루에 계란 20개 팔기, 왕겨 단열재 판매, 유기농 장터, 태양열 온수기 설치 비즈니스, 임부복 공유 서비스 등 소박한 농사부터 목공, 재생 에너지 공학까지 아이템 자체가 흥미롭고 무엇보다 환경친화적이기도 하다. <3만엔 비즈니스>는 후지무라 대표의 이번 방한에 맞춰 국내 출간되었으며 9월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밋 행사 중 하나로 출판 기념회 및 저자 사인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서는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급의 기술'인 적정기술 워크숍이 사흘 내내 열렸다. 특히 '담임' 역할을 맡은 김성원 대표는 인터넷 기업에 근무하다가 전남 장흥으로 귀농했으며 막돌을 모아 기초를 다지고 쌀자루에 흙을 담아 벽을 쌓아 만든 국내 최초의 흙부대 주택을 지어 주목을 끌었다. 그는 흙부대 건축물에 대한 지식을



대중과 나누는 한편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적정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 실내와 바닥 난방이 가능한 로켓매스히터, 열효율 90%대의 벽난로, 자전거를 활용한 농기구, 태양열 보일러, 페드럼통으로 만드는 제빵 오븐 등 '흙부대생활기술네트워크' 카페(cafe.naver.com/earthbaghouse.cafe)에는 적정기술에 대한 자료들이 수백 건 아카이빙되어 있으며 그와 흙부대 네트워크 회원들에 의해 실현, 개선되고 있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배워본 적정기술 역시 이것들 중 일부다. 9월 25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포켓 스토브에 도전했으며 다음날인 9월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환절기, 초겨울까지 너끈히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 온수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건강에도 해롭지 않은 천연 페인트 제작과 실습을 해보았다. 같은 날 저녁에는 그라인더와 직소기를 이용해 모닥불 드럼통을 만들어보았다.

이번 적정기술 워크숍은 단지 제작과정을 체험해보는 것에서 나아가 체계적으로 청년들이 적정기술 등을 훈련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구상까지 나아갔다.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신관 하하하허홀에서 열린 원탁토론 '움직이는 자급의 기술학교 만들기'가 그것. 후지무라 야스유키, 김성원 등 적정기술의 두 대표 멘토 외에도 봉화, 부안 등 지역에서 적정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비롯해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자유 토론을 벌였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009년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소수의 개인들에게만 부여되는 재능 정도로 생각되던 창의성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며 시작되었던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해마다 가장 시급한 사회적 이슈와 접목한 주제를 선보여 왔다. 청년의 자활과 지역의 자급에 초점을 맞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2012 서울청소년서밋 역시 예년에 못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삶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냈다.



3.마을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하자투어

사업 이름: 하자투어

대상: 하자센터 및 연계 그룹들의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 및 활동가, 전문가 그룹 등

진행기간: 2012년 1월~2012년 12월

참가방법: 정기하자투어(매달 1회 진행),

비정기하자투어(센터 자체 판단에 따라

청소년 진로교육, 사회적경제 등 주제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

참가비 여부: 정기하자투어(무료)

비정기하자투어(1인당 1만원)

장소: 하자센터 내·외부

총 사업비: 사업비 없음

총 참여인원: 총 956명(실인원)

하자센터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진로교육 공간이자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확장된 실험의 산실로 널리 알려져 연 평균 15개국, 1천여 명 내외의 교육 전문가, 교사, 공무원, 청소년 관련 활동가, 청소년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자센터는 정기 및 비정기 하자투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연간 10회 이상 진행하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진로교육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콘텐츠를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에는 교사 등 전문가 그룹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및 대상과 층위에 따른 맞춤형 / 체험형 투어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NO	일자	정기/비정기	내용
1	1.10	비정기 하자투어	대전 청소년대안교육센터 모임
2	1.10	비정기 하자투어	풀무학교 청소년
3	1.13	비정기 하자투어	하이원 베이커리
4	1.13	비정기 하자투어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5	1.13	비정기 하자투어	마포, 안산청소년수련관 임직원
6	1.19	정기 하자투어	1월 정기투어
7	1.25	비정기 하자투어	서울청소년수련관
8	1.26	비정기 하자투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9	1.26	비정기 하자투어	가양4 종합사회복지관
10	1.31	비정기 하자투어	아시아공동체학교
11	2.2	비정기 하자투어	구미 사랑고리 은행
12	2.3	비정기 하자투어	흥은 청소년문화의집
13	2.7	비정기 하자투어	참여연대
14	2.7	비정기 하자투어	더 나은세상-홍콩 대표단
15	2.8	비정기 하자투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6	2.10	비정기 하자투어	노원구청
17	2.16	정기 하자투어	2월 정기투어
18	2.16	비정기 하자투어	일본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관계자
19	2.18	비정기 하자투어	일본 와카야마현 공무원
20	2.23	비정기 하자투어	대구시 도시만들기팀
21	2.29	비정기 하자투어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
22	3.14	비정기 하자투어	3월 정기투어
23	3.26	비정기 하자투어	충신대 사회복지학과
24	4.5	비정기 하자투어	오사카 시립대학
25	4.6	비정기 하자투어	덕성여대
26	4.18	비정기 하자투어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무연수
27	4.19	정기 하자투어	4월 정기투어



28	4.24	비정기 하자투어	중국 청화대학교
29	4.30	비정기 하자투어	여성가족부 초청 말레이시아 교육 연수팀
30	5.2	비정기 하자투어	경서중학교 교사팀
31	5.8	비정기 하자투어	태봉중학교 교사팀
32	5.16	비정기 하자투어	서울시 초청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
33	5.17	비정기 하자투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팀
34	5.23	비정기 하자투어	남부교육청 및 강서지역 진로담당 교사팀
35	5.24	정기 하자투어	5월 정기투어
36	6.1	비정기 하자투어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37	6.7	비정기 하자투어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38	6.8	비정기 하자투어	경기 광명지역 진로담당 교사팀
39	6.28	비정기 하자투어	아쇼카재단 초청 해외 사회적기업가팀
40	6.29	비정기 하자투어	대전시 및 교육청, 언론 관계자
41	7.11	비정기 하자투어	스스로넷 대학생 인턴
42	7.11	비정기 하자투어	대구 남구청지원센터
43	7.18	비정기 하자투어	강원도 교육연구원
44	7.19	정기 하자투어	7월 정기투어
45	7.20	비정기 하자투어	다음 임직원
46	7.25	비정기 하자투어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팀
47	7.27	비정기 하자투어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멕시코팀
48	7.30	비정기 하자투어	부산발전연구원
49	8.6	비정기 하자투어	Intel China 사회혁신투어팀
50	8.16	정기 하자투어	8월 정기투어
51	8.22	비정기 하자투어	금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학과 대학생 인턴
52	8.29	비정기 하자투어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무연수
53	8.30	비정기 하자투어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무연수
54	8.31	비정기 하자투어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무연수
55	9.4	비정기 하자투어	부산 해운대구 일자리사업복지사업단
56	9.17	비정기 하자투어	영국 NESTA 대표 및 희망제작소 연구원



57	9.20	정기 하자투어	9월 정기투어
58	9.21	비정기 하자투어	울산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준비과정수강생
59	9.21	비정기 하자투어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싱가포르팀
60	9.21	비정기 하자투어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주관 징검다리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및 강사들
61	9.26	비정기 하자투어	일본 교육 단체 Cloudnine Education
62	10.04	비정기 하자투어	푸른시민연대
63	10.11	비정기 하자투어	일본 한국 현지파견 공무원 팀
64	10.12	정기 하자투어	강서구청
65	10.18	비정기 하자투어	10월 정기투어
66	10.26	비정기 하자투어	공간 만들레 주관 징검다리 과정 청소년팀
67	11.2	비정기 하자투어	대전 대안교육센터
68	11.14	비정기 하자투어	유네스코 주관 국제이해교육포럼 해외 게스트팀
69	11.15	비정기 하자투어	일본 문화협동네트워크
70	11.15	정기 하자투어	11월 정기투어
71	11.16	비정기 하자투어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학생팀
72	11.21	비정기 하자투어	공간 만들레 주관 징검다리 과정 청소년팀
73	11.22	비정기 하자투어	양천구청
74	11.26	비정기 하자투어	홍콩 교육관계자팀
75	11.30	비정기 하자투어	대구시 교육청
76	12.6	비정기 하자투어	한구사회적기업진흥원 초청 프랑스 인시아드팀
77	12.13	비정기 하자투어	성공회대 교육사회학 수강학생팀



대외홍보사업

사업 이름: 대외홍보사업

대상: 하자센터 및 연계 그룹들의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 및 활동가, 전문가 그룹 등

진행기간: 2012년 1월~2012년 12월

하자센터는 2012년 한해 청소년 진로교육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영역에 초점을 맞춘 크고 작은 사업 및 프로젝트들을 기획, 진행해 왔으며 이를 일반 대중 및 관련 전문가, 파트너 기관 및 그룹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데도 주력해왔다. 하자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는 하자투어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대외 홍보사업을 펼친 것도 하자센터가 그간 쌓아왔고 계속 축적하고 있는 진로교육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콘텐츠를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하자센터는 보도자료 발송, 취재 협조, 기획안 제안 등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직접 홍보, 공식 사이트인 하자넷 및 정기 발송되는 하자마을 뉴스레터, 하자센터 콘텐츠를 아카이빙하고 있는 아카이브 하자,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톨을 기획, 운영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사업 및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관련된 온&오프라인 포스터, 브로슈어, 리플렛, 자료집 등 비정기 간행물들을 꾸준히 발간, 하자센터의 성과를 콘텐츠화하여 사회의 자산으로 남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what we did in 2012

대외 홍보사업 현황

연 번	홍보 내용	대상	형태	비고
1	하자마을 뉴스레터 발송	하자넷 회원	웹 뉴스레터(월 1회 정기 뉴스레터 발송, 비정기 발송)	정기 12회 비정기 2회
2	하자넷(공식 사이트)	대중	홈페이지 자료 (수시 업데이트)	2012년 총 방문자 수 149196명(순 방문자 89638명, 페이지뷰 665032건)
3	SNS	대중	트위터, 페이스북 (수시 업데이트)	
4	아카이브 하자	대중 및 파트너 기관 및 그룹	온라인 아카이브 서비스 (사용자 아카이빙)	
5	프로젝트별 외부 홍보용 팸플릿 및 포스터 제작	프로젝트 대상자 및 대중	오프라인 배포 및 게시	
6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언론	보도자료 온&오프라인 발송	총 14건 발송

more info

사이트 www.haja.net

영어, 일어 블로그 <http://ej.haja.net>

아카이브하자 <http://archive.haja.ne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jacenter>

트위터 <https://twitter.com/hajacenter>



2012년 8/14차 연세대학교, 청신사



Amway 한스,

세이-하자센터 공동 창의인재 육성사업

익숙하는 친구구리



일자 : 2012년 7월 25일~27일

장소 : 하자센터

2012년 하자센터 및 하자마을 사람들을 다룬 주요 기사들

1. 학교 떠나는 학생 늘어...'교육 기회' 대책 시급 SBS 2012.1. 4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59347
2. 갈 곳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
KBS 2012.1. 4 <http://news.kbs.co.kr/society/2012/01/04/2414333.html>
3. [인터뷰] 전효관 하자센터 센터장 '공동체 붕괴가 청소년 문제 근본 원인'
아시아투데이 2012. 1. 4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79282>
4. 입시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힘을 키워준다
<http://www.womennews.co.kr/news/52128>
여성신문 2012.1.13
5. 한국암웨이, 하자센터에 10억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8/2012011800029.html
조선일보 2012.1.18
6. [조한혜정 칼럼] '여성 대표'들에게 거는 기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5502.html>
한겨레신문 2012.1.19
7. [조한혜정 칼럼] 나꿈수, 진화를 기대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7901.html>
한겨레신문 2012.2.7
8. 진학? 취업? 불안한 진로고민 신나게 풀어봐 ... 서울 '하자센터' 특별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830122&cp=nv>
국민일보 2012.2.14

9. 청소년 특별 진로설계 위한 'Plan B' 수립

<http://www.acrofan.com/ko-kr/live/news/20120215/00000039>

아크로팬 2012.2.15

10. 〈서울소식〉 하자센터, 특별진로설계 프로그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13301>

연합뉴스 2012.2.15

11.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위한 특별 진로 프로그램 마련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1513578294304&outlink=1>

머니투데이 2012.2.15

12. 하자센터, 청소년 특별 진로설계 프로그램 마련

<http://www.womennews.co.kr/news/52504> 여성신문 2012.2.17

13. 학력이나 사회통념 넘어, 조금 다른 삶을 상상해 보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202125055&code=940401

경향신문 2012. 2.20

14. [조한혜정 칼럼] 3월10일,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위하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1157.html>

한겨레신문 2012.2.28

15. 길을 찾고 싶어? 여기로 와봐!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19857.html>

한겨레신문 2012.2.20

16.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자

<http://www.womennews.co.kr/news/52682>

여성신문 2012.3.2

-
17. 하자센터, 청소년을 위한 진로설계 프로그램 개최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96378>
아시아투데이 2012.3.5

 18. 인류에게 경고 전한 후쿠시마
<http://www.womennews.co.kr/news/52796>
여성신문 2012.3.9

 19. 하자센터, '청소년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 포럼 개최
나눔뉴스 2012.3.10

 20. 하자센터 '청소년 토요일 학교 C-플랫폼' 오픈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05925>
아시아투데이 2012.3.15

 21. “승자·패자 낙인찍는 경쟁교육, 학교폭력·이지메의 공통 원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52208245&code=940401
경향신문 2012.3.15

 22. “학교·사회의 경쟁주의가 학교폭력 불러” 야마모토 코헤이 교수 인터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316027026&keyword=하자센터>
서울신문 2012.3.16

 23. ‘사고뭉치들과 놀아봐요, 학교폭력 줄어요’ ‘청소년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 포럼 취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3694.html
2012.3.16 한겨레신문

 24. 문제아를 가족처럼... ‘가위손 천사’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3/h2012031602354521950.htm>
한국일보 2012.3.16
-

25. [조한혜정 칼럼] 강정을 부탁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4330.html>

한겨레신문 2012.3.20

26. [더 나은 미래] 처벌로 일관 말고 교실 분위기 바꿔야

‘청소년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 게스트 사토 요사쿠 대표 인터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6/2012032601927.html

조선일보 2012.3.27

27. [더 나은 미래] 전문가·정부 중심 아닌 ‘청소년 중심’... 경쟁보다 문화예술 교육 강화한 ‘행복 학교’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6/2012032601913.html

조선일보 2012.3.27

28. 하자센터 ‘놀토 EXPO 포럼’ 개최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19622>

아시아투데이 2012.4.2

29. [조한혜정 칼럼] 즐거운 탈주의 하루를 보내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7654.html>

한겨레신문 2012.4.10

30. 하자센터, ‘자공공포럼 1: 청년, 지역을 만나다’ 개최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29224>

아시아투데이 2012.4.23

31. [조한혜정 칼럼]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앙코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0734.html>

한겨레신문 2012.5.1

-
32. 하자센터 '청소년 자립 교육포럼' 9일 개최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33873>
아시아투데이 2012.5.2
33. 하자센터 '영등포 달시장' 25일 첫 개장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43085>
아시아투데이 2012.5.21
34. [조한혜정 칼럼] 페이스북에서 놀 자유, 빅브러더를 부르는 손짓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4073.html>
한겨레신문 2012.5.22
35. 지역민과 함께 하는 '영등포 달시장'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215&r=view&uid=231769>
환경일보 2012.5.26
36. 하자센터 주관 '영등포 달시장' 가보니...주민들이 들고 나온 생활용품 싼값 거래 '살가운 정은 덤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110639&cp=nv>
국민일보 2012.5.29
37.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위한 '대안학교 축제' 개최
<http://www.acrofan.com/ko-kr/live/news/20120529/00000002>
아크로팬 2012.5.29
38. 지역 커뮤니티의 생생한 현장 '영등포 달시장'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211&r=view&uid=231957>
환경일보 2012.6.1
39. 학교 밖 청소년들 가슴에 '희망의 별'이 뜨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034515&code=940401
경향신문 2012.6.4
-

-
40.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의 범위가 넓어졌다”
도심형 비인가 대안학교 ‘하자작업장학교’에 다니는 최하은·김해주 양 인터뷰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29>
시사저널 2012. 6.6
41. [조한혜정 칼럼] 고립과 부유함을 벗어나 농활과 빈활을 떠날 때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7354.html>
한겨레신문 2012.6.12
42. 커가는 대안학교, 숨막힌 공교육 숨통 틔워줄까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30>
시사저널 2012.6.7
43. 하자센터, 청년 아카데미 ‘하자허브 여름학교’ 참가자 모집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55201>
아시아투데이 2012.6.15
44. 공부와 삶, 연결해주는 대안공간의 활동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38234.html>
한겨레신문 2012.6.18
45. 하자센터, ‘파비에-하자 국제포럼’ 22일 개최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57590>
아시아투데이 2012.6.20
46. [더 나은 미래] [사회적기업 2.0 시대가 왔다] ③사회적기업의 현재와 고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5/2012062501623.html
조선일보 2012.6.26
-

-
47. 후쿠시마 1년, 공포와 맞서는 일본인의 '수국 혁명'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629161717
프레스이안 2012. 6.29
48. [조한혜정 칼럼] 유쾌한 청년들의 '삽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0785.html>
한겨레신문 2012.7.3
49. '죽돌'과 '판돌'이 창의성 높이고 미래 삶 설계
하자센터, 한사람을 위한 창의적 학습 추구하는 마을
대전내일신문 2012.7.11
50. 마을장터 달시장
모두가 어울리는 나눔의 축제
디자인정글 매거진 2012.7.13
51. 환경·건강·문화를 생각하는 '대안식당' '오요리'와 '카페 슬로비'
연계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 소개 기사 중 언급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211&r=view&uid=235419>
환경일보 2012.7.16
52. 하자센터, 어린이 창의디자인 캠프 개최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73076>
아시아투데이 2012.7.24
53. [조한혜정 칼럼] '보이지 않는 가슴' 되살려낼 육아정책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4022.html>
한겨레신문 2012.7.24
-

54. 지속가능한 '된장질'... 이거 나쁘지 않은데?
서울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가득... '서스테이너블'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하자허브 여름학교 소개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2818
오마이뉴스 2012.7.31

55. [조한혜정 칼럼] '블록 어택'에 맞선 '도시 마을'의 산들바람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7108.html>
한겨레신문 2012.8.14

56. "학생들의 성적 경쟁·획일화 막아보려 다양한 배움의 공동체 '개풍관' 세워"
하자센터 후원 강연회 게스트 인터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12126245&code=960205
경향신문 2012.8.21

57. 수요일엔 '수북한 밥상'을
하자 허브 카페 소개
<http://www.hani.co.kr/arti/society/ngo/548264.html>
한겨레신문 2012.8.22

58. 한국 온 우치다 다쓰루 전 고베여자학원대 교수
"글로벌기업 이익 높이려 젊은이들 규격화시켜"
<http://www.womennews.co.kr/news/54465>
여성신문 2012.8.24

59. "유난히 작은 평양 아이들 눈에 밟혀서..."
하자 허브 카페 소개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49109.html>
한겨레신문 2012.8.28

60. 한일 청년 현장포럼 참가자 모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83203>

연합뉴스 2012.8.29

61. 서울시, 9월6일부터 이틀간 '한·일 청년 현장포럼'

<http://news1.kr/articles/793660>

뉴스1 2012.8.29

62. 청년문제 해결, 한일 청년들이 뭉친다

서울시 한일 청년포럼 참가자 모집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3&newsid=01800726599632240&DCD=A01504&OutLnkChk=Y>

이데일리 2012.8.29

63. 하자센터, 한·일 청년 현장포럼 6~7일 개최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91561>

아시아투데이 2012.9.3

64. [조한혜정 칼럼] 한 아이를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0139.html>

한겨레신문 2012.9.4

65. 1인가구 대신 '쉐어하우스'에 사는 이유?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1109252920781&nvr=Y>

아시아경제 2012.9.12

66. 서울시,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

<http://news1.kr/articles/820570>

뉴스1 2012.9.19

67. 서울시, 청소년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 토론회 21일 개최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919000395>

아주경제 2012.9.19

68. 서울시,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24816>

연합뉴스 2012.9.19

69. 한국암웨이, '어린이 창의페스타' 개최

<http://www.acrofan.com/ko-kr/commerce/news/20120920/00000036>

아크로팬 2012.9.20

70. 한국암웨이, 어린이 창의력 키워주는 文藝 프로그램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2016404600663&outlink=1>

머니투데이 2012.9.20

71. 한국암웨이, 창의인재 육성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 프로그램 실시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920000333>

아주경제 2012.9.20

72. 한국암웨이, '어린이 창의 페스타' 개최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459124&cp=nv>

쿠키뉴스(국민일보) 2012.9.20

73. 서울시,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열려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220&r=view&uid=240697>

환경일보 2012.9.21

74. 한국암웨이, '생각하는 청개구리' 창의교육 축제 펼쳐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20921022602&subctg1=&subctg2=&Out>

Url=naver

세계일보 2012.9.21

75. '성폭력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좌담회
"옆집 아이도 내 아이처럼 관심 가져야"

<http://www.womennews.co.kr/news/54753>

<http://www.womennews.co.kr/news/54762>

여성신문 2012.9.21

76. 한국암웨이, '어린이 창의페스타' 성황리에 마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2411322944675&nvr=Y>

아시아경제 2012.9.24

77. 한국암웨이, 어린이창의페스타 행사

한국암웨이와 함께하는 '생각하는 청개구리' 사업 소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2414362981921&outlink=1>

머니투데이 2012.9.24

78. 한국암웨이, '어린이 창의페스타' 성황리에 마쳐

한국암웨이와 함께하는 '생각하는 청개구리' 사업 소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2411322944675&nvr=Y>

아시아경제 2012.9.24

79. [청년드림]"청년들 일자리 고민 덜고 꿈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

하자센터 임경진 대외협력팀장 청년드림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http://news.donga.com/3/all/20120925/49648643/1>

동아일보 2012.9.25

80. [더 나은 미래] 상상력이 만드는 축제 '어린이창의페스타'

하자센터 주관 '어린이창의페스타' 소개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4/2012092401781.html

조선일보 2012.9.25

-
81. [조한혜정 칼럼] 선거, 합의를 모아내는 예술 한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3309.html>
한겨레신문 2012.9.25
82. 후지무라 대표가 제안하는 ‘3만엔 비즈니스’“월 40만원 버는 착한 일거리 어때요”
2012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게스트 후지무라 야스유키 대표 인터뷰
<http://www.womennews.co.kr/news/54782>
여성신문 2012.9.28
83. 서울의 ‘길’에서 도시계획을 찾다
전효관 하자센터장 토론자 참여 ‘서울플랜 토론한마당’ 기사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245&r=view&uid=241397>
환경일보 2012.9.28
84. 한달에 6일만 일하기...더 행복해졌습니다
[서평] <3만엔 비즈니스-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하기>
2012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게스트 후지무라 야스유키 대표 국내 서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4352
오마이뉴스 2012. 9.29
85. [조한혜정 칼럼] 특별학년제를 제안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6067.html>
한겨레신문 2012.10.16
86. <99%의 경제> “공공건물, 주말·밤에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6449.html
한겨레신문 2012.10.18
88. [제민열린광장]‘청소년 하자센터’ 설립 미루지 말자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628>
제민일보 2011.11.1
-

-
89. [조한혜정 칼럼] '살림의 생명정치'가 싹트는 밀양을 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9287.html>
한겨레신문 2012.11.6
90. “수능 끝! 고3 수험생을 위한 드림토크에 놀러오세요”
수험생이 참여하면 좋은 문화예술 명예교사 프로그램
http://www.newswave.kr/sub_read.html?uid=230988
뉴스웨이브 2012.11.8
91. “수능마친 수험생 모여라” 서울 프로그램 풍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22364>
연합뉴스 2012.11.9
92. 수험생이 참여하면 좋은 문화예술 명예교사 프로그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09000325&md=20121112003140_AK
헤럴드경제 2012.11.9
93. 하자센터, 고3과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2012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진행
<http://www.vop.co.kr/A00000561326.html>
민중의 소리 2012.11.11
94. 청소년 위한 좌절금지 프로젝트
<http://www.1318virus.co.kr/A00000561348.html>
바이러스 2012.11.11
95. 고3 청소년 위한 '2012 좌절 금지 희망프로젝트' 진행
<http://www.brainmedia.co.kr/brainWorldMedia/ContentView.aspx?contIdx=10334>
브레인미디어 2012.11.12
-

96. 17일부터 '열 아홉의 겨울을 응원한다!'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http://eroun.net/35933>

이로운닷넷 2012.11.12

97. 수능끝난 고3, 문화예술 강의 들어볼까?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63807&ctg=1200

중앙일보 2012.11.12

98. 하자센터 고3 대상 '희망토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623624&cp=nv>

국민일보 2012. 11.13

99. 영등포 하자센터...희망토크 '괜찮아, 열아홉살'

http://ngo-news.co.kr/sub_read.html?uid=40126§ion=sc4§ion2=

한국NGO신문 2012.11.13

100. "서귀포에 청소년하자센터 설립돼야"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534>

제민일보 2012. 11.15

101. 하자센터, 비진학 청소년 인생설계 돕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92018155&code=940401

'2012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소개'

경향신문 2012.11.19

102. 대안교육 전문가, 대전창의센터 설립 위한 포럼개최 -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가 아닌 미래자원"

내일신문 2012.11.19

103. [동영상] 좌절금지! 청소년 희망프로젝트(1)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 "이곳을 주목하라"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36738>

아시아투데이 아투뉴스 2012.12.6

104. [조한혜정 칼럼] 여성 대통령? 아직은 갈 길이 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2570.html>
한겨레신문 2012.11.27

105. 혈연 중심의 가족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는 가슴’ 작동하는 사회 만들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66968>
연합뉴스 2012.12.3

106. [조한혜정 칼럼] 인터넷 세계지도, 누가 그리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5966.html>
한겨레신문 2012.12.18

통번역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사업 이름: 통번역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대상: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 통번역 전문가

진행기간: 2012년 1월~2012년 12월

참가방법: 민간 NGO 관련 통번역 작업을 해왔던
전문가들 중 하자센터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일대일로 발굴 및
섭외했으며 공개 모집을 통해서도
발굴해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참가비 여부 : 참가비 없음

장소 : 하자센터 내·외부

총 사업비 : 사업비 없음

총 참여인원 : 10명

하자센터가 주최 및 주관하는 국제 포럼, 세미나 등 해외 교류 사업에 참여하면서 하자센터에 관심을 갖게 된 전문 통번역 전문가 그룹이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통번역 작업은 수요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작업을 의뢰하고 완료가 되면 다음 수요가 생겨날 때까지 소통이 끊기는 등 지속적인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통번역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제 4섹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들 섹터에 참여할 수 있는 초기 단계로서 자원활동에 주목했고, 하자센터 역시 새로운 영역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출발하게 되었다.

what we did in 2012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 두 달 동안 영어와 일어 전문 통번역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미팅을 가지면서 통번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참여 의사를 타진했으며 2012년 2월 참여 의사가 있는 통번역자들 6명(영어 3명, 일어 3명)이 확정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일단은 하자센터 교류 사업에 몇 차례 참여하면서 제 4섹터에 관심이 높아진 이들을 묶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일로서 하자센터 영어·일어 블로그 오픈을 기획하게 되었다. 하자센터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업데이트된 외국어 사이트나 블로그 등이 없던 상태여서 해외 협력 파트너들이 접속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월 1회 발행되는 하자마을 뉴스레터(국문)의 주요 칼럼을 번역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통번역 인력이 필요한 하자센터나 연계 기관, 사회적기업 등의 해외 교류 사업 등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통번역 전문가들이 번역해 준 콘텐츠는 하자 외국어 블로그 및 페이스 북 등에 게시되어 축적되었다. 초기 멤버 중 개인 사정으로 하차를 한 경우가 발생하여 다른 멤버를 모집했으며, 아예 사업별로 별도로 통번역자를 모집하여 자원활동단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세부 프로그램 진행

- 하자마을 뉴스레터 주요 칼럼 한영/한일 번역
- 외국어 블로그 오픈 및 콘텐츠 정기적 게시
- 교육포럼 2 '청소년 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 한일 통역
- 자공공포럼 1 '지역, 청년을 만나다' 한일 통역
- 서울시 청년 혁신 일자리 책자 <일, 청년을 만나다> 해외 인터뷰 대상자 서면 인터뷰 번역
- 일본 <Big Issue Japan> 2012년 191호 한국특집호 일한 번역
- 2012년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공식 초청문 등 한영/한일 번역
- '한일 청년 현장포럼-삶의 기반을 만드는 청년들, 지역을 살리는 청년들' 한일 통역
- 하자센터 브로슈어 한영 번역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지난 1년간 진행된 사업의 성과로는 다양한 해외 교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콘텐츠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문 통번역자 그룹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을 첫번째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매년 하자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게스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들이 돌아간 뒤 하자센터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매개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큰 성과이다. 참여자 면에서 본다면 몇몇 통번역자의 경우 단순한 자원활동을 넘어

하자센터 혹은 사회적기업 등 제 4 섹터 전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 긴밀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번역 작업을 매개로 해 이들 전문가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일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루트를 만들거라 했던 기획은 성과가 없었다고 본다. 일단은 기획자의 여건상 더 세밀하게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설계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했으며 두번째로 오프라인 모임 등 통번역자들이 더 긴밀하게 묶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고자 했으나 실제 참여자들은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획자가 참여자 그룹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춰 본다면 앞으로 참여 통번역 전문가들의 의지와 상황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그에 맞게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도 외국어 블로그 콘텐츠 번역 등 자원활동 위주로 진행하면서 하자센터 및 연계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진행되는 해외 교류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당초 기획과는 달라졌으나 통번역 전문가들이 하자센터 사업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루트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세밀하게 과정을 기획해 향후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하자센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네트워크로 키워내야 할 것이다.

more info

외국어 블로그 <http://ej.haja.net>

Haja Center (English&Japanese Blog)

ABOUT HAJA CENTER | NEWSLETTER (ENGLISH) | NEWSLETTER (JAPANESE)

About Haja Center

Haja Center, established at 18th of December, 1999, has been operated by Yonsei University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trusted. Its official title is 'Seoul Youth Factory for Alternative Culture'. Haja Center is a byname for "Upgrade our life," "Do what we want while doing what we must," "Discipline of autonomy and symbiosis".

The main idea for Haja Center was based on va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in the contex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8. Every generation suffered various cris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Yonsei University focused on the way how teenagers can live, practicing social sharing without losing vitality in the risk society of 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where they will spend their twenties and thirties. Put our heads together, we have opened Haja Center as Government-People-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n early days, we were seeking mutual improvement by making creative help, carrying out various apprentice education with artists in various fields, young planners and teenagers, operating five studios of web, film, music, design, civil workshop. Based on those foundation and experience, we have established Haja Production School in 2001. Noridan and Organization Y'ori, both started as venture incubating project, received governmental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 in 2006 and 2008. Also, creativity program lineups provide services for general teenagers.

13 years has passed since establishment, Haja Center is now providing career design for teenagers, support of community business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for young adults and middle-aged to create sustainable employment. Now, Haja Center is consist of five alternative schools, several programs for teenagers, nine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in the field of art and culture. As a result, Haja Center becomes a village of dreaming sustainable life where people from various generations learn with creativity, live on doing things that are helpful to the earth. They are doing interesting activities to live better life in Haja Village, establishing invisible, as well as visible village.

Recent Posts

- 'Guidelines for youth activists who travel maze so-called project planning'
- 事業企画という迷路を旅する青少年教育の活動家のためのガイド
- あまのじゃく、探検を語る
- ハジャ・ハブより新年のご挨拶
- New Year's Greeting from Haja Hub

Recent Comments

- Melle on Youth NANGAM (Korean words meaning "Challenge") Group. Seeking for "intermediate (Transition) Environment."
- Akash on 青少年の土曜学校C-plat (Creativity Platform) ... 3日からのスタート

3.마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에듀케스트라



에듀케스트라는 첫째, 'Educate Creative Orchestra'로 '창의적인 오케스트라를 교육한다'는 의미이고 둘째, 내면의 힘을 끌어낸다는 의미의 'Edu-'와 코러스 무대를 일컫는 'Orchestra'가 합쳐져서 '내면의 힘을 끌어내는 무대'라는 의미가 있다. 이 두 의미를 합쳐 'Educhestra'는 내면의 힘과 소리를 끌어내는 창의적인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의 이름이 되었다. 에듀케스트라는 창의적인 음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악으로 자신(내면)의 소리를 공연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교육과 공연을 통하여 무기력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클래식악기와 국악기의 대중화를 통한 문화음악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해, 최종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건강한 문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교육 사업인 '춤추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여명 트롬본 콰이어', '나무를 심는 학교'는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꾀하며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음악놀이 교육의 장이고, '한 달 만에 악기 마스터하기'와 '친구밴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하는 세대통합 교육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음악과 악기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창의적 교육의 장이다. 공연 사업인 '블라썸'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행사 및 축제에서 양악과 국악을 융합한 음악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으며 'NCA'는 아마추어와 전문가들이 함께 재능나눔 콘서트를 통해 이웃과 음악을 공유해나가고 있다. 이밖에 유아 및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한 음악극 사업은 신나게 놀면서 음악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하는 체험극 형태로 구성, 자발적인 악기 및 음악 접근을 가능하게 하도록 기획되고 있다.

what we did in 2012

분류	사업명	사업내용(목표 및 비전)	진행사항
교육사업	춤추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들을 위한 장기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악기와 댄스를 교육하여 성취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팀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키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무엇인지 습득하도록 한다.	노원구 내 5개의 학교와 2개의 동아리 학생들로 악기 레슨은 각각 이루어지나 댄스 수업과 음악 캠프, 지역 축제, 재능 기부, 정기 연주회는 함께 진행 연인원 : 3천 822명
	여명 트롬본 콰이어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재학생들이 대상으로, 이들이 예술을 접하여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리·정서적 상처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하며, 합주를 통해 협동심 및 소통의 능력을 발달시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1학년 ~ 3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으로 트롬본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 대상으로 진행 4월~12월까지 진행 연인원 : 720명
	나무를 심는 학교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국악기와 금관악기를 배우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찾아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7월~10월까지 복지기관을 창구로 초등학교~고등학교 신청자 모집. 주 1회 2시간씩 금관악기와 국악기 레슨을 재능기부로 진행 연인원 : 160명
	한 달 만에 악기 마스터 하기	1개월 동안 진행되는 단기 집중 악기교육 프로그램으로 연주 원리를 단순하게 정리해 전달함으로써 악기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음악이론 교육도 포함되며 1개월 내에 비교적 쉬운 독주곡, 앙상블곡, 합주곡을 각 한 곡씩 연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1월과 7월, 10월에 각각 진행되었고(총 7기, 주 3회, 하루 2시간씩 교육), 12월에는 1기생부터 7기생들이 모여 '한 달이 갈라 쇼'를 재능 나눔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진행했다. 연인원 : 1,606명



	친구 밴드	심화 악기교육을 제공, 전문강사를 양성해 문화예술계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들이 아마추어 퓨전오케스트라를 결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이 직장인 회원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모여 앞으로 퓨전 오케스트라로서의 활동이 기대된다.	주1회 교육, 150분의 연습시간을 가지며, 연 5회 연주회 및 연 1회 캠프를 진행한다. 지난 4월, 첫번째 정기연주회를 통해 아마추어 퓨전오케스트라의 모습을 갖추었다. 연인원 : 2,677명
	감감감 음악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부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에게 음악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단기간에 악기 연주 실력을 높여 향후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욕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기수 당 12회차 수업으로 총 3기까지 진행 연인원 : 3,132명
공 연 사 업	블라썸	Blossom(블라썸)은 '꽃이 피다. 얼굴이 피다'라는 의미로서, 서양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 재미있고 쉬운 클래식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상업화되어가는 공연 문화를 벗어나 단순한 쇼가 아닌 관객을 치유하는 음악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수의 기업 행사와 지역 축제 공연을 비롯, 코레일(공향철도) 홍대입구역과 서울역 등에서도 수회 공연 진행 연인원 : 4,060명
	NCA	NCA(Nanum Concert Association)는 재능을 의미있는 곳에 나누고자 하는 음악인들의 모임으로 '공연 나눔'이라는 기부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SOS 어린이마을'에서 진행하는 행복나눔 콘서트와 바자회 등에 참여, 공연 진행 연인원 : 1,405명
	음악극	'놀이터에서 만난 금관악기'라는 제목으로 두 남녀 어린이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음악을 더 흥미롭게 느낀다는 내용이다. 일반 공연들과 달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음악과 금관악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공자가 직접 이야기를 창작했다. 참여자들은 음악극을 보면서 실제로 악기체험을 할 수도 있다.	재능 기부로 진행 연인원 : 100명



영화제작소 눈



영화제작소 눈은 영화인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전망 속에서 사업으로서의 영화와 운동으로서의 영화라는 좀처럼 좁혀질 수 없는 두 영역을 결합해보려고 노력해 왔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3대 대기업 영화사의 독점구조(투자,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계열화 체계)로 인해 생태계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 규모의 영화사들은 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우리 시대의 영화들은 점점 더 종합선물세트 같은 소비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조건들은 소형 영화사들에게 무자비한 생존경쟁의 압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각성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영화·영상산업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또한 그 시스템 외부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영화제작소 눈은 우리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을 영화와 연결시키고, 소규모 영화사들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고민하면서, '영화·회사'의 새로운 모델을 창안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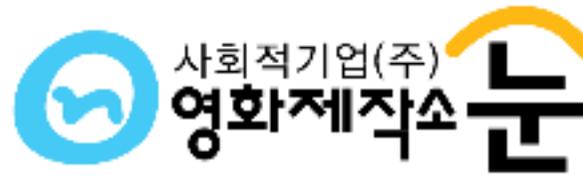
눈의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 상영

둘째, 영상제작교육, 영화강좌, 상영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셋째, 영화인들이 좀 더 나은 고용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지원

위의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영화제작소 눈은 영상제작사업부, 미디어교육사업부, 연기자일자리매칭사업부로 나눠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의미를 지닌 영상콘텐츠의 배급과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제작사업 브랜드



교육사업 브랜드



일자리 매칭 사업 브랜드



what we did in 2012

Makers 눈 : 영화사의 정체성은 '영화를 만든다'는 행위에 기반을 둔다. 영상제작은 이런 측면에서 영화사의 가장 핵심 사업이자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영화사는 장편 상업영화에서 홍보영상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상제작 영역에서, 더 뚜렷한 자기규정을 통해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영화의 사회적 가치란 연이어 영화제작의 윤리와 연동되어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내용과 형식의 영상물을 만들어 낼 것인가? 메이커스 눈은 이런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응답들'에 붙인 이름이다. '만드는 자'의 책임과 위치로부터 동심원적으로 파생되는 건강한 풍토에 대한 염원이기도 하다. 메이커스 눈은 2009년 소규모의 UCC 제작을 시작으로 지난 4년간의 길을 걸어왔다. 지그재그로 걸어온 고군분투의 흔적을 '양적 팽창(경험과 포트폴리오의 축적)'이라는 X축으로 놓는다면, 다큐와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통해 사회적기업 영화로서의 방향을 가늠했던 성과는 Y축의 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메이커스 눈은 영화제작소 눈만의 고유한 영상제작 스타일이라는 Z축을 그려가려고 한다. 입체적인 좌표를 통해 지난 시간들의 성과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성좌(constellation)를 상상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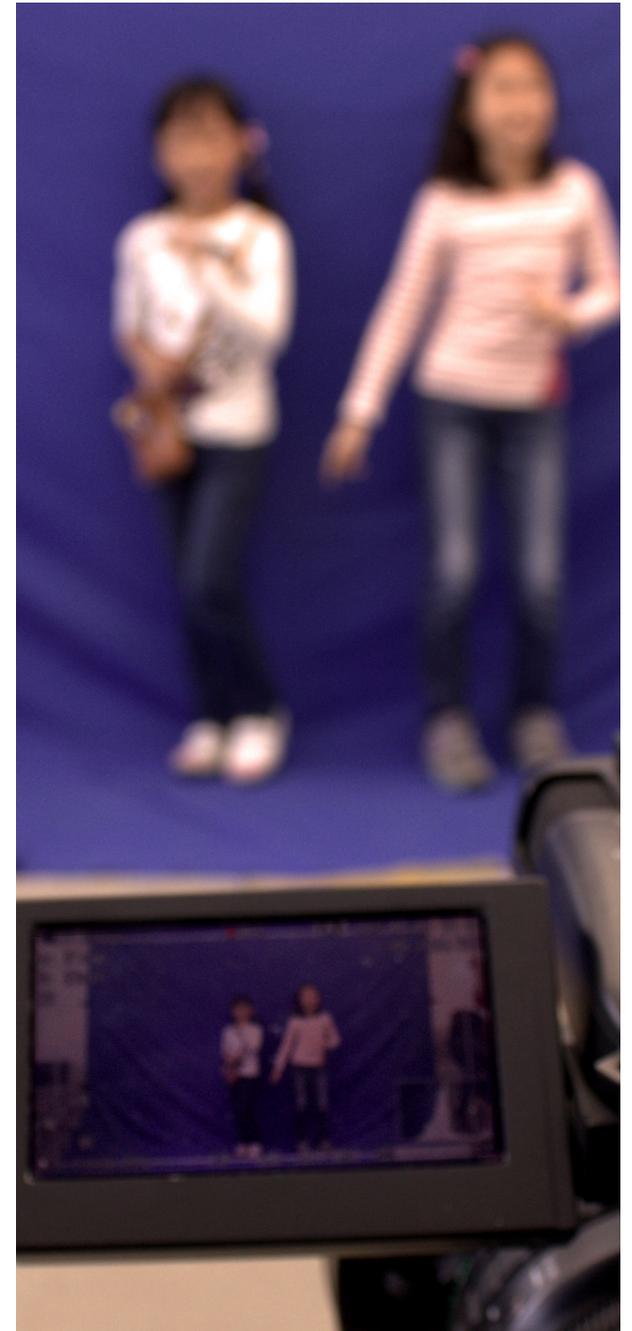
Actors 눈 : 메이커스 눈이 뿌리라면 액터스 눈은 줄기라고 부를 수 있다. 영화제작소 눈에 인력매칭사업은 소설 미션의 구체적 경로이다. 영화 인력의 고용불안이란 난공불락의 성처럼 술한 해결책들이 어느새 묘연해지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영화인들에게 영상제작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드는 것은, 영화산업의 변화를 위한 진정한 기초 작업이다. 영화산업이란 영화인들이 시각매체라는 물질성을 두드리고 연마하면서 얻어낸 결과물들의 총체이기 때문에, 영화인의 무늬가 바뀐다면 영화산업의 무늬가 변화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영화인들이 영화를 하면서 먹고 사는 바탕이 마련된다면, 영화에 대한 더 지속적인 훈련과 고민이, 관객이 만나게 될 영화 속에 점차 배어들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액터스 눈은 영화인의 ‘먹고 살기’의 해결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인력매칭 시스템의 첫 단계이다. 대학로 연극인들의 TV와 영화 출연기회를 돕기 위해 캐스팅 디렉터가 활동하는 것이다. 추후 액터스 눈의 매칭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이는 촬영 편집 등 더 많은 직무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눈뜨자○○ : 교육은 만개한 꽃이다. 진정한 변화란 가장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실리는 법. 영화제작교육은 영화산업의 외부에서 ‘영화를 작동시키는 아직 오지 않은 변수’들을 발견하게 해준다. 이것은 탐험이거나 지도를 그리는 일이다. 인문학의 틀 속에서 영화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 고정된 자리를 계속 이동시키는 것, 그리고 영화가 여전히 인간을 견인해주는 그 힘을 숙고하는 것이다. ‘눈뜨자○○’은 이중적인 전언이다. 우선은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눈뜸’이다. 꿈-문학-무의식-신화-광학기계-할리우드-게임 등의 종차와 결부될 때 생성되는 영화의 상대적 진위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공유는 영화를 향해 ‘들어가는 것’이다. 영화의 내부. 거기에서 이제 ‘영화가 바라보는 편집하는 세상’으로 튕겨져 나온다. 영화에서 현실을 향해 ‘튀어 나오는 것’이다. 영화를 경유한 ‘현실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눈뜸. 이 들고남의 이중적 눈뜸이 ‘영화-교육’에 대한 영화제작소 눈의 입장이다.

세부 사업내역

- 기업, 단체, 프로모션 등의 홍보영상 : 서울농수산유통공사 <도매시장 긍정컨텐츠>,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사업 홍보영상, 문래공연예술네트워크 <문래, 動> 기록영상, 대안장터 <영등포 달시장> 기록영상, 전국 문화장터 네트워크 <별시장> 기록영상, 부천문화재단 <창의소셜컨텐츠발표대회> 기록영상, <놀라운 오케스트라> 홍보영상, <2012 성북진경 페스티벌> 기록영상, <성북에서 00을 하고 싶은 청년들> 기록영상, 암웨이-하자 청소년장학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 기록영상, 연세의료노동조합 <50주년 기념 홍보영상>, 한국남동발전(주)영흥화력본부 <발전기술처 영상홍보물>, 사회적기업 (주)오르그닷 <결혼식 이벤트영상>, <2012 우리시대 예술가의 명강의> 기록영상,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온라인 교육영상>

-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DVD 제작 : <내 친구 외갓집은 산호세>(2012 EBS 방영) 외 다수
 - 영화, 영상 제작 교육 : 저소득층 소외계층 제공 영상교육 프로그램 ‘눈뜨자학교’, 인천 남동구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레디-액션 영화기행’, 다음커뮤니케이션 CSR팀 연계 영화캠프 프로그램 ‘IT ProBono’ 등 진행

- 연기자 일자리 매칭사업 : JTBC드라마 <친애하는 당신에게> 40여 명 매칭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013년의 영화제작소 눈은 그동안 방치했던 질문들에 솔직하게 응답하려고 한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소셜 미션에 대해서 더욱 진지한 고민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노동부 일자리 지원 종료를 대비한 재정자립형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한편으로 메이커스 눈은 고유의 영상제작 스타일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액터스 눈은 네트워크 사이트 제작을 통해 인력매칭의 허브 역할을 실험해 나갈 것이다. 눈뜨자○○은 ‘한마음의 집(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의 영화제작 교육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more info

사이트 <http://nu-n.co.kr>

트위터 http://twitter.com/FilmFactory_Nun

페이스북 <http://durl.me/2y82ha>



오가니제이션 요리



오가니제이션 요리는 2007년부터 하자센터에서 인큐베이팅되어 2008년 노동부 인증된 사회적기업으로서 청소년과 여성의 요리를 통한 배움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회사다. 회사 설립과 성장의 이유가 '사람'에서 출발하였고, 비즈니스의 방향을 친환경 '요리'를 통해 증명하면서, 이로써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에 뜻을 두고 있다. 청소년 요리대안학교 '영셰프스쿨'을 운영하면서 '일터'가 곧 '학교'라 여기며 배움과 성장, 자립이 순환되는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조직문화를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일터를 서로를 살리는 삶의 커뮤니티로 보며 친환경 외식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비전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 청소년, 이주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 자원이 없는 이들에게 요리를 통해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로컬푸드, 직거래, 얼굴 아는 거래를 실천한다. 셋째, 식문화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생각해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hat we did in 2012

- * 외식사업 : 다문화레스토랑 '오요리', 커뮤니티 카페 '슬로비', 도시락 딜리버리 서비스와 케이터링 서비스 등 '찾아가는 오요리' 서비스, 급식, 카페 창업
- * 교육사업 : 청소년 요리 대안학교 '영셰프스쿨', 식문화 교육 및 워크숍
- * 외식 컨설팅 및 브랜딩 : 지역 외식 비즈니스 메뉴 개발, 교육, 컨설팅 및 지역 특산품 브랜딩
- * 식문화콘텐츠 개발 : 격월간 <슬로비생활> 발행, 요리 전문잡지 <에센> 연재, 식문화워크숍 '오-라잇 테이블' 연구개발 및 운영 등

세부 내용

* 매출 실적

2012년 매출액 977,438,038원(목적사업 157,116,670원 포함)

* 2012년을 기점으로 어린이방 교육팀과 출장 서비스팀 등 사업팀 분사로 인한 팀 축소에 비교하여 2011년 대비 직원 1인당 매출 43% 증가 효과

* 고용인원 : 20명(2012년 12월 현재)

* 사회서비스/교육서비스 실적

기업명	오가니제이션 요리			
	서비스 내용	수혜대상	인원	연인원
사회 서비스 제공	결혼이주여성 인턴십	결혼이주여성	7	470
	결혼이주여성 직종개발 사업	결혼이주여성	15	320
	결혼이주여성 및 경력단절여성 요리강사 양성사업	결혼이주여성 및 경력단절여성	15	72
	청년인턴 지원	고등학교 및 대학생	6	360



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일문화 체험 프로젝트	취약계층 청소년	45	216
	기부, 사회기여 연합이벤트(함께가게 함께데이)	와락센터 청소년, 먹거리 운동 관계자 등	280	280
서비스	청년농사꾼 공간지원(파절이)	청년농부네트워크	24	24
제공	청년 무빙라이브러리 공간 지원(페퍼트리)	대학생, 청년	50	50
	사회적기업 현장방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참여자, 일반인, 외국인	200	200
	합 계		642	1,992



	교육 내용	참석대상	참석인원	연인원
교육/ 워크숍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요리워크숍	아동 및 청소년	60	60
	청년 사회적기업 카페 창업 교육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팀	6	20
	다문화여성 카페 창업교육	결혼이주여성	8	90
	영셰프 현장 인턴십	영셰프 수료생	4	858
	합 계		642	1,992



교육/ 워크숍	요리 전문 교육 - 밥집 운영실습, 베이킹 -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바리스타 - 핑거푸드, 장 담그기, 채식요리 외부 전문가 특강 등	영셰프 (17세~20세) 직업체험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징검다리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20	1,445
	소양교육 - 경영수업, 회계교육, 위생교육, 명상수업, 비폭력대화, 미각수업, 쿡 잉글리쉬, 실패를 위한 레시피북, 밴드수업, 성교육 등	영셰프 (17세~20세) 학교밖 청소년 징검다리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15	288
	농부체험	영셰프, 청소년, 일반	20	140
	테스트마켓	영셰프, 청소년, 일반	10	60
	식문화워크숍(오라잇 테이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165	165
	해외청소년 요리워크숍, 파티	라오스 청소년	60	60
	사회적기업 청소년특강	대안학교 청소년, 교사	12	12
	합 계		380	3,198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012년에는 카페 슬로비를 통해 구축한 신뢰의 결과로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외식업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비즈니스 모델 강화에 투자할 수 있었다. 특히 제철 식재료로 요리하는 친환경 밥상인 '그때그때밥상'을 도시락 메뉴로 개발해 '그때그때도시락'을 론칭했고, 이는 케이터링 서비스와 더불어 '찾아가는 오요리' 서비스로 브랜딩되었다. '그때그때도시락'의 포장용기는 옥수수전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PLA 소재로 개발, 일회용 용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셰프들이 직접 출전하여 H-온드림 지원사업에 선정된 성과에 이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수가 가장 많은 성북구를



기반으로 한 영세프 청년레스토랑 계획이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3천만 원의 초기 지원 및 6월 이후 성북 청년레스토랑 오픈으로 나머지 7천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대 카페 슬로비의 청년 버전으로 제주 슬로비와 성북 슬로비가 각각 2013년 내에 오픈을 앞두고 있다.

2008년 다문화이주여성 요리교육 및 고용을 시작으로 다문화 외식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왔던 오가니제이션 요리는 2013년 1월부터 다문화레스토랑 '오요리'를 (주)오요리아시아 독립법인으로 분사하였다. (주)오요리아시아는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성장과 진화의 한 축으로 향후 아시아 빈곤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소셜 비즈니스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2013년 오가니제이션 요리는 사업의 비전을 더 명료하게 설정하여 대안적인 외식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 실천은 '일터가 학교다'라는 모토 아래 배움이 살아있는 환경 친화적인 작은 식당, 커뮤니티로서의 일터에서 시작될 것이다.

more info

사이트 www.orgyori.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slobbie8

블로그 <http://blog.naver.com/slobbie8>

유유자적살롱(유자살롱)



음악하는 청년들이 모여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먹고 사는 방법을 찾는 커뮤니티이자 회사로서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삶의 곤란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음악이 가진 힘과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공연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what we did in 2012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

학교를 그만두고 할 일도 소속도 없이 무중력 상태로 지내는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통해 다시금 삶의 의지와 목표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7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이중 상당수가 무중력 상황의 문제를 겪는다. 청소년들이 무중력의 문제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의 가족과 학교, 마을 같은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오는 관계와 존재감의 결핍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오직 학습과 경쟁만 배워온 친구들은 스스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힘이 부족하다.

음악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놀이이다. 무중력 청소년들은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를 통해 친구들과 같이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 지내는 경험을 통해 삶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이런 과정을 거쳐 무중력 상황을 벗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준다.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는 기초반 3개월, 심화반 3개월로 이루어져 있다. 한 기당 10명 이내로 진행되며, 기초반을 수료한 뒤 지원자에 한해서 심화반을 편성한다. 월, 수, 금 일주일에 3회 진행되며 악기를 배우는 것과 단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반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달은 집에서 나와 새로운 공간과 사람에 익숙해지고 자기에게 맞는 악기를 찾는 단계. 두 번째 달은 함께하는 친구들과 같이 연주를 시작하는 단계로 같이 연습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작은 공연에 도전하게 된다. 세 번째 달은 합주에 몰입해 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단계이다.

심화반은 기초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중심을 형성하며 새로 들어온 기초반 친구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기초반과 함께 공연하는 것은 물론 하자 내외부의 여러 행사나 공연에 참여하면서 좀 더 주도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협력의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음악적으로는 연주와 이론 등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다.

유자사운드

유자살롱의 음악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밴드 프로젝트이다. 하자마을 내·외부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이 필요할 경우 유자살롱의 직원들은 유자사운드로 변신해 사람들에게 즐거운 음악을 전하고, 음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바람을 전한다.



직딩예대

삶에서 곤란함을 느끼는 것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다. 생존전쟁에 들어선 어른들도 먹고살기 위한 끝없는 경쟁과 소모 속에서 힘들 때가 있다. 유자살롱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의 직장인 버전인 직딩예대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동료로 만나고 같이 음악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주요 공연 및 행사

소셜벤처파트너스 / 하자센터 꽃씨파티 / SK 세상스쿨 개강식 / 세계문화예술교육 박람회 워크숍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청계천 여성인권진흥회 / 영등포 달시장 / 사회적기업 박람회 / 사회적기업진흥원 네트워킹 파티 /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니다> 출판기념회 / 오가니제이션 요리 4주년 행사 공연 외 다수

캔들나이트

신촌의 청년 자립 컵케이크 매장인 달콤한 co-끼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로서 한 달에 한 번,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촛불에 의지한 채 어쿠스틱 공연을 진행했다. 유자살롱의 네트워크 뮤지션들과 아마추어 뮤지션들, 유유자적 청소년밴드가 달콤한 co-끼리라는 소박한 공연장에 모여 거품을 뺀 소박한 소리를 담아낸다. 2012년 한 해 5회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촌 및 홍대 주변 청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 네트워킹 공간으로 조금씩 나아가고자 한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새로운 청소년 커뮤니티의 성장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의 경우 2010년 1기를 시작해서 현재 40여 명의 무중력 청소년들을 만나왔다. 일부는 기초반과 심화반을 마친 후에 다시 입시 준비를 시작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지만, 많은 친구들은 여전히 집밖에서 유유자적 같은 프로그램과 유자살롱이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연습공간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유자살롱의 구성원으로서 크고 작은 일을 돕고, 자유롭게 연습하면서 지냈다. 음악적인 역량을 키워가던 몇몇 친구들은 서로 밴드를 조직해 공연을 하기도 했고, 유유자적 청소년 밴드(이하 유자청)이라는 이름으로 유자살롱의 밴드인 유자사운드와 함께 공연하고 음악작업을 하기도 하며 서로 성장하고 있다.



무중력 청소년을 알리는 체계적 아카이빙 작업의 모색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창의적인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음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성격에 가까운 프로그램이지만, 한편으로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악기를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자신의 곡을 무대에서 즐겁게 연주할 수 있도록 실력을 끌어올린다. 이 과정에는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는 유자살롱 스태프들의 다양한 철학과 시각, 에너지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하루하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스태프들은 어떻게 그들의 에너지 레벨에 맞춰 이끌어가는지 등의 노하우를 기록, 축적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런 작업 역시 탈학교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유자살롱의 미션이자 의지라고 생각한다. 유자살롱은 일련의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안을 주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 진행되어 나가는지에 대해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음악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다각화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탈학교 청소년들만이 아니다. 20대 초반, 중반, 심지어 후반에 접어든 성인들도 연락을 해온다. 진학했지만 여전히 '무중력'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들 또한 많이 만났다. 유자살롱은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는 이들을 다 포용해 음악을 통한 즐거움이라는 경험을 제공하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 별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서 현재 달콤한 co-끼리 매장에서 무중력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음악 워크숍 프로그램을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more info

사이트 <http://www.yoojasalon.net>



이야기꾼의 책공연



이야기는 놀이. 이야기는 우리 삶 그 자체. 책을 통해 이야기의 힘을 발견하고, 책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며 소통한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다. '이야기꾼의 책공연'은 '책 읽는 사회'라는 과제에 대해 책임기를 잘 권하는 연극과 워크숍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야기꾼의 책공연'은 시각작업자, 음악작업자를 포함한 스무 명의 배우작업자공동체이며, 10대부터 50대까지 함께하고 있다. 해마다 어린이가 태어나고 오는 회사이다. 아기가 오고, 엄마의 출산 육아의 삶과 작업하는 삶이 함께하는 법을 수차례의 토론과 총회를 통해 다듬어 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 종료의 해를 맞이한 다섯 살 어린이 · 청소년 예술단체이기도 하다.

자살과 죽음의 기사들을 접한 2011년 연말로부터 이야기꾼의 생각들도 다시금 많아졌다. 하자마을 사회적기업들이 모였고 청소년을 둘러싼 지름을 읽어보려 했다. 경험과 분석과 언어를 나누었다. 함께 문제를 직시했고 은유를 길어 올리고자 했다.

압력사회 속 어린이 · 청소년에 대한 은유는 책임기를 잘 권하는 신작으로 이어졌다. 학교폭력과 방관자로 질문의 방향을 좁혀 본 포럼연극이 빛어졌다. 책임기를 잘 권하는 '이야기해결단' 프로그램으로 중고등학생을 예년에 비해 좀 더 많이 만나고자 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시대와 탈핵에 대해 은유와 풍자로 마주하고자 했다. 만 3세 이하 아기는 시민인가 아닌가? 이 질문은 야기연극으로 태어났다.

또한 더 다양한 전국의 지역을 찾고자 했다. 너른 범위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적 격차의 영향을 몸으로 기억하고자 했다. 한편, 오래 그리고 깊게 만나는 사회적 예술활동의 지지자이자 동료를 찾고자 성미산마을극장과 함께 마을과 예술가가 이웃하는 경험을 쌓아보고자 했다. 책과 예술을 통해 어린이를 만나는 지역 자원활동가의 성장과 모임에 보탬이 되고 싶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what we did in 2012

140번의 공연, 150회의 교육, 180여 군데의 마을과 동네를 만났다. 6작품이 태어났고, 1명의 아기가 왔다.

2012년 책공연 신작은 네 작품이다. 어처구니없는 말썽꾸러기들의 중형무진 성공할 뻔한 실패의 모험 이야기. 모든 것을 다 갖춘 듯 했으나 없었던 것, 몰랐던 것, 그리고 '친구'라는 낱말을 빚어본 작품이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삶을 반추하고 질문하도록 돕는 짧은 책공연도 만들어졌다. 선악의 평면 구도를 벗어난 이야기가 맛있는 1인극으로 태어났다. 기후변화시대의 과제를 빚대는 작품은 뮤지컬 마임극으로 현재도 빛어지고 있다. 5곡의 창작곡이 그 안에 살아 있다.

관객의 참여로 토론과 집단의 창의가 이루어지는 포럼연극 형식의 신작도 초연을 마쳤다. 책을 매개로 십대들과 만나는 작업은 서서히 넓혀졌다.

40개 시군구를 찾아다니던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간 격차가 어떤 영향을 놓고 어떤 진행을 보이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만약, 정책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기본이 되는 문화복지 예술향유 프로그램은 언제나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문화양극화가 남긴 골은 심각한 사회 비용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 본다.

아기연극은 아기와 배우가 교감하는 워크숍을 거쳐 대여섯 살 어린이들이 두 살 아기를 돌보며 공감하는 프로그램, 아기연극 워크숍을 통해 태어났다. 그리고 말해준다. 아기가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자기 식으로 연극을 보고 대화하고 있음을. 물론 그 반응 형태는 어른과 또 다르다는 점만 이해한다면 말이다.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번의 정기총회와 다수의 임시 총회, 4개월의 신년 토론, 4년의 돌아봄과 4년의 내다봄. 멈춤과 파고듦. 4년간 만들고 상연해 온 작품들은 더 촘촘해지며 빛나는 순간을 응축하는 새 살을 그 안에서 돌아낼 것이다. 2013년이 만나게 될 장면들이다. 숨을 고르며 다듬을 것이다. 4년의 꿈 그리기와 가는 길 찾기는 배우작업자공동체 구성원 전원의 상상과 성찰 속에서 빛어지게 된다.

해마다 작품을 빚어내기를 멈추지 않고 어린이청소년예술을 멈추지 않으며 사회적 과제와 마주하여 작품이 사회적 필요성에 화답하는 것의 가치를 체감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의 지지가 투자가 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신 분들, 사회적 예술의 질적 도약을 설레어 하는 이야기꾼의 이웃, 시민 동료들이 모이는 어떤 마을을 꿈꿔 본다. 그 때, 이야기는 마을에서 태어나 세상을 흐르다 다시 마을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먼 훗날 잘 빛은 예술로 어린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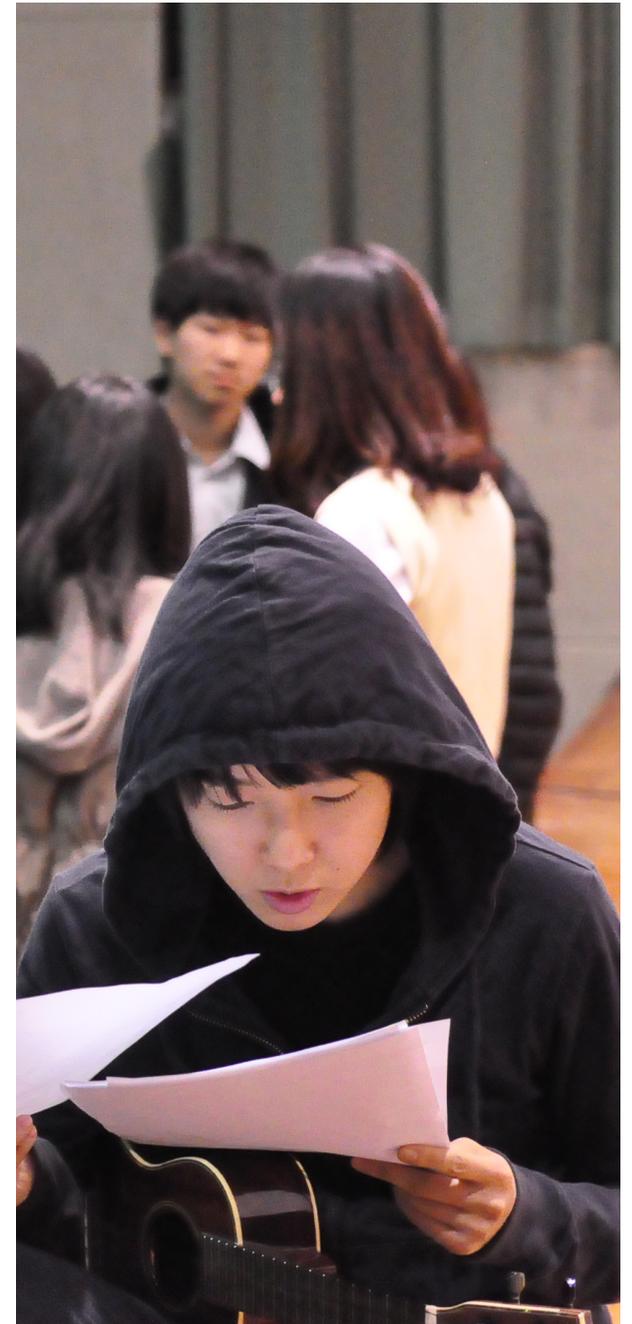


함께 키우고 잘 빚어가며 협동하다보면, 누구나 예술가를 넘나들며 너른 들을 일구는 꿈이 싹을 피울지도 모르겠다.

more info

사이트 <http://bookteller.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BooktellersQuilt



트래블러스맵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자들’은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주)트래블러스맵의 슬로건이자 회사의 이름이고, 정체성이다.(Travelers Make an Amazing Planet = Travelers MAP)

누구나 국내외로 여행을 하는 오늘, 여행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트래블러스맵의 고민과 사업이 시작되었다. ‘굴뚝 없는 완벽한 산업’이라는 교과서의 번듯한 설명이 무색하게, 관광산업은 환경훼손, 전통문화 파괴, 빈곤과 노동착취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었던 것이다.

‘공정여행’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반성에서 나온 새로운 여행문화이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교류하고,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임금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여행. 복잡하고 딱딱해 보이지만, 실은 여행이 대규모 산업이 되기 이전의 ‘기본’ ‘시작’으로 되돌아가자는 간단한 이야기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먹고, 자고, 이야기 나누며 그들의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 사실 오래전에는 모두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여행을 해왔다.

트래블러스맵은 공정여행의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행 인문학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의 새로운 여행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자연에는 최소의 영향을! 지역에는 최선의 기여를! 여행자에게는 최고의 기회를!

목표

- * 공정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시장의 선도적 기업
- * 한국의 지속가능한 관광 시장 규모를 전체 해외 여행객 대비 5%(약 50만 명)으로 확대시키고, 이중 트래블러스맵 점유율 20%(약 10만 명) 목표

what we did in 2012

- * 국내외 공정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
- * 단체, 학교 등 맞춤형 공정여행 기획 및 진행
- * 대안학교 로드스콜라 운영
- * 공정여행 캠페인, 교육, 컨설팅 진행
- * 귀환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공정여행 창업지원 및 컨설팅
- * 공정여행 및 윤리적 소비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웹서비스 개발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국내 공정여행	- 도심, 농촌 등 자연과 문화를 느끼고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여행 진행 - 도보길, 섬, 숲 등 국내 구석구석에서 도보여행, 템플스테이, 에코투어, 사진여행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진행
해외 공정여행	- 현지민이 운영하는 지역 여행사, 마을 홈스테이 등을 통해 현지경제에 기여하고, 여행 참가를 통해 환경 및 문화 보전에 즐거운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제공 - 중국, 캄보디아, 네팔,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지역 및 상품군 확대
맞춤형 공정여행	- 천편일률적인 기존 기업연수,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을 배움과 감동이 있는 의미 있고 즐거운 여행으로 기획, 진행 -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수학여행 공동진행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태감수성을 일깨우는 여행 기획 및 진행
로드스콜라	- 여행을 통한 인문학 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대안학교. 여행 과정과 다양한 문화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진로를 찾는 발판 마련
캠페인, 교육, 컨설팅	- 공정여행 인식 확대, 여행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수행 - 대안여행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예비 사회적기업 컨설팅 -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주말 공정여행학교 '지구별여행자' 운영
귀환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공정여행 창업지원 및 컨설팅	- 귀환 예정 혹은 이미 귀국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아시아 공정여행 창업 인큐베이팅 - 캄보디아와 네팔에 현지인이 경영자인 MAP Cambodia 및 MAP Nepal 설립 완료하고 추가 컨설팅 진행 중
어플리케이션, 웹서비스 개발	- 윤리적 소비와 공정여행을 위한 iOS 어플리케이션 '트래블킴친' 론칭 및 운영 - 윤리적 소비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시장 확대를 위한 웹서비스 개발



what we found and learned in 2012

2012년은 트래블러스맵에게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한해였다. 국내외 공정여행 상품군과 구매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로드스콜라와 지구별여행자 등 교육 프로그램들도 자리를 잡았다. 사회적기업 최초로 2012년 4월 경영공시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여행 분야에서 사회적가치 창출과 비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사회적기업 분야 최초로 윤리경영대상(4월)을 수상하고,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기업(11월)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직 사업 안정화와 전문성 확보 등 갈 길이 멀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내외부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 해였다.

사업 분야와 고용인력 확충 등 사업체로서 규모가 확장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화되는 중요한 한해였다. 설립 5년째, 다양한 배경과 경력의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기업으로서 가지는 다양성과 창의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서히 전문성도 갖추기 시작한 기점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공정여행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아직은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경영, 마케팅 전략과 상품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힘을 써야한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는 한해였다.

2013년에는 트래블러스맵의 컨설팅과 투자로 설립이 완료된 네팔, 캄보디아의 현지 공정여행사가 프로페셔널한 파트너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필리핀, 태국, 인도 등 다른 아시아 지역에도 같은 형태의 공정여행 네트워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외 공정여행은 여행지로 유명한 지역과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어드벤처 두 가지 방향 모두 확충할 예정이다. 에코 허니문, 홈스테이팩 등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고객들의 성향에 맞춰 새로운 상품군의 공정여행 프로그램도 론칭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윤리적 소비, 공정여행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해 즐거우면서도 가치있는 라이프스타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웹서비스 사업도 준비 중이다.

more info

사이트 <http://www.travelersmap.c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travelersmap>

블로그 <http://powertraveler.tistory.com/>

'트래블키친' 블로그 <http://travelkitchen.co.kr/>



그밖의 연계 사회적기업

노리단



2004년 출발한 노리단은 혁신적인 공연, 창의교육, 커뮤니티 디자인의 확장을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와 네트워킹하며, 국내뿐 아니라 일본, 홍콩, 미국, 런던 등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나며 삶과 지역의 활력을 디자인하는 문화예술기업이다. 하자센터가 첫번째로 인큐베이팅한 사회적기업 노리단은 하자센터에서의 8년간 성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2012년 3월 부천으로 거점을 옮겼다. 지역의 열린 파트너로서, 공연단으로서, 교육 프로그램 제공자로서, 미디어 융합 콘텐츠 개발자로서, 공간과 조형 디자이너로서, 지역 재생과 창조의 거점으로서, 문화 기획 그룹이자 다양한 예술가 집단으로서 이 모든 활동을 청년의 내일로 연결하는 지역 종합상사로서 비전을 다시 세우며, 노리단은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노래단 '몽땅', 남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자 하는 부산노리단 등 지역 거점 그룹으로 거듭나고 있다.

more info

사이트 <http://www.noridan.org>

그밖의 연계 사회적기업

리블랭크



리블랭크는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낭비되는 폐자원을 업사이클링 하면서 자원순환에 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사회적기업이다. 디자인 제품에 폐자원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여 한번 구입한 사물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지니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소중한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Long-lasting Design을 하고 있다.

more info

사이트 www.reblank.com

그밖의 연계 사회적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



결혼식이 결혼의 본질적 의미를 올곧게 담아내고, 나아가 자연-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성찰케 하는 문화적 제도와 의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결혼으로 탄생하는 녹색 가정이 친환경적인 예식을 계기로 녹색 삶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친환경 리빙 제품과 유기농 영유아 용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병원복과 친환경 유니폼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more info

사이트 <http://www.ecodress.net/>

카페 <http://cafe.naver.com/ecowedding>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ecowedding1>

2012 하자센터 연간보고서
haja Center annual report

기획 & 편집 | 이지현 uze@haja.or.kr

디자인 | 여혜진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02 2677 9200

www.haja.net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 haja Center. Some rights reserved.